

발 간 등 록 번 호

11-1390000-003229-01



10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2016. 12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정보화사업 중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 창 운

**본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은 다음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여 연 구 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찬성 연구위원 ◦ 김주영 연구위원
연 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인기, 최정민 연구위원 ◦ 조종석, 박민철, 박용일, 이석주, 황순연, 천승훈, 연지윤, 장동익, 김병관, 우왕희, 송태진 부연구위원 ◦ 신영권, 성홍모, 김동호, 김진우, 김규진, 김정은, 강국수, 고두환, 김관용, 김성민, 김은미, 박미란, 박준호, 변상진, 신동찬, 오연선, 이선아, 유연승, 이용철, 정성환, 정승연, 조용훈, 정현진, 주진호, 탁지훈, 홍성표 연구원 ◦ 서유진 연구조원 ◦ 전윤미, 나선영, 윤황섭, 박선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 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춘 전문연구원 ◦ 최종희 부연구위원 ◦ 류희영 연구원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보고서 구성 및 담당연구진

번 호	과 제 명	연 구 진
제 1권	요약보고서	박용일, 신영권, 박준호, 김규진, 신동찬
제 2권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연구	조종석, 김병관, 강국수, 박미란, 정성환
제 3권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조종석, 김병관, 연지윤, 이석주, 장동익, 김정은, 주진호, 정현진, 이용철, 정성환
제 4권	장래교통계획DB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김주영, 유연승, 김관용
제 5권	전국 화물 O/D 보완갱신	박민철, 성흥모, 우왕희, 변상진, 조용훈
제 6권	전국 화물 O/D 예비조사	박민철, 성흥모, 우왕희, 변상진, 조용훈
제 7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도로)	김동호, 탁지훈, 정승연
제 8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대중교통)	김동호, 이선아, 정승연
제 9권	국가교통통계조사	황순연, 오연선, 고두환
제10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성흥모, 장동익, 김은미
제11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조사연구	장동익, 홍성표
제12권	교통혼잡지도 DB구축	천승훈, 송태진, 김진우, 김성민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과제별 공동참여·위탁용역 사업자

【공동사업 참여기관】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수도권 부문)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대구광역시권 부문)
 - 대구경북연구원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부문)
 - 제주발전연구원

【위탁용역 사업자】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부산·경남권 부문)
 - 나이스알앤씨(주), (주)선일이앤씨, 동해엔지니어링(주)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대전·충청·세종권 부문)
 - (주)드림이엔지, 대전리서치센터,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울산·경북·강원 부문)
 -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동해엔지니어링(주)
- 전국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공동사업 (광주·전라 부문)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주)태영기술공사,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 전국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웹시스템 구축
 - (주)한신정보기술
- 가구통행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모집단 추정을 위한 1차 전수화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 장래교통계획 GIS Map 구축
 - (주)큐빅웨어
- 2016년 전국화물 통행실태 예비조사
 - (주)매트릭스코퍼레이션, (주)서던포스트, 동해엔지니어링(주)

【위탁용역 사업자】

- 도로망 GIS DB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보완갱신
 - 현대엠엔소프트(주)
- 통합교통망 GIS DB 및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보완갱신
 - (주)큐빅웨어
- 2016년도 국가교통DB Brief 발행
 - (주)피그마리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리서치랩
- KTDB랩 플랫폼 유지보수 전국단위 교통망 기초DB 구축 및 대정부 서비스 기반 구축
 - (주)큐빅웨어,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KTDB 웹사이트 운영환경 개선
 - (주)한신정보기술
- KTDB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주)지에스엔시스템즈
- 국가교통DB 재미있는 교통통계 Web 디자인
 - (주)피그마리온

【자문용역 사업자】

- 사업체 (제조업, 도매업, 창고업 및 위험물질 취급) 및 화물자동차 표본설계
 - 사단법인한국조사연구학회

최종보고서 목차

- 제 1권 요약보고서**
- 제 2권 전국여객 O/D 보완갱신**
- 제 3권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 제 4권 장래교통계획DB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 제 5권 전국 화물O/D 보완갱신**
- 제 6권 전국 화물O/D 예비조사**
- 제 7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도로)**
- 제 8권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네트워크)**
- 제 9권 국가교통통계조사**
- 제 10권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제 11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조사연구**
- 제 12권 교통혼잡지도 DB구축**

목 차

요 약

제1장 과업의 개요	1
------------------	---

제2장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5
---------------------------------------	---

-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7
-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 9
-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40
- 제4절 사후평가 / 43

제3장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45
--	----

- 제1절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자료조사 / 47
- 제2절 하계휴가철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 49
-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82
- 제4절 사후평가 / 84

제4장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85
--	----

-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 87
-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 조사 / 89
-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 124
- 제4절 사후평가 / 127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29
---------------------	-----

- 제1절 결론 / 131
- 제2절 향후 과제 / 133

부 록	135
-----------	-----

표 목 차

〈표 2- 1〉 2014,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8
〈표 2-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10
〈표 2- 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14
〈표 2- 4〉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15
〈표 2- 5〉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아진 점	16
〈표 2- 6〉 2016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17
〈표 2- 7〉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18
〈표 2- 8〉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18
〈표 2- 9〉 귀성지 유형(귀성+지역내 이동)	19
〈표 2-10〉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0
〈표 2-11〉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21
〈표 2-12〉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22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복수응답)	23
〈표 2-14〉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복수응답)	23
〈표 2-15〉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24
〈표 2-1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25
〈표 2-17〉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시점(연도별)	26
〈표 2-18〉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26
〈표 2-19〉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27
〈표 2-20〉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시점(연도별)	28
〈표 2-21〉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29
〈표 2-22〉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29
〈표 2-23〉 2016년 설 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30
〈표 2-2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31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6년)	32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33
〈표 2-27〉 귀성 및 여행시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34
〈표 2-28〉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 구성원 유형	34
〈표 2-2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35

〈표 2-30〉 자가용 이용 이유	36
〈표 2-31〉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37
〈표 2-32〉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37
〈표 2-33〉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38
〈표 2-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39
〈표 2-35〉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41
〈표 2-36〉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43
〈표 3- 1〉 2014,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48
〈표 3- 2〉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50
〈표 3- 3〉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51
〈표 3- 4〉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55
〈표 3- 5〉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56
〈표 3- 6〉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57
〈표 3- 7〉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58
〈표 3- 8〉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59
〈표 3- 9〉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60
〈표 3-10〉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61
〈표 3-11〉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62
〈표 3-12〉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62
〈표 3-13〉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63
〈표 3-14〉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64
〈표 3-15〉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65
〈표 3-16〉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66
〈표 3-17〉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67
〈표 3-18〉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68
〈표 3-19〉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69
〈표 3-20〉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70
〈표 3-21〉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71
〈표 3-22〉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72
〈표 3-23〉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73
〈표 3-24〉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74

〈표 3-25〉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76
〈표 3-26〉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77
〈표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78
〈표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78
〈표 3-29〉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79
〈표 3-30〉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80
〈표 3-3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81
〈표 3-32〉 2016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83
〈표 3-33〉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84
〈표 4- 1〉 2014,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88
〈표 4- 2〉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90
〈표 4- 3〉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91
〈표 4- 4〉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95
〈표 4- 5〉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96
〈표 4-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97
〈표 4-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98
〈표 4-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99
〈표 4- 9〉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100
〈표 4-10〉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100
〈표 4-1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101
〈표 4-12〉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102
〈표 4-13〉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103
〈표 4-14〉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104
〈표 4-15〉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104
〈표 4-16〉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105
〈표 4-17〉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106
〈표 4-18〉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107
〈표 4-19〉 체류일수(연도별)	107
〈표 4-20〉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108
〈표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109
〈표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110

〈표 4-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111
〈표 4-2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111
〈표 4-2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112
〈표 4-2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113
〈표 4-27〉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114
〈표 4-28〉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114
〈표 4-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115
〈표 4-30〉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116
〈표 4-31〉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출발 전, 이동 중)	117
〈표 4-32〉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117
〈표 4-33〉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118
〈표 4-34〉 성묘 시기(성묘안함 제외)	118
〈표 4-35〉 추석 연휴 기간 중 벌초 여부	119
〈표 4-36〉 벌초시기	119
〈표 4-37〉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120
〈표 4-38〉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121
〈표 4-39〉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122
〈표 4-40〉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연도별)	122
〈표 4-41〉 추가휴가 계획	123
〈표 4-42〉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125
〈표 4-43〉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127

그림목차

〈그림 2-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연도별)	14
〈그림 2- 2〉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15
〈그림 2- 3〉 대체공휴일 휴식 여부 및 실시 후 좋아진 점	16
〈그림 2- 4〉 2016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17
〈그림 2- 5〉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18
〈그림 2- 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19
〈그림 2- 7〉 귀성지 유형	19
〈그림 2- 8〉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0
〈그림 2- 9〉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21
〈그림 2-10〉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22
〈그림 2-11〉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복수응답)	23
〈그림 2-12〉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복수응답)	24
〈그림 2-13〉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25
〈그림 2-1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25
〈그림 2-15〉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시점(연도별)	26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27
〈그림 2-17〉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27
〈그림 2-18〉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시점(연도별)	28
〈그림 2-19〉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29
〈그림 2-20〉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30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31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6년)	32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33
〈그림 2-2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34
〈그림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35
〈그림 2-26〉 자가용 이용 이유	36
〈그림 2-27〉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37
〈그림 2-28〉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38
〈그림 2-29〉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전체)	39

〈그림 2-30〉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39
〈그림 2-31〉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40
〈그림 2-32〉 2016년 설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41
〈그림 2-33〉 연도별 설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42
〈그림 2-34〉 2016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42
〈그림 3- 1〉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55
〈그림 3- 2〉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56
〈그림 3- 3〉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57
〈그림 3- 4〉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58
〈그림 3- 5〉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59
〈그림 3- 6〉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60
〈그림 3- 7〉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61
〈그림 3- 8〉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62
〈그림 3- 9〉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63
〈그림 3-10〉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64
〈그림 3-11〉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65
〈그림 3-12〉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66
〈그림 3-13〉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67
〈그림 3-14〉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68
〈그림 3-15〉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68
〈그림 3-16〉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69
〈그림 3-17〉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70
〈그림 3-18〉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71
〈그림 3-19〉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72
〈그림 3-20〉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73
〈그림 3-21〉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74
〈그림 3-22〉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변화(연도별)	75
〈그림 3-23〉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국내)	75
〈그림 3-24〉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해외)	76
〈그림 3-25〉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76
〈그림 3-26〉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77
〈그림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78

〈그림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79
〈그림 3-29〉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79
〈그림 3-30〉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80
〈그림 3-3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81
〈그림 3-32〉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82
〈그림 4- 1〉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95
〈그림 4- 2〉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96
〈그림 4-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97
〈그림 4-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98
〈그림 4-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99
〈그림 4- 6〉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100
〈그림 4- 7〉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101
〈그림 4-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102
〈그림 4- 9〉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102
〈그림 4-10〉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103
〈그림 4-11〉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104
〈그림 4-12〉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105
〈그림 4-13〉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105
〈그림 4-14〉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106
〈그림 4-15〉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107
〈그림 4-16〉 체류일수(연도별)	108
〈그림 4-1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109
〈그림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110
〈그림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111
〈그림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112
〈그림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112
〈그림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113
〈그림 4-23〉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114
〈그림 4-24〉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115
〈그림 4-25〉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115
〈그림 4-26〉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116
〈그림 4-27〉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출발 전, 이동 중)	117

〈그림 4-28〉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여부 및 방문 예정 일자	118
〈그림 4-29〉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및 성묘시기	119
〈그림 4-30〉 추석 연휴 기간 중 별초 여부 및 별초시기	120
〈그림 4-3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120
〈그림 4-32〉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121
〈그림 4-33〉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	122
〈그림 4-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연도별)	123
〈그림 4-35〉 추가휴가 여부 및 일수	123
〈그림 4-36〉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124
〈그림 4-37〉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125
〈그림 4-38〉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 최대 이동 추이	126
〈그림 4-39〉 2016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126

요약

요 약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6년도 하계·추석 연휴 기간, 2017년 설 연휴 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 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이번 연도에는 2016년도 하계·추석 연휴 기간, 2017년도 설 연휴 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나.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¹⁾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2월 5일~2월 10일(6일간)
- 2016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5월 4일~5월 8일(5일간)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7월 22일~8월 7일(17일간)

1) 본 보고서에서 2017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7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9월 13일~9월 18일(6일간)
- 2017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7년 1월 26일~1월 30일(5일간)

2)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3)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가정의 달, 추석,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공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자료내용 : 과거 연도 및 해당 연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 수 등)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 수 등)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 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²⁾

가.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12월 23일(수)~2015년 12월 30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8월~2015년 11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2015.2.17~2.22)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5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설 연휴 수송실적)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함
 - 특히 항공과 해운은 각각 일평균 15,659명(23.7%), 6,527명(13.8%)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 시외/전세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6.0%, 7.2% 감소

<표 1> 2014,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5일) (A)	2015년(6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주)}	대	2,892,250	2,963,020	14,461,251	17,778,119	70,770	3,316,868	2.4
고속버스	인	181,946	152,861	909,729	917,166	-29,085	7,437	-16.0
시외/전세	인	1,275,988	1,184,208	6,379,938	7,105,249	-91,780	725,311	-7.2
철도	인	447,466	463,446	2,237,331	2,780,677	15,980	543,346	3.6
항공	인	66,126	81,785	330,629	490,708	15,659	160,079	23.7
해운	인	47,245	53,772	236,223	322,632	6,527	86,409	13.8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5(금)~2.10(수): 6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1월 6일(수)~10일(일) (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3\%$)
 - 유효표본수³⁾ : 2,156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1\%$)

2) 조사내용

- 작년(2015년) 설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이용한 주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6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귀성지 유형,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아진 점, (계획없음 응답자)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설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및 당일 계획,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체류일수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가용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함께 이동하는 가족구성원 유형, 주 이용 도로 및 이용노선, 자가용 이용이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설 연휴 교통비용
 - 2016년 교통비용
- 기타사항
 -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0.4%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2.7%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0.4%, 안간다는 55.1%, 미정은 3.7%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9.7%는 귀성을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설 귀성지 유형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65.4%)’, ‘큰집(23.2%)’, ‘처갓집(8.0%)’ 등임
- 설 연휴 기간 계획
 - 설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으로는 ‘차례/제사’ (27.1%), ‘휴식’ (25.9%) 등이었으며,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으로는 ‘차례/제사’ (3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3.2%로 가장 높고, ‘충청권’ (19.0%), ‘호남권’ (17.1%)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42.5%로 통행의 큰 비중을 차지
 - ‘서울시’, ‘경기도(인천 포함)’의 비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충청권’, ‘영남권’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해외로의 여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해외여행 비율 : 1.2%(’14)→2.5%(’15)→3.5%(’16)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7일(일)’, 귀가 출발일은 설 다음날인 ‘2월 9일(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 출발일은 설 전전일 이전(D-2 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반면, 설 전일(D-1)에 출발하는 비율이 감소함
 -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D-day)’에 귀가하는 가구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3박 4일 이상’ (32.7%)이 가장 높고, ‘1박 2일’ (27.8%)과 ‘2박 3일’ (27.9%)은 비슷한 수준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박 2일,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 (86.8%)이 가장 높고, ‘비행기’ (5.3%), ‘버스’ (3.9%), ‘기차’ (3.4%)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76.8%)이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 (56.0%)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6천원으로 작년(13만 8천원) 대비 감소(-2천원) 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 수
 - 동행인 수는 ‘4명’이 47.7%로 가장 높고, 자가용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0.3%)>전체(47.7%)>대중교통(30.5%)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4.3%)>전체(2.9%)>자가용(1.1%)
-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 중 83.8%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임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성인자녀’만 가는 경우가 37.1%로 가장 높고, ‘부모(부부)’ (29.9%), ‘부모와 미성년자녀’ (12.8%)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이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9.3%로 분석됨
-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0.4%)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 (14.9%), ‘영동선’ (8.6%) 순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부선’, ‘남해선’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중부내륙선’과 ‘영동선’, ‘경춘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설을 맞아 얹려되는 내용
 - 설 연휴를 맞아 얹려되는 것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30.6%),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21.6%)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은 ‘음주단속(22.6%)’임
 - 다음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1.2%)’, ‘졸음운전(20.0%)’ 등으로 나타남

다.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6.2.5~2.10, 6일간) 동안 일평균 608만명, 총 3,645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2.7% 증가, 평시대비 69.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설 연휴 기간(16.2.5~2.10)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도 로	승용차		2,553	5,134	30,803	84.5	201.1
	버 스	고속버스	38	52	313	0.9	136.8
		시외·전세	757	600	3,598	9.9	79.3
철도			179	221	1,326	3.6	123.5
항공			39	42	251	0.7	107.7
해운			22	26	155	0.4	118.2
합계			3,588	6,075	36,446	100.0	169.3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487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49천명으로 102.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6% 과대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해운의 오차율이 13.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88.9% 증가

<표 3>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 적					
			1일 평균 (C)	기간 전 체	1일 평균 (D)	기간 전 체				
승용차	5,030	2,553	5,134	30,803	5,008	30,045	102.5	▲2.5	99.6	196.2
고속버스	72	38	64	384	68	409	94.1	▼5.9	94.4	178.9
철도	217	179	221	1,326	212	1,274	104.2	▲4.2	97.7	118.4
항공	38	39	42	251	39	231	107.7	▲7.7	102.6	100.0
해운	25	22	26	155	23	136	113.0	▲13.0	92.0	104.5
전체	5,382	2,831	5,487	32,919	5,349	32,095	102.6	▲2.6	99.4	188.9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3.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6년 6월 9일(목)~2016년 6월 16일(목)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12월~2016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17일간: 2015.07.24~08.09)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 2015년 하계휴가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승용차, 고속버스를 제외하고 2014년 동기간보다 증가함
 - 특히 해운은 일평균 25,858명(51.4%)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승용차는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표 4> 2014,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 (17일) (A)	2015년 (1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4,203,231	3,094,672	71,454,929	52,609,425	-1,108,559	-18,845,504	-26.4
고속버스	인	141,294	140,745	2,401,996	2,392,659	-549	-9,337	-0.4
시외/전세	인	1,008,125	1,090,585	17,138,124	18,539,939	82,460	1,401,815	8.2
철도	인	411,624	418,511	6,997,611	7,114,691	6,887	117,080	1.7
항공	인	73,680	87,993	1,252,564	1,495,875	14,313	243,311	19.4
해운	인	50,322	76,180	855,468	1,295,064	25,858	439,596	51.4

나. 하계휴가철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7.22(금)~8.7(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6월 22일(수)~26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5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1\%$)(유선전화 8,600세대, 인터넷전화 900세대)
 - 유효표본수 : 2,017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8\%$)

2) 조사내용

○ 올해(2016년) 휴가 관련

-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 (이미 다녀왔을 경우) 하계휴가 시기,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수, 모든 가족구성원의 여행여부 등), 자가용 보유여부,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하계휴가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및 해당시기에 여행을 계획한 이유,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일수, 하계휴가 여행지 및 여행지 유형, 주 교통수단,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 동행인(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 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하계휴가 중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하계휴가 여행 총 예상 휴가 비용,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작년(2015년) 휴가 관련

- 작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작년 하계휴가 여행 시기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직업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여행여부 및 하계휴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

- 전년대비 간다(22.2%→21.2%)는 비율이 줄어들고, 최근 3년간 간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여행비율의 감소는 ‘생업(사업)상의 이유’ (31.4%)와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23.8%)으로 분석됨

○ 하계휴가 여행 시기

- 하계휴가 여행 시기로는 ‘7월 30일(토)~8월 5일(금)’이 46.0%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38.2%→46.0%)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날짜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 (45.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사람(52.3%)들의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의 비율이 그 외 기간(34.6%)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52.3%),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 집 방학에 맞춰’ (28.1%), ‘가장 더운 시기여서’ (10.2%)가 전체 및 그 외 기간 대비 높게 나타남

○ 하계휴가 여행지역

- ‘동해안권’으로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남해안권’, ‘서해안권’ 순임
- 최근 ‘해외’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강원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유형 및 체류일수

- 여행지 유형은 ‘바다나 계곡’ (70.7%), 체류일수는 ‘2박 3일’ (43.2%)이 가장 높음
- (여행지 유형) ‘바다나 계곡’,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이 감소
- (체류일수) ‘당일’, ‘1박 2일’ 및 ‘2박 3일’이 감소한 반면, ‘3박 4일’과 해외여행 비율 증가에 따라 ‘4일 이상’이 증가함

○ 주 이용 교통수단

- 해외로의 여행 증가로 최근 3년간 비행기 이용률(14.4%→17.0%→20.3%)이 증가함
-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
- 자가용(승용차+승합차) 이용자는 자가용이 편리해서 이용하는 비율(73.6%)이 높았으며,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81.4%)임

○ 고속도로 이용률 및 주 이용 고속도로

- 고속도로 이용률은 감소(86.8%→84.3%)했으며, 전년대비 영동선, 경부선 등의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서해안선, 중부선, 중앙선 등의 이용률이 증가함

○ 동행인 유형

- 가족/친지와 함께 가는 비율이 88.9%, 친구 5.3%, 가족/친지+친구가 5.0% 순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의 경우 가족/친지 여행이 90.8%, 친구와 여행이 4.2%인 반면, 해외여행의 경우 가족/친지 76.1%, 친구 13.4%로 차이를 보임

○ 예상소요시간

- 하계휴가 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4.8%로 가장 높음

○ 휴가비용

-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작년 64.0만원(실지출 비용)에서 65.8만원으로 약 2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해외여행은 430.4만원에서 385.9만원으로 44.5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100만원 이상’이 24.8%로 가장 높았고, ‘50~60만원 이상’ 24.7%, ‘30~40만원’ 15.5%의 순임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18.7%,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주요 도로의 혼잡 예상 정도로는 혼잡이 53.4%, 보통 24.3%, 원활 22.3% 순으로 나타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67.2%(이용 41.0%+보통 26.2%)가 평소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며, 수신처로는 출발 전, 이동 중 모두 ‘휴대폰, 스마트폰’이 각각 65.3%,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출발 전에는 ‘포털사이트’가 42.1%로 가장 높고,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40.1%로 높게 나타남
-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평소 다니던 길이어서’가 56.0%로 가장 높았고, ‘교통정체가 없어서’ (24.3%), ‘교통정보를 신뢰하지 않아서’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처방안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한 결과, ‘예상되는 상습 정체구간의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출발’ 하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음
-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최근 가족여행 시기에 따르면 ‘6월 중’이 24.7%로 가장 높고, ‘1년 이내’ 23.2%, ‘6개월 이내’ 18.6% 등의 순임

다.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16.7.22~8.7, 17일간) 동안 일평균 474만명, 총 8,065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2.5% 증가, 평시대비 2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 2016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6.7.22~8.7)			평시대비 (%)
				일평균 교통량	17일 총수송량	분담률 (%)	
도 로	승용차		2,848	3,839	65,261	80.9	134.8
	버 스	고속버스	43	57	970	1.2	132.6
		시외·전세	732	550	9,358	11.6	75.1
철도			171	208	3,541	4.4	121.6
항공			37	48	820	1.0	129.7
해운			19	41	699	0.9	215.8
합계			3,850	4,743	80,649	100.0	123.2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193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473천명으로 76.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3.4%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의 오차율이 25.4%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75.5% 증가

<표 6>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 적							
	1일 평균 (C)	기간 전 체	1일 평균 (D)	기간 전 체						
승용차	3,773	2,848	3,839	65,261	5,143	87,439	74.6	▼25.4	136.3	180.6
고속버스	66	43	57	970	54	913	105.6	▲5.6	81.8	125.6
철도	196	171	208	3,541	196	3,333	106.1	▲6.1	100.0	114.6
항공	41	37	48	820	44	745	109.1	▲9.1	107.3	118.9
해운	36	19	41	699	36	609	113.9	▲13.9	100.0	189.5
전체	4,112	3,118	4,193	71,291	5,473	93,039	76.6	▼23.4	133.1	175.5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4.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가.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6년 8월 4일(목)~2016년 8월 11일(목)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6년 6월~2016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5.9.25~9.29)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추석 연휴 수송실적)

- 시외/전세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5년 동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함
- 특히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24.6% 증가

<표 7> 2014,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7일) (A)	2015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주)}	대	3,030,312	3,446,315	21,212,186	17,231,573	416,003	-3,980,613	13.7
고속버스	인	150,189	187,090	1,051,326	935,452	36,901	-115,874	24.6
시외/전세	인	1,334,851	1,448,624	9,343,958	7,243,119	113,773	-2,100,839	8.5
철도	인	473,578	538,863	3,315,048	2,694,314	65,285	-620,734	13.8
항공	인	76,717	89,408	537,020	447,038	12,691	-89,982	16.5
해운	인	68,572	77,770	480,005	388,851	9,198	-91,154	13.4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나.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화)~9.18(일): 6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8월 17일(수)~8월 22일(월)(6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3\%$)(유선전화 7,200세대, 인터넷전화 1,800세대 포함)
 - 유효표본수⁴⁾ : 2,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9\%$)

2) 조사내용

- 작년(2015년) 추석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6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 권역 여부, 귀성 및 여행 중 우선 이동 가능성, (계획없음 응답자)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체류일수 등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가용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동행인 유형,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휴대폰 이용시 구체적인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성묘 여부 및 시기, 성묘지역, 별초 여부 및 시기,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휴가일수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 형태

3)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2.2%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0.7%임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 하기 때문(70.5%)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14일(수)', 귀경 출발일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귀성일은 'D-1', 귀경일은 'D+3 이후'의 비율이 증가함

- 귀성-귀경 출발일별 출발시간의 경우,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월 14일(수)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 오후'의 비율이 높음
- 체류일수
 - '1박 2일'의 비율이 30.6%로 높고, 연도별로는 '4박 5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7%로 가장 높고, '호남권' (20.3%), '충청권' (18.1%) 순으로 나타남
 - 해외여행 비율 증가 : 1.7%('15) → 3.1%('16)
-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 '휴식을 위한 황금연휴라서'가 53.4%로 가장 많고, '여름휴가를 못가서' (19.0%),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해' (13.8%) 등임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 (83.9%)이 가장 높고, '버스' (6.0%), '열차' (4.3%) 순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자가용이 감소하고, 비행기의 비율이 증가함
 - 고속철도(KTX) 이용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로 나타남
- 이용고속도로
 - '경부선' (30.4%), '서해안선' (14.4%), '호남선' (10.3%) 순
 - 연도별로는 '호남선', '중부선'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경부선'의 비율은 감소함
- 자가용 보유가구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 이용 이유로는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70.0%)이며,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 이용 이유로는 '대안수단 부재' (42.0%) 때문임
- 동행인 수
 - 올해(2016년) 동행인 수는 자가용 평균 3.6명, 대중교통 평균 3.0명으로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자가용의 평균 동행인원이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평균 동행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 : 3.7명('15) → 3.6명('16), 대중교통 : 2.9명('15) → 3.0명('16)
 - 연도별로는 2014년 이후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동행인 수 '4명 이상'은 감소하고, '2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별초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57.2%가 별초를 하며, 별초 시기로는 ‘추석 연휴 2주전’ (48.3%)이 가장 많음
 - 별초 시기는 전년(2015년)대비 ‘추석 연휴 3주 이전’이 감소함
- 성묘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67.6%가 성묘를 하며, 시기는 ‘추석 연휴’ (52.9%)가 가장 많음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추석 연휴’ (56.8%→52.9%)에 성묘를 예정하고 있는 응답자가 감소함
- 교통비용
 - 올해(2016년) 교통비용은 평균 1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비율은 57.7%이며,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 (출발 중, 이동 중 각각 63.1%, 59.7%)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처가/친정 방문여부 및 방문일
 -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0.0%로 출발일은 ‘9월 15일 (목, 추석 당일)’이 가장 많음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점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1.7%로 가장 높고, 이는 ‘남자’ (10.9%) 대비 ‘여자’ (40.4%)의 응답률이 높음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졸음운전’이 30.1%로 가장 높음

다.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요예측 및 사후평가 결과

1)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016.9.13~9.18, 6일간) 동안 일평균 625만명, 총 3,752만명 이동하여 작년대비 0.8% 증가, 평시대비 7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8>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추석 연휴 기간('16.9.13~9.18)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 로	승용차		2,695	5,229	31,376	83.6	194.0
	버 스	고속버스	46	73	436	1.2	158.7
		시외·전세	668	626	3,755	10.0	93.7
철도			164	249	1,491	4.0	151.8
항공			36	45	270	0.7	125.0
해운			18	32	194	0.5	177.8
합계			3,627	6,254	37,522	100.0	172.4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628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88천명으로 104.5%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4.5% 과대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12.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82.1% 증가

<표 9>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 적					
			1일 평균 (C)	기간 전체	1일 평균 (D)	기간 전체				
승용차	5,221	2,695	5,229	31,376	5,010	30,060	104.4	▲4.4	96.0	185.9
고속버스	75	46	73	436	83	500	88.0	▼12.0	110.7	180.4
철도	223	164	249	1,491	221	1,325	112.7	▲12.7	99.1	134.8
항공	39	36	45	270	42	254	107.1	▲7.1	107.7	116.7
해운	31	18	32	194	31	186	103.2	▲3.2	100.0	172.2
전체	5,589	2,959	5,628	33,767	5,388	32,325	104.5	▲4.5	96.4	182.1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6.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교통대책
 -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정부대책을 지원함
 - 설문조사, 수요예측, 특별교통대책을 카드뉴스 및 포스터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의 결과 홍보를 위한 보다자료 수요예측 부문에 있어서도 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인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 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함
 - 또한 과거 20대, 30대 및 40대 응답자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 조사원을 보다 더 투입하여 조사 대상에서 다수 누락되었던 맞벌이부부와 가장의 응답률을 높임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 하였고,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변경·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2016년 설 연휴⁵⁾ : 대체공휴일 휴식여부 및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은 점, 설 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 설 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 출발 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여행) 소요시간, 목적지부터 귀가지 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설을 맞이하여 가장 염려되는 내용
 - 2016년 하계휴가철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 2016년 추석 연휴 :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성묘 지역,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휴가일수

5)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5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 2014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함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는 집 전화조사 외에 인터넷 집 전화를 도입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함(하계휴가철 약 900표본, 추석 연휴 약 2,000표본)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함
 - 설 및 추석 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을 적용함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함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철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하계휴가 기간에는 해외, 남해안권 및 제주도 여행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 여행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귀경객에 대한 분산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함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6년 설 연휴의 경우 2.6%, 2016년 하계휴가의 경우 23.4%, 2016년 추석 연휴의 경우는 4.5%의 오차율을 보임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각각 해운(13.0%), 승용차(25.4%), 추석 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12.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나.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모바일 자료 및 국도 교통량조사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 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및 하이패스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기간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써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가구의 유선전화 보유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터넷 전화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휴대전화 조사를 병행·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16년도 하계·추석 연휴 기간, 2017년 설 연휴 기간과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특별교통수요를 예측/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정부는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기간과 하계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별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교통수단별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효과적인 특별교통대책은 지역간 이동수요, 첨두일자 및 시간대 등 특별교통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음
-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연휴 및 휴가 기간은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지역으로 통행이 집중되지만 교통시설 공급에 한계, 수요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함.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수단별 교통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이번 연도에는 2016년도 하계·추석 연휴 기간, 2017년도 설 연휴 기간 같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통행행태 및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2.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¹⁾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2월 5일~2월 10일(6일간)
- 2016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5월 4일~5월 8일(5일간)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7월 22일~8월 7일(17일간)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6년 9월 13일~9월 18일(6일간)

1) 본 보고서에서 2017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결과는 2017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수록예정

- 2017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7년 1월 26일~1월 30일(5일간)

나. 공간적 범위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통행실태 조사의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하계휴가, 가정의 달, 추석,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수송수요 예측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전국대상 각 수단별 시설현황 및 사회경제지표자료 수집
 - 도로·철도·해운·항공 등의 교통시설 및 수송실적 현황
 - 자료내용 : 과거 연도 및 해당 연도 월별 수송실적, 특별교통대책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
 - 대상수단 : 고속도로(승용차, 고속버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철도(KTX, 일반열차), 해운, 항공
- 연휴기간동안 통행계획 및 통행특성조사
 - 조사대상 : 전국/광역권 단위 세대
 - 설문조사내용
 - 전년도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동반자 수 등)
 - 올해 귀성 및 여행 여부(목적지, 이용교통수단, 통행예정일자, 통행예정시간대, 동반자 수 등)
 - 개인 및 가구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
-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 수요예측 근거자료 : 전년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자료 및 사전 설문조사결과, 과거 연휴 기간동안 통행패턴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 연휴기간 교통수요예측
 -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교통수요, 지역간 통행수요(여름휴가 제외) 및 수단별 수송분담율 등
- 교통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특별교통대책 수립
 -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예측결과를 근거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정부합동)

제2장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2장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¹⁾

제1절 설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5년 12월 23일(수)~2015년 12월 30일(수)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8월~2015년 11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2015.2.17~2.22)

1)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4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설 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4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4년 설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3년 동기간보다 증가함
 - 특히 항공과 해운은 각각 일평균 15,659명(23.7%), 6,527명(13.8%) 증가로 전년 대비 10% 넘는 증가율을 보임
 - 반면 고속버스, 시외/전세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16.0%, 7.2% 감소

<표 2- 1> 2014, 2015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5일) (A)	2015년(6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주)}	대	2,892,250	2,963,020	14,461,251	17,778,119	70,770	3,316,868	2.4
고속버스	인	181,946	152,861	909,729	917,166	-29,085	7,437	-16.0
시외/전세	인	1,275,988	1,184,208	6,379,938	7,105,249	-91,780	725,311	-7.2
철도	인	447,466	463,446	2,237,331	2,780,677	15,980	543,346	3.6
항공	인	66,126	81,785	330,629	490,708	15,659	160,079	23.7
해운	인	47,245	53,772	236,223	322,632	6,527	86,409	13.8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5(금)~2.10(수): 6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1월 6일(수)~10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3\%$)
 - 유효표본수²⁾ : 2,156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1\%$)

나. 조사내용

- 작년(2015년) 설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이용한 주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6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귀성지 유형, 명절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아진 점, (계획없음 응답자)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설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및 당일 계획, 가족들의 역귀성 여부 및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체류일수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가용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함께 이동하는 가족구성원 유형, 주 이용 도로 및 이용노선, 자가용 이용이유,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설 연휴 교통비용
 - 2016년 교통비용

2) 유효표본은 2016년 설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으며, 설문을 끝까지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 기타사항

-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다. 조사표본 선정

- 설 연휴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구·동 단위(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

○ 조사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2-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5년 설					2016년 설				
	전체 세대수 ¹⁾	표본		유효표본		전체 세대수 ²⁾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94,176	1,820	20.2	411	19.8	4,189,948	20.0	1,798	433	20.1
부산광역시	1,421,648	617	6.9	134	6.4	1,437,818	6.8	616	146	6.8
대구광역시	970,618	422	4.7	123	5.9	982,360	4.7	421	135	6.3
인천광역시	1,136,280	493	5.5	144	6.9	1,154,004	5.5	494	137	6.4
광주광역시	573,043	249	2.8	86	4.1	580,427	2.8	249	76	3.5
대전광역시	592,508	257	2.9	71	3.4	597,008	2.8	256	89	4.1
울산광역시	442,250	192	2.1	61	2.9	451,688	2.2	194	66	3.1
경 기 도	4,786,718	2,077	23.1	522	25.1	4,885,012	0.4	34	549	25.5
강 원 도	673,978	293	3.3	28	1.3	685,005	23.2	2,091	45	2.1
충 청 북 도	656,321	285	3.2	46	2.2	669,503	3.3	293	50	2.3
충 청 남 도	871,459	378	4.2	109	5.2	885,968	3.2	287	101	4.7
전 라 북 도	774,562	336	3.7	54	2.6	782,986	4.2	379	35	1.6
전 라 남 도	823,667	358	4.0	55	2.6	833,901	3.7	335	63	2.9
경 상 북 도	1,153,559	501	5.6	115	5.5	1,169,648	4.0	357	93	4.3
경 상 남 도	1,343,984	585	6.5	101	4.9	1,367,142	5.6	501	124	5.8
제 주 도	246,516	107	1.2	9	0.4	256,928	6.5	585	6	0.3
세종특별자치시	62,807	30	0.3	9	0.4	81,806	1.2	110	8	0.4
전 국	20,724,094	9,000	100.0	2,078	100.0	21,011,152	100.0	9,000	2,156	100.0

주: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4. 12)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12)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 할당하여 진행함

라. 조사표본 추출

- 설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 즉, 2015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n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0.4%는 올해 설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2.7%임
 - 설 연휴에 귀성 또는 여행을 간다는 응답은 20.4%, 안간다는 55.1%, 미정은 3.7%이며,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하기 때문(67.5%)임
- 귀성을 꼭 해야하는지 여부
 - 설 연휴 귀성계획이 있는 가구 중 9.7%는 귀성을 꼭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설 귀성지 유형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65.4%)’, ‘큰집(23.2%)’, ‘처갓집(8.0%)’ 등임
- 설 연휴 기간 계획
 - 설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으로는 ‘차레/제사’(27.1%), ‘휴식’(25.9%) 등이었으며,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으로는 ‘차레/제사’(3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3.2%로 가장 높고, ‘충청권’(19.0%), ‘호남권’(17.1%) 순이며, 수도권 거주자의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42.5%로 통행의 큰 비중을 차지
- ‘서울시’, ‘경기도(인천 포함)’의 비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충청권’, ‘영남권’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며, 해외로의 여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해외여행 비율 : 1.2%(’14)→2.5%(’15)→3.5%(’16)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7일(일)’, 귀가 출발일은 설 다음날인 ‘2월 9일(화)’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귀성 출발일은 설 전전일 이전(D-2 이전)에 출발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인 반면, 설 전일(D-1)에 출발하는 비율이 감소함
- 귀가 출발일은 ‘설 당일(D-day)’에 귀가하는 가구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일수

- 체류일수는 ‘3박 4일 이상’(32.7%)이 가장 높고, ‘1박 2일’(27.8%)과 ‘2박 3일’(27.9%)은 비슷한 수준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박 2일,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6.8%)이 가장 높고, ‘비행기’(5.3%), ‘버스’(3.9%), ‘기차’(3.4%)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76.8%)이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56.0%)임
- 가구당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6천원으로 작년(13만 8천원) 대비 감소(-2천원)할 것으로 예상

○ 동행인 수

- 동행인 수는 ‘4명’이 47.7%로 가장 높고, 자가용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의 동행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동행인수 4명 : 자가용(50.3%)>전체(47.7%)>대중교통(30.5%)
- 동행인수 1명 : 대중교통(14.3%)>전체(2.9%)>자가용(1.1%)

○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 중 83.8%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임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성인자녀’만 가는 경우가 37.1%로 가장 높고, ‘부모(부부)’ (29.9%), ‘부모와 미성년자녀’ (12.8%)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이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9.3%로 분석됨

○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 노선으로는 ‘경부선’ (30.4%)이 가장 높고, ‘서해안선’ (14.9%), ‘영동선’ (8.6%) 순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부선’, ‘남해선’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중부내륙선’과 ‘영동선’, ‘경춘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 설 연휴를 맞아 염려되는 것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30.6%),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21.6%)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은 ‘음주단속(22.6%)’임
- 다음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21.2%)’, ‘졸음운전(20.0%)’ 등으로 나타남

나. 작년(2015년) 설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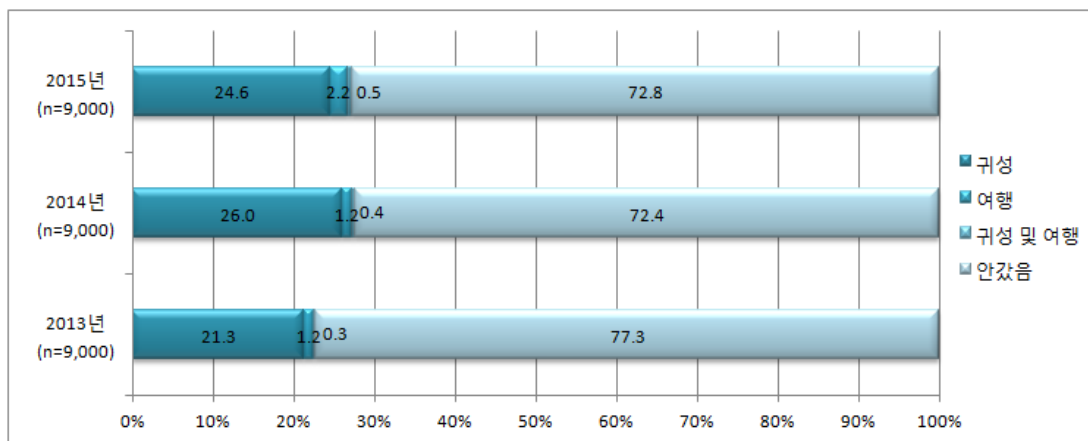
1) 작년(2015년) 설 귀성 및 여행 여부

- 작년(2015년) 설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7.3%가 작년 설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표 2- 3>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5년	비율	24.6	2.2	0.5	72.8	100.0
	빈도	2,210	199	42	6,549	9,000
2014년	비율	26.0	1.2	0.4	72.4	100.0
	빈도	2,343	105	37	6,515	9,000
2013년	비율	21.3	1.2	0.3	77.3	100.0
	빈도	1,914	104	25	6,957	9,000



<그림 2- 1>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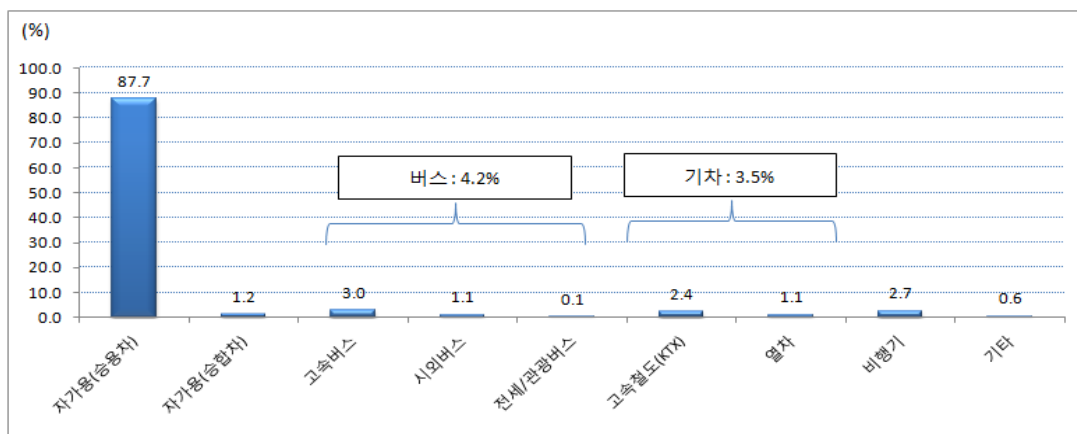
2) 작년(2015년) 설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5년) 설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 (88.9%, 승용차 87.7%+승합차 1.2%)이며, 다음으로 ‘버스’ (4.2%), ‘기차’ (3.5%) ‘비행기’ (2.7%) 순임

<표 2- 4>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승용)	자가용 (승합)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관광 버스	고속 철도	열차	비행기	기타	합계
2015년	비율	87.7	1.2	3.0	1.1	0.1	2.4	1.1	2.7	0.6	100.0
	빈도	2,141	30	73	28	3	58	28	65	14	2,440



<그림 2- 2> 2015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6년) 설 귀성·귀경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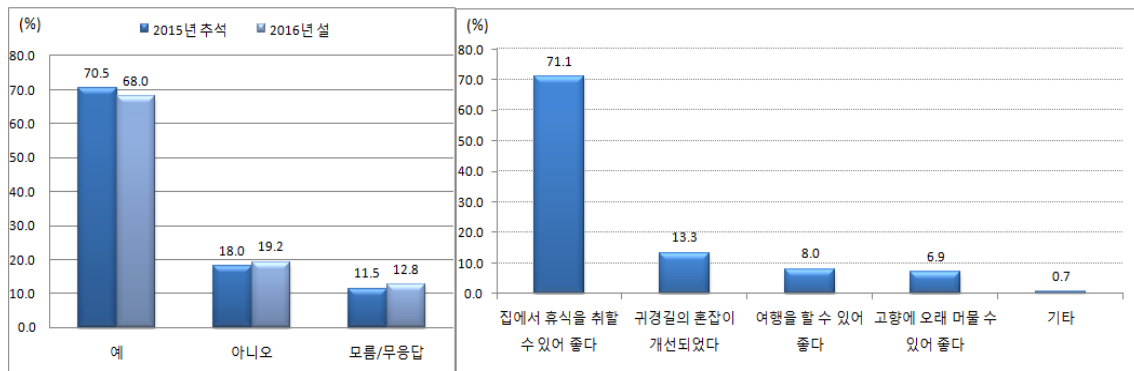
1) 대체공휴일 휴식 여부 및 실시 후 좋아진 점

- 대체공휴일 휴식 여부에 따르면, 68.0%가 대체공휴일에 휴식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5년 추석대비 하락(-2.5%)한 수치임
-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아진 점으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가 71.1%로 가장 많았고, ‘귀경길의 혼잡이 개선되었다’ (13.3%), ‘여행을 할 수 있어 좋다’ (8.0%) 등의 순임
-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0.1%), ‘친척집을 방문할 수 있어 좋다’ (0.1%) 등이 있음

<표 2- 5>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아진 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	귀경길의 혼잡이 개선되었다	여행을 할 수 있어 좋다	고향에 오래 머물 수 있어 좋다	기타	합계
전체	비율	71.1	13.3	8.0	6.9	0.7	100.0
	빈도	3,494	654	393	341	22	4,915



<그림 2- 3> 대체공휴일 휴식 여부 및 실시 후 좋아진 점

2)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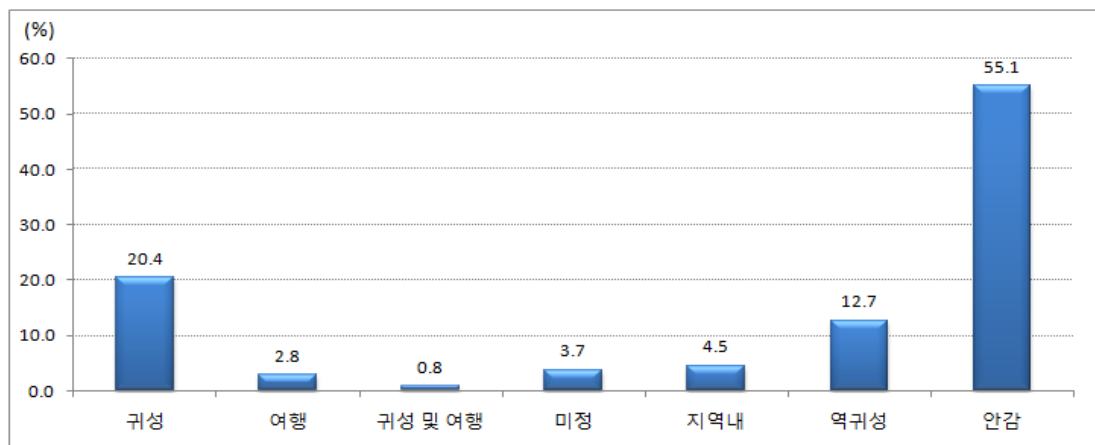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0.4%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2.7%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임

<표 2- 6> 2016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 ^{주)}	지역내			
2016년	비율	20.4	2.8	0.8	12.7	4.5	55.1	3.7	100.0
	빈도	1,838	250	68	1,140	408	4,960	336	9,000

주: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



<그림 2- 4> 2016년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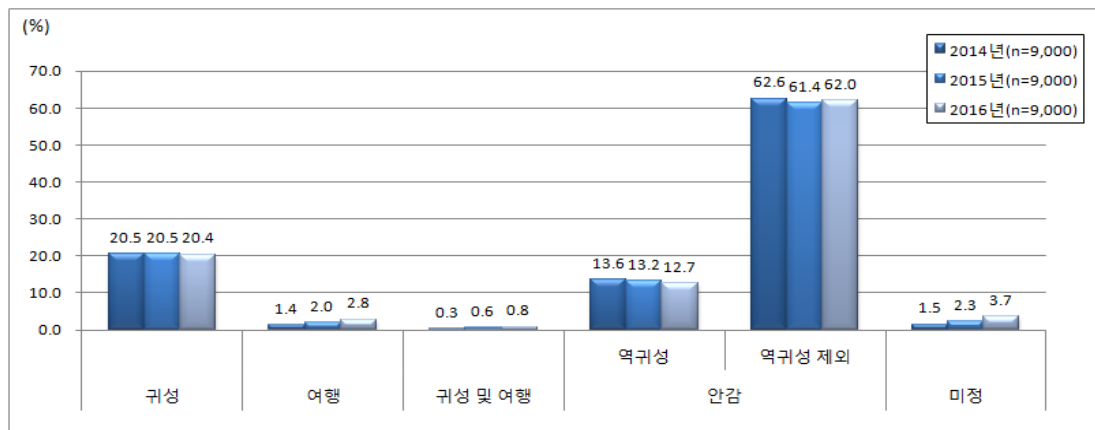
- 설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6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2- 7>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 ^{주)}	역귀성 제외		
2016년	비율	20.4	2.8	0.8	12.7	62.0	3.7	100.0
	빈도	1,838	250	68	1,140	5,368	336	9,000
2015년	비율	20.5	2.0	0.6	13.2	61.4	2.3	100.0
	빈도	1,841	182	55	1,190	5,523	209	9,000
2014년	비율	20.5	1.4	0.3	13.6	62.6	1.5	100.0
	빈도	1,844	130	27	1,223	5,637	139	9,000

주: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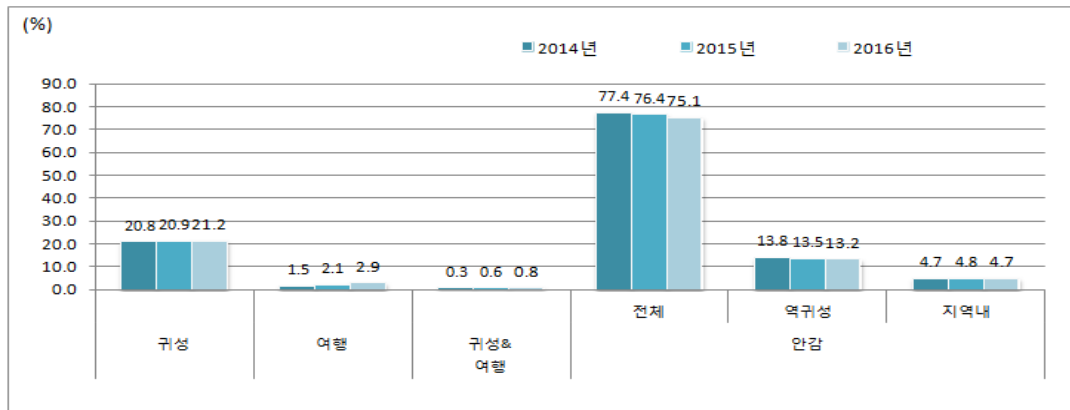
<그림 2- 5>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여도, ‘귀성 또는 여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 추세임

<표 2- 8>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구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전체	역귀성	지역내
2016년	21.2	2.9	0.8	75.1	13.2	4.7
2015년	20.9	2.1	0.6	76.4	13.5	4.8
2014년	20.8	1.5	0.3	77.4	13.8	4.7



<그림 2- 6> 설 귀성 또는 여행 여부(미정제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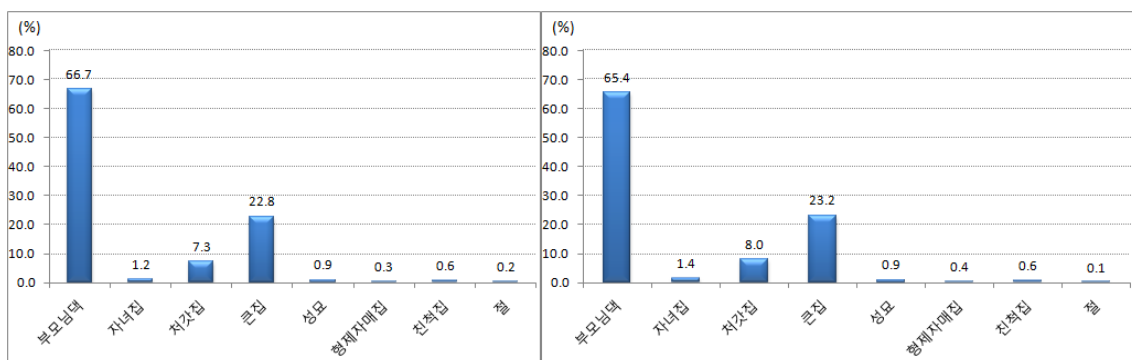
3) 귀성지 유형

- 설 귀성지 유형은 대부분 ‘부모님댁(66.7%)’이었으며, 다음으로 ‘큰집(22.8%)’, ‘처갓집(7.3%)’ 등으로 나타남
- 지역내 이동을 제외하면, ‘부모님댁(65.4%)’, ‘큰집(23.2%)’, ‘처갓집(8.0%)’ 등임

<표 2- 9> 귀성지 유형(귀성+지역내 이동)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부모님 댁	자녀집	처갓집	큰집	성묘	형제 자매집	친척집	절	합계
전체	비율	66.7	1.2	7.3	22.8	0.9	0.3	0.6	0.1	100.0
	빈도	1,549	29	169	530	21	7	15	2	2,322



<귀성+지역내 이동>

<지역내 이동 제외>

<그림 2- 7> 귀성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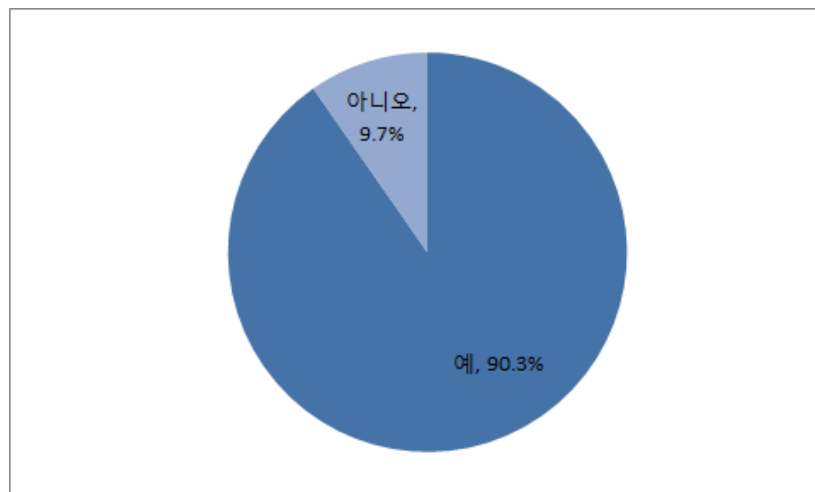
4)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올해(2016년) 설 연휴에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평소 명절 연휴에 귀성을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르면 90.3%는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 추세임

<표 2-10>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전체	비율	90.3	9.7	100.0
	빈도	1,722	184	1,906



<그림 2- 8> 귀성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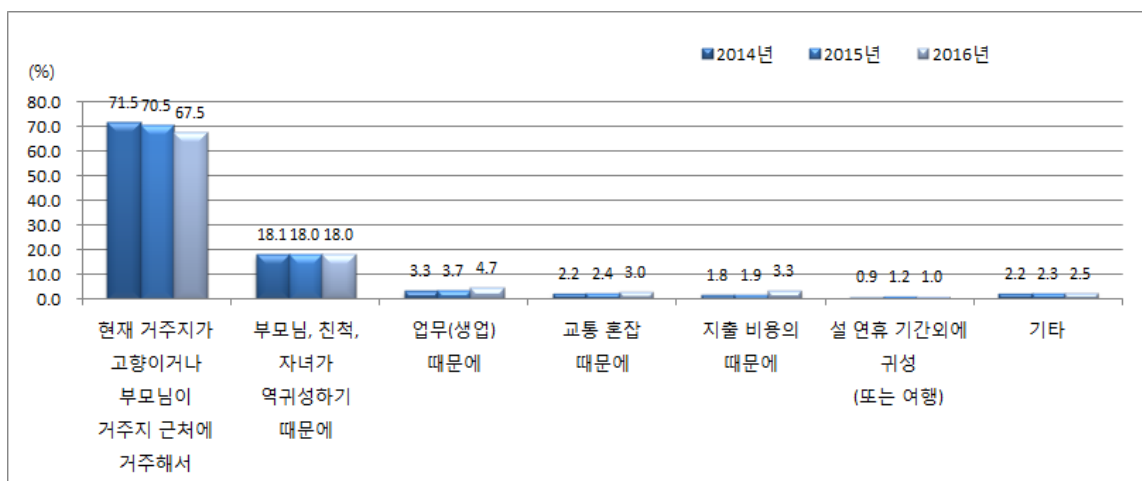
5)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 (18.0%), ‘업무(생업) 때문에’ (4.7%) 등의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2-11>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 비용의 부담 때문에	설 연휴 기간 외에 귀성 (또는 여행)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67.5	18.0	4.7	3.0	3.3	1.0	2.5	100.0
	빈도	4,269	1,140	296	190	206	65	155.0	6,321
2015년	비율	70.5	18.0	3.7	2.4	1.9	1.2	2.3	100.0
	빈도	4,667	1,190	246	158	125	81	156	6,623
2014년	비율	71.5	18.1	3.3	2.2	1.8	0.9	2.2	100.0
	빈도	4,841	1,223	220	150	125	64	78	6,768



<그림 2- 9>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6) 설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

- 설 연휴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2015년) 대비 올해(2016년) 역귀성 비율은 다소 감소(-0.5%)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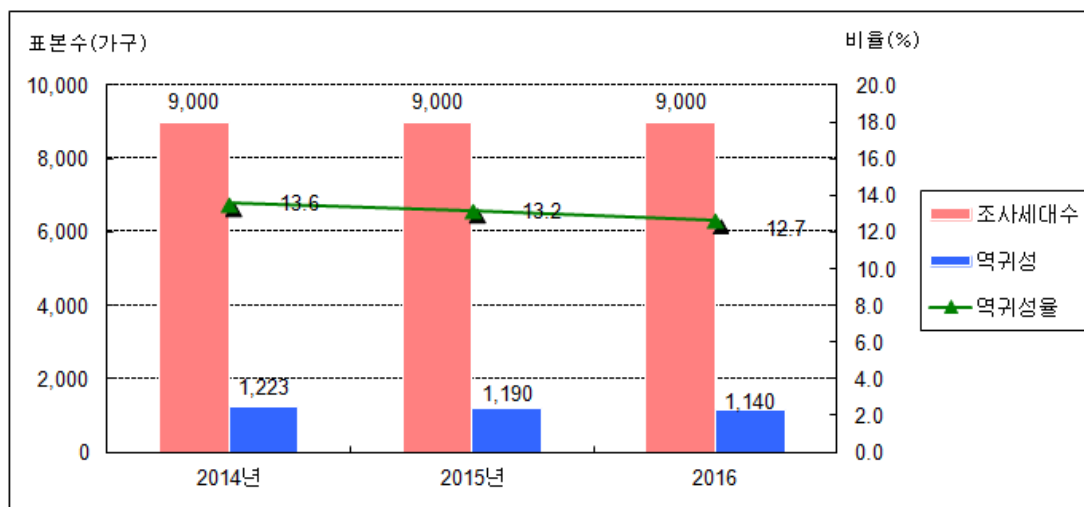
<표 2-12>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 ¹⁾	역귀성 비율 ²⁾
2016년	9,000	1,140	12.7
2015년	9,000	1,190	13.2
2014년	9,000	1,223	13.6

주: 1) '올해(2016)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2-10>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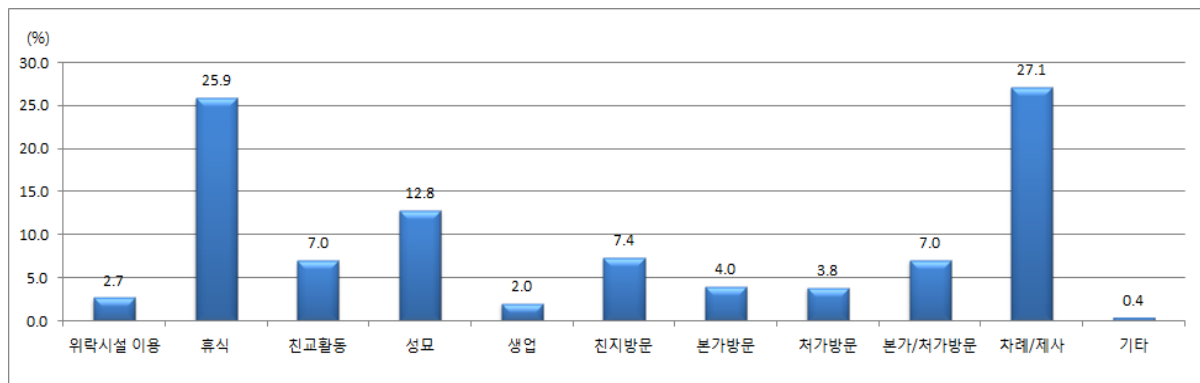
7) 설 연휴 및 당일계획

-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복수응답)으로는 ‘차례/제사’가 27.1%로 가장 높고, ‘휴식’ (25.9%), ‘성묘’ (12.8%), ‘친지방문’ (7.4%) 등의 순임

<표 2-13>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복수응답)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위락 시설 이용	휴식	친교 활동	성묘	생업	친지 방문	본가 방문	처가 방문	본가/ 처가 방문	차례/ 제사	기타	합계
전체	비율	2.7	25.9	7.0	12.8	2.0	7.4	4.0	3.8	7.0	27.1	0.4	100.0
	빈도	419	4,050	1,092	2,012	314	1,152	621	598	1,100	4,251	58	15,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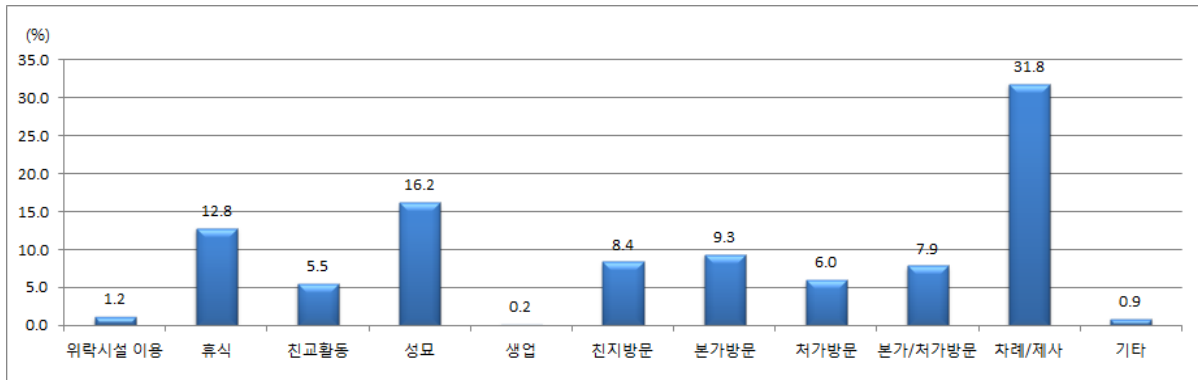
<그림 2-11>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복수응답)

-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복수응답)으로는 ‘차례/제사’가 31.8%로 가장 높고, ‘성묘’ (16.2%), ‘휴식’ (12.8%), ‘본가방문’ (9.3%) 등의 순임

<표 2-14>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복수응답)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위락 시설 이용	휴식	친교 활동	성묘	생업	친지 방문	본가 방문	처가 방문	본가/ 처가 방문	차례/ 제사	기타	합계
전체	비율	1.2	12.8	5.5	16.2	0.2	8.4	9.3	6.0	7.9	31.8	0.9	100.0
	빈도	58	635	273	805	10	416	462	298	391	1,581	45	4,974



<그림 2-12> 설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복수응답)

8)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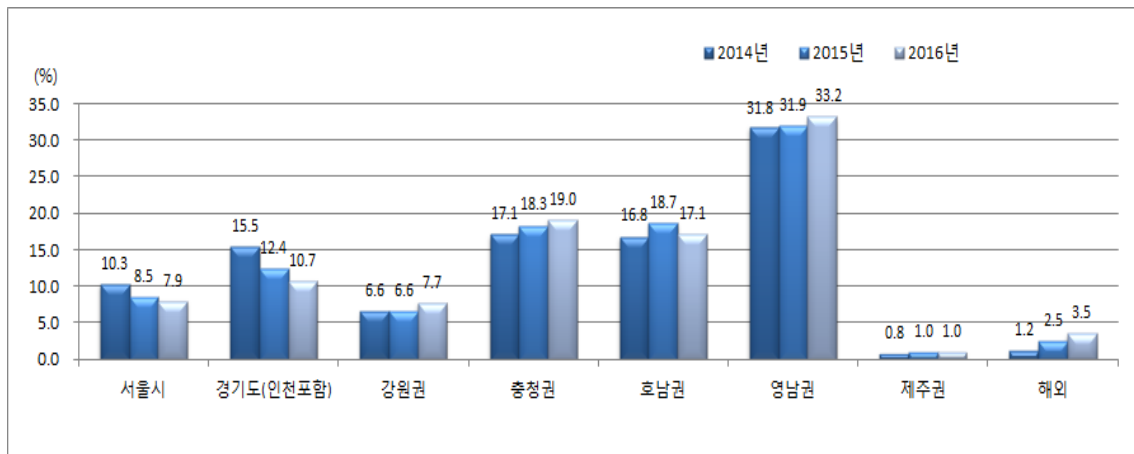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3.2%로 가장 높고, ‘충청권’ 19.0%, ‘호남권’ 17.1% 순임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인천 포함)’의 비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충청권’, ‘영남권’의 비율은 증가 추세임
- ‘해외’로의 귀성 또는 여행의 비율은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함

<표 2-15>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6년	비율	7.9	10.7	7.7	19.0	17.1	33.2	1.0	3.5	100.0
	빈도	168	228	165	405	364	708	22	74	2,134
2015년	비율	8.5	12.4	6.6	18.3	18.7	31.9	1.0	2.5	100.0
	빈도	177	256	137	380	388	661	20	52	2,071
2014년	비율	10.3	15.5	6.6	17.1	16.8	31.8	0.8	1.2	100.0
	빈도	205	310	131	341	335	634	15	24	1,995

3) 귀성 및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그림 2-13> 설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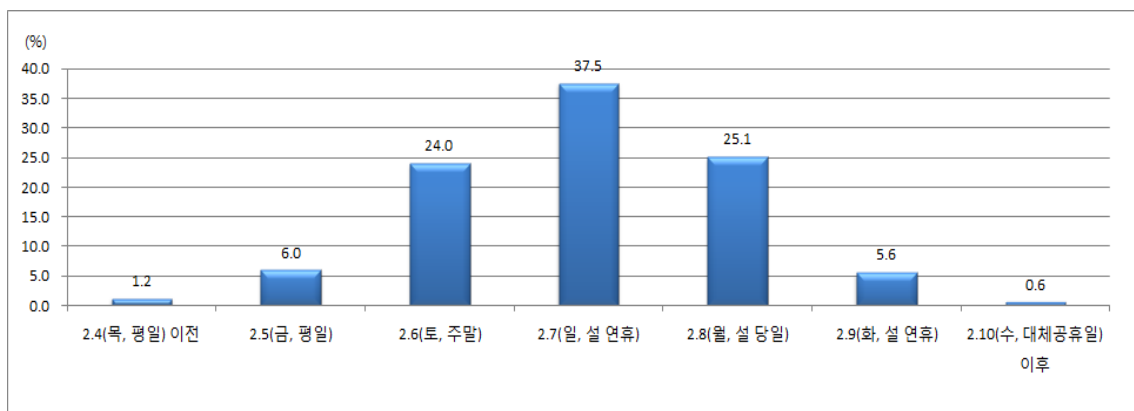
①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설 전날인 ‘2월 7일(일)’이 37.5%로 가장 높았고, 설 당일인 ‘2월 8일(월)’과 ‘2월 6일(토)’ 각각 25.1%, 24.0%, ‘2월 5일(금)(6.0%)’ 순임

<표 2-1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2.4(목, 평일) 이전	2.5(금, 평일)	2.6(토, 주말)	2.7(일, 설 연휴)	2.8(월, 설 당일)	2.9(화, 설 연휴)	2.10(수, 대체공휴일)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1.2	6.0	24.0	37.5	25.1	5.6	0.6	100.0
	빈도	22	110	437	683	457	104	11	1,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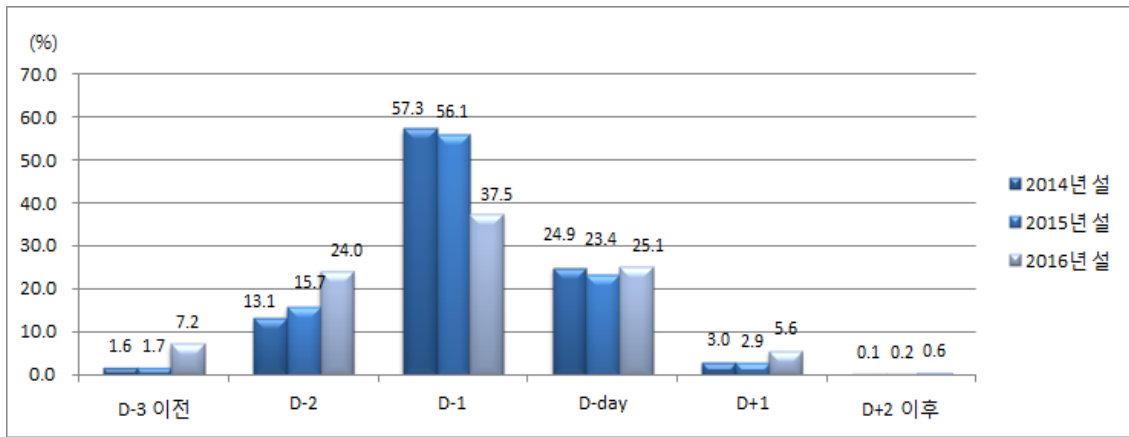
<그림 2-1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출발일자를 설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2에 출발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2-17>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D-3 이전	D-2	D-1	D-day	D+1	D+2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7.2	24.0	37.5	25.1	5.6	0.6	100.0
	빈도	132	437	683	457	104	11	1,824
2015년	비율	1.7	15.7	56.1	23.4	2.9	0.2	100.0
	빈도	30	274	980	408	51	3	1,746
2014년	비율	1.6	13.1	57.3	24.9	3.0	0.1	100.0
	빈도	27	224	977	424	51	2	1,705



<그림 2-15>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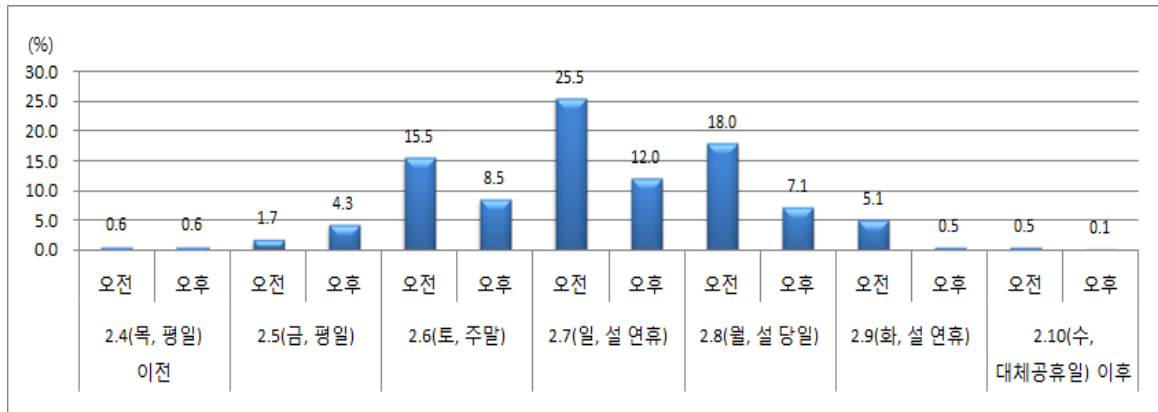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2월 7일(일, 설 연휴) 오전'이 25.5%로 가장 높고, '2월 8일(월, 설 당일) 오전' (18.0%), '2월 6일(토, 주말) 오전' (15.5%) 순임

<표 2-18>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2.4(목, 평일) 이전		2.5(금, 평일)		2.6(토, 주말)		2.7(일, 설 연휴)		2.8(월, 설 당일)		2.9(화, 설 연휴)		2.10(수, 대체공휴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6	0.6	1.7	4.3	15.5	8.5	25.5	12.0	18.0	7.1	5.1	0.5	0.5	0.1	100.0
빈도	11	11	31	79	282	155	465	218	328	129	93	11	9	2	1,824



<그림 2-16>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10)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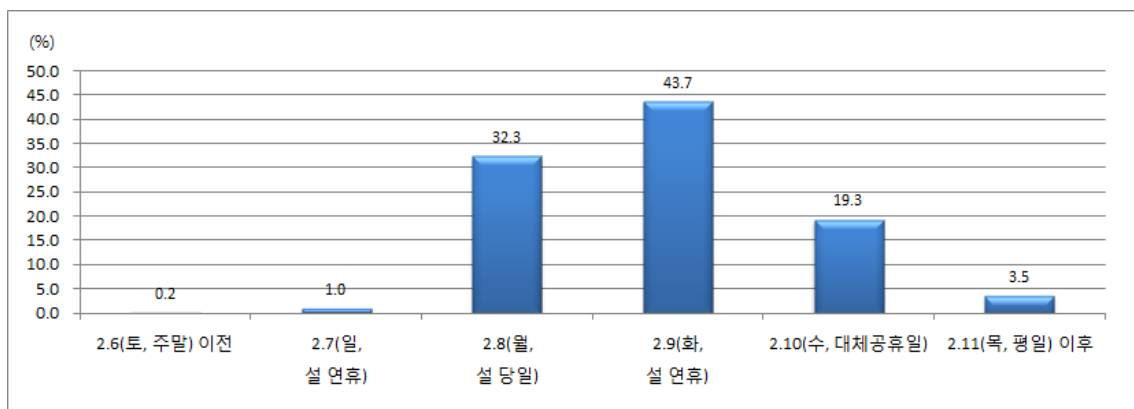
①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설 연휴 기간의 귀가 예정일자는 설 다음날인 ‘2월 9일(화, 설 연휴)’이 43.7%로 가장 높고, ‘2월 8일(월, 설 당일)’ (32.3%), ‘2월 10일(수, 대체공휴일)’ (19.3%) 순임

<표 2-19>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2.6(토, 주말) 이전	2.7(일, 설 연휴)	2.8(월, 설 당일)	2.9(화, 설 연휴)	2.10(수, 대체공휴일)	2.11(목, 평일)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0.2	1.0	32.3	43.7	19.3	3.5	100.0
	빈도	3	16	544	735	325	62	1,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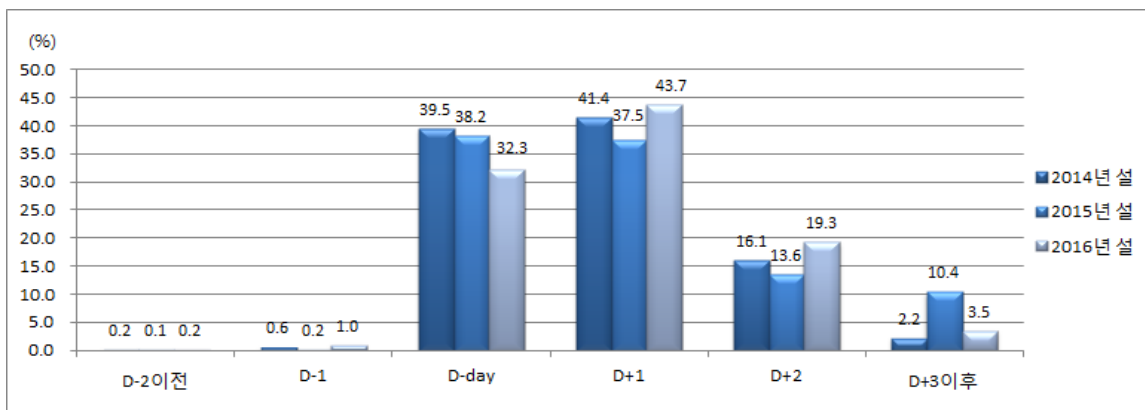
<그림 2-17> 설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설 당일(D-day)’에 귀가하는 가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임⁴⁾

<표 2-20>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D-2 이전	D-1	D-day	D+1	D+2	D+3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0.2	1.0	32.3	43.7	19.3	3.5	100.0
	빈도	3	16	544	735	325	62	1,685
2015년	비율	0.1	0.2	38.2	37.5	13.6	10.4	100.0
	빈도	2	4	640	629	228	173	1,676
2014년	비율	0.2	0.6	39.5	41.4	16.1	2.2	100.0
	빈도	2	9	639	671	262	36	1,619



<그림 2-18> 설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시점(연도별)

②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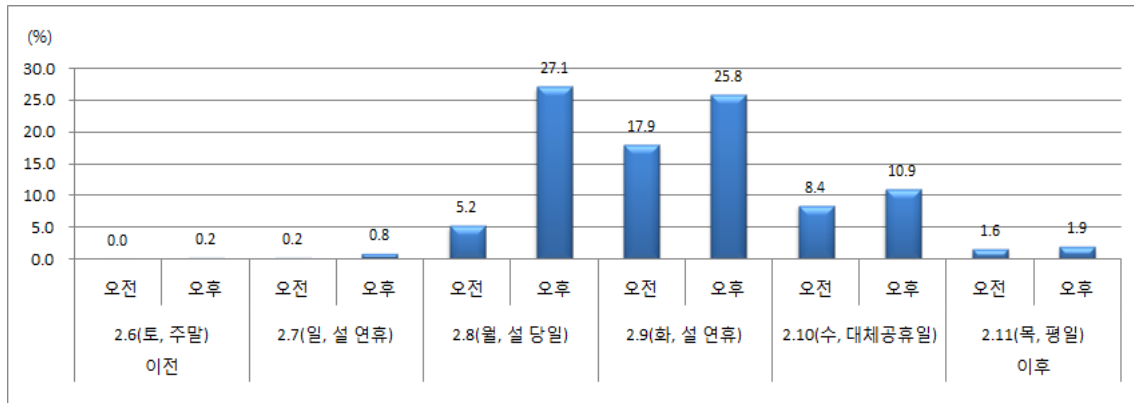
- 귀가(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2월 8일(월, 설 당일) 오후’가 27.1%로 가장 높고, ‘2월 9일(화, 설 연휴) 오후’ (25.8%), ‘2월 10일(수, 대체공휴일) 오후’ (10.9%) 순임

4) 2016년 설 연휴 기간은 2/7(일)~2/10(수, 대체공휴일)로 주말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임
 2015년 설 연휴 기간은 2/18(수)~2/20(금)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임
 2014년 설 연휴 기간은 1/30(목)~2/1(토)로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임

<표 2-21>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2.6(토, 주말) 이전		2.7(일, 설 연휴)		2.8(월, 설 당일)		2.9(화, 설 연휴)		2.10(수, 대체공휴일)		2.11(목, 평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0	0.2	0.2	0.8	5.2	27.1	17.9	25.8	8.4	10.9	1.6	1.9	100.0
빈도	-	3	3	13	88	456	301	434	141	184	29	33	1,685



<그림 2-19> 귀성(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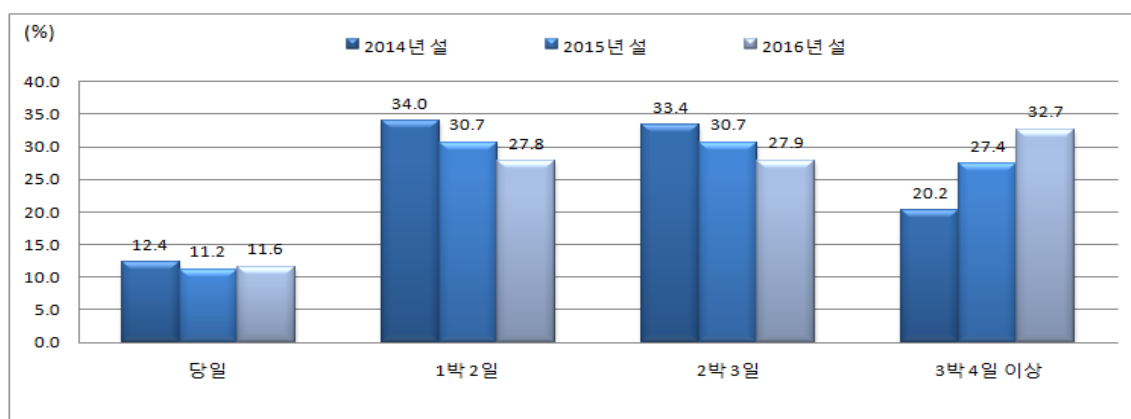
11) 체류일수

- 귀성-귀가일을 통해 체류일수를 분석한 결과 ‘3박 4일 이상’이 32.7%로 가장 높고, ‘1박 2일’과 ‘2박 3일’은 각각 27.8%, 27.9%로 비슷한 수준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박 2일,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박 4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2-22>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이상	합계
2016년	비율	11.6	27.8	27.9	32.7	100.0
	빈도	218	522	524	613	1,887
2015년	비율	11.2	30.7	30.7	27.4	100.0
	빈도	204	558	558	497	1,817
2014년	비율	12.4	34.0	33.4	20.2	100.0
	빈도	220	605	595	253	1,673



<그림 2-20> 설 연휴 체류일수(연도별)

12) 귀성-귀가일자 분석

- 귀성-귀가일자 분석에 따르면, 2월 7일(일, 설 연휴)에 출발하여 2월 9일(화, 설 연휴)에 귀가하는 비율이 1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월 7일(일, 설 연휴)에 출발하여 2월 8일(월, 설 당일) 귀가’ (14.1%), ‘2월 6일(토, 주말)에 출발하여 2월 9일(화, 설 연휴)에 귀가’ (13.2%) 하는 순임

<표 2-23> 2016년 설 연휴 귀성-귀가일자 분석

(단위: 비율(%))

[illegible]

라.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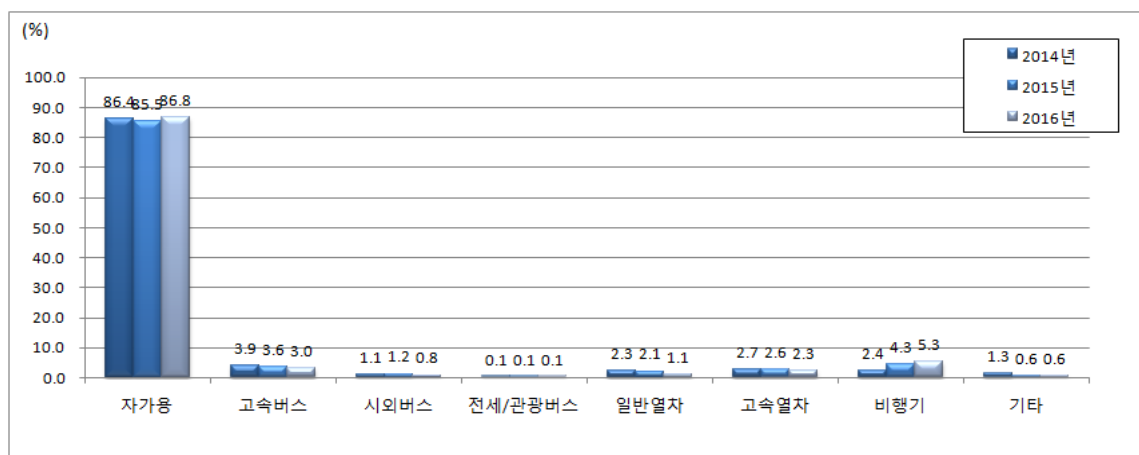
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86.8%(승용차 84.7%+승합차 2.1%)로 가장 높았고, ‘비행기’ (5.3%), ‘버스’(3.9%, 고속버스 3.0%+시외버스 0.8%+전세/관광버스 0.1%), ‘기차’(3.4%, 고속철도 2.3%+일반열차 1.1%)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 ‘비행기’의 비율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2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일반열차	고속열차	비행기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86.8	3.0	0.8	0.1	1.1	2.3	5.3	0.6	100.0
	빈도	1,854	65	18	2	24	49	113	12	2,137
2015년	비율	85.5	3.6	1.2	0.1	2.1	2.6	4.3	0.6	100.0
	빈도	1,768	74	24	3	43	53	88	14	2,067
2014년	비율	86.4	3.9	1.1	0.1	2.3	2.7	2.4	1.3	100.0
	빈도	1,706	77	22	1	45	54	47	23	1,975



<그림 2-21>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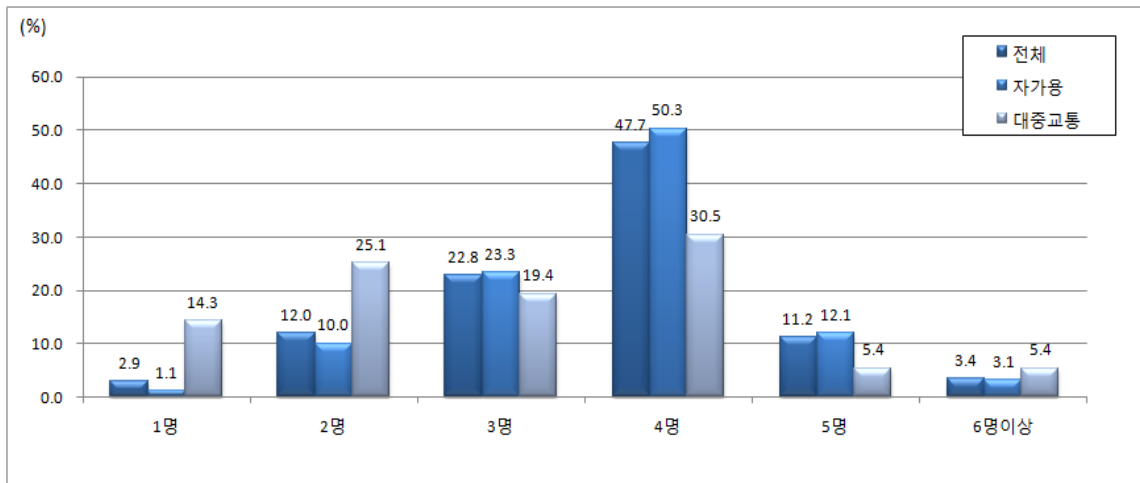
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중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47.7%로 가장 높고, ‘3명’ (22.8%), ‘2명’ (12.0%) 순임

<표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6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전체	비율	2.9	12.0	22.8	47.7	11.2	3.4	100.0
	빈도	61	254	481	1,007	236	72	2,111
자가용	비율	1.1	10.0	23.3	50.3	12.1	3.1	100.0
	빈도	21	184	427	922	221	57	1,832
대중교통	비율	14.3	25.1	19.4	30.5	5.4	5.4	100.0
	빈도	40	70	54	85	15	15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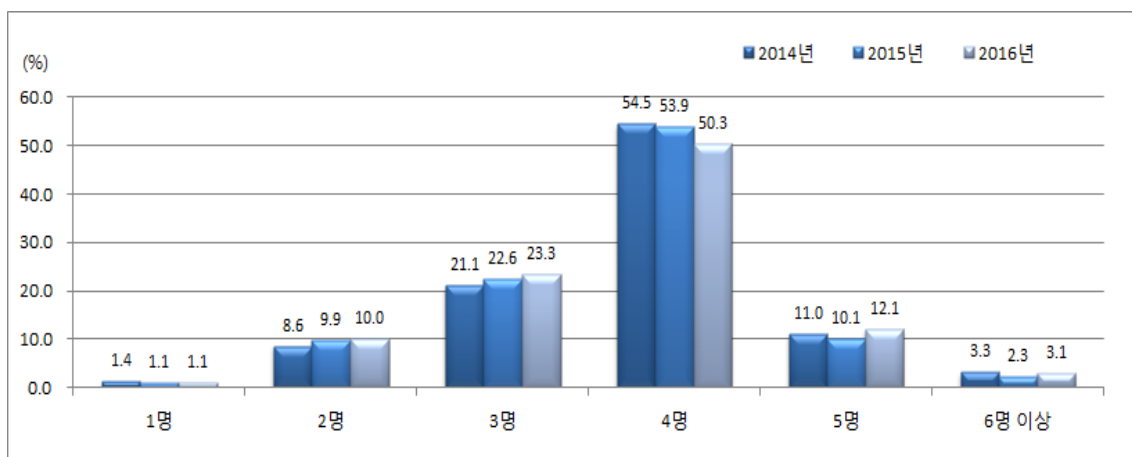
<그림 2-22>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2016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가구의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행인이 ‘3명’인 비율은 증가 추세인 반면, ‘4명’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 2-26>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6년	비율	1.1	10.0	23.3	50.3	12.1	3.1	100.0
	빈도	21	184	427	922	221	57	1,832
2015년	비율	1.1	9.9	22.6	53.9	10.1	2.3	100.0
	빈도	20	173	394	941	176	41	1,745
2014년	비율	1.4	8.6	21.1	54.5	11.0	3.3	100.0
	빈도	24	145	356	917	186	56	1,684



<그림 2-23>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시(연도별)

3) 귀성 및 여행시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

-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있는 가구 중 83.8%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귀성 및 여행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1인 가구 제외)
-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 성인자녀’가 함께 가는 경우가 37.1%로 가장 높고, ‘부모(부부)’ (29.9%), ‘부모와 미성년 자녀’ (12.8%) 순이며, 가족구성원 중 1인이 귀성 및 여행하는 경우가 9.3%로 분석됨

<표 2-27> 귀성 및 여행시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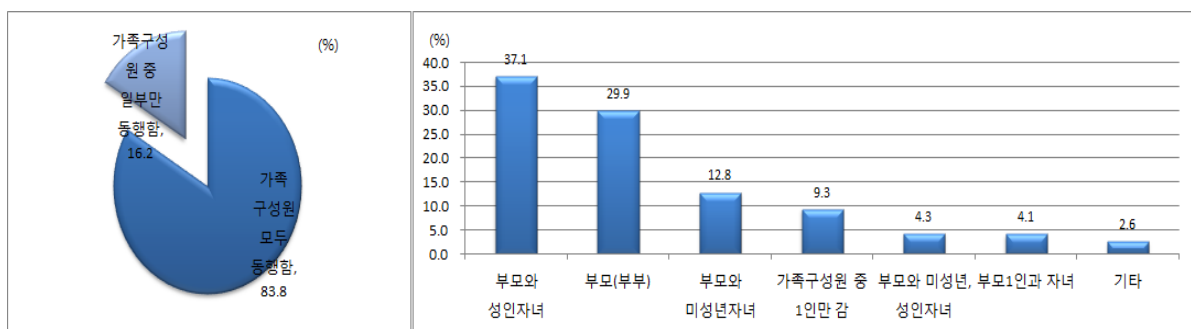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가족구성원 모두 동행함	가족구성원 중 일부만 동행함	합계
비율	83.8	16.2	100.0
빈도	1,788	345	2,133

<표 2-28>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 구성원 유형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부모와 성인자녀	부모(부부)	부모와 미성년자녀	가족구성원 중 1인만 감	부모와 미성년, 성인자녀	부모1인과 자녀	기타	합계
비율	37.1	29.9	12.8	9.3	4.3	4.1	2.6	100.0
빈도	128	103	44	32	15	14	9	345



<그림 2-24> 가족구성원 동행 여부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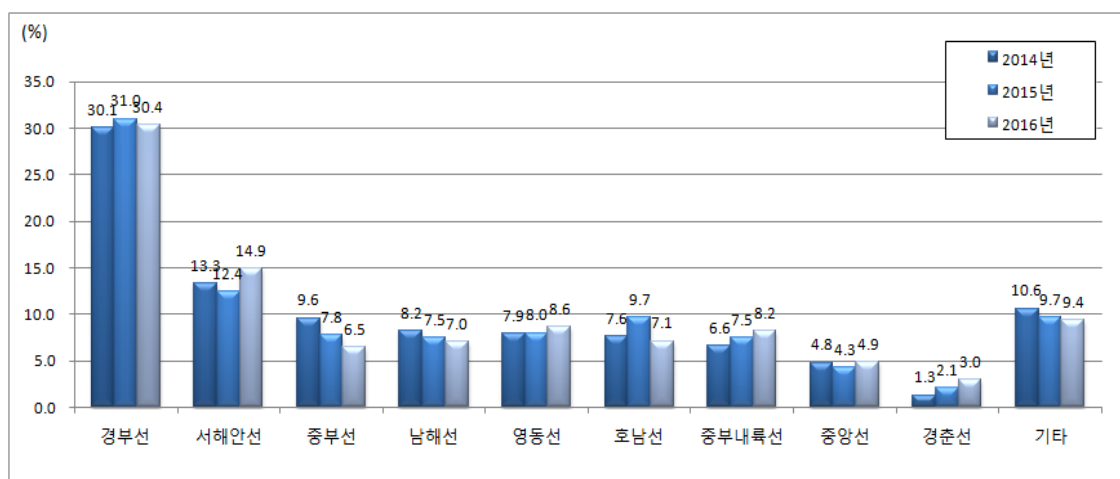
4)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6년) 설 귀성 또는 여행시 가장 오랫동안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안선’ (14.9%), ‘영동선’ (8.6%) 등의 순임
- 기타로는 ‘무안-광주선’ (2.5%), ‘대구-부산선’ (1.9%), ‘익산-포항선’ (1.1%) 등이 있음
- 연도별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부선’, ‘남해선’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중부내륙선’과 ‘영동선’, ‘경춘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표 2-29>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경부선	서해안 선	중부선	남해선	영동선	호남선 (천안- 논산선)	중부 내륙선	중앙선	경춘선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0.4	14.9	6.5	7.0	8.6	7.1	8.2	4.9	3.0	9.4	100.0
	빈도	423	208	91	98	120	99	114	68	42	129	1,392
2015년	비율	31.0	12.4	7.8	7.5	8.0	9.7	7.5	4.3	2.1	9.7	100.0
	빈도	449	179	113	109	116	141	109	62	31	140	1,449
2014년	비율	30.1	13.3	9.6	8.2	7.9	7.6	6.6	4.8	1.3	10.6	100.0
	빈도	416	184	133	113	109	105	91	66	18	146	1,381



<그림 2-25> 설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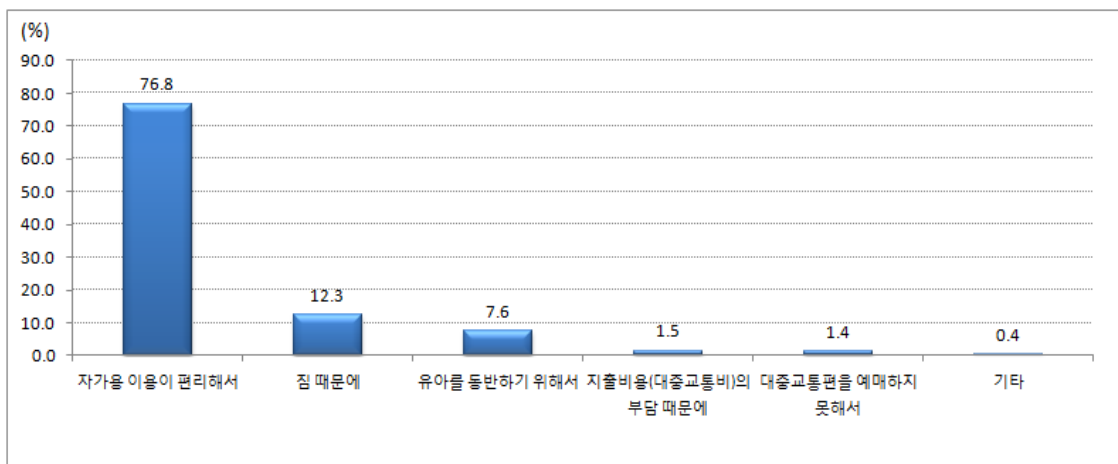
5) 자가용 이용 이유

- 자가용 이용 이유로는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가 76.8%로 가장 높고, ‘집 때문에’ (12.3%),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7.6%) 등의 순임

<표 2-30> 자가용 이용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집 때문에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기타	합계
전체	비율	76.8	12.3	7.6	1.5	1.4	0.4	100.0
	빈도	1,419	227	141	27	26	8	1,848



<그림 2-26> 자가용 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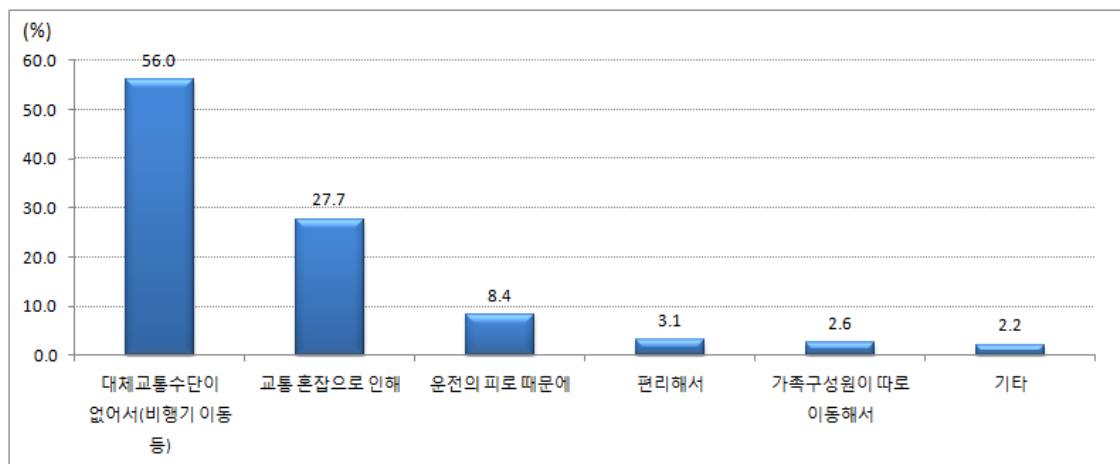
6)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 (56.0%)이며, 다음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해’ (27.7%), ‘운전의 피로 때문에’ (8.4%) 등의 순임

<표 2-31>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교통 혼잡으로 인해	운전의 피로 때문에	편리해서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기타	합계
전체	비율	56.0	27.7	8.4	3.1	2.6	2.2	100.0
	빈도	107	53	16	6	5	4	191



<그림 2-27>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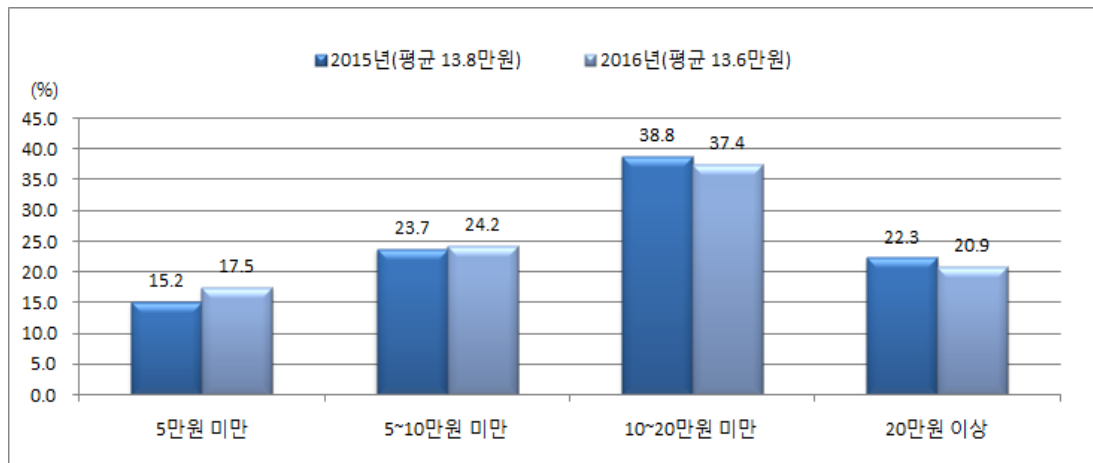
마. 설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6년) 설 연휴 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3만 6천원으로 나타나, 작년(2015년) 13만 8천원 대비 감소(-2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2-32>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평균(만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올해 (2016년)	비율	17.5	24.2	37.4	20.9	100	13.6
	빈도	301	416	644	359	1,720	
작년 (2015년)	비율	15.2	23.7	38.8	22.3	100.0	13.8
	빈도	237	371	607	348	1,563	



<그림 2-28> 설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바.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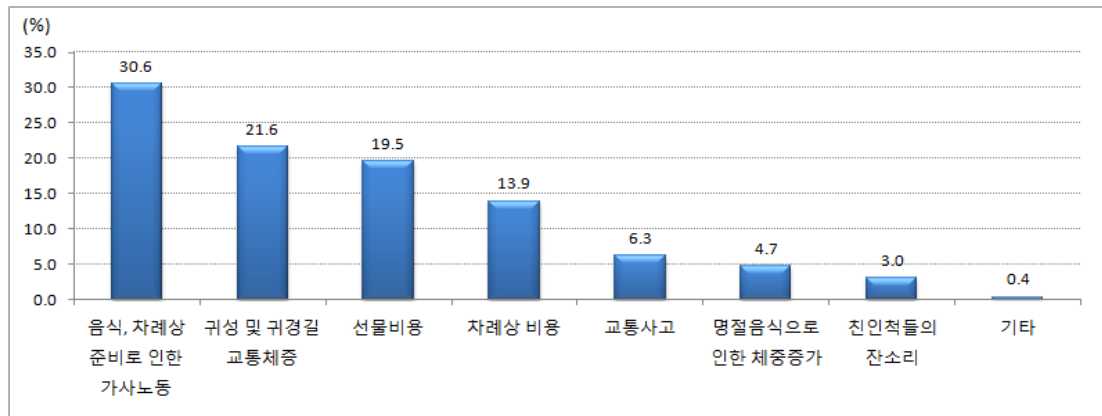
1)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0.6%로 가장 높고,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21.6%), ‘선물비용’ (19.5%), ‘차례상 비용’ (13.9%) 등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르면 남성은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이 30.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3>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선물 비용	차례상 비용	교통 사고	명절음식 으로 인한 체증증가	친인척 들의 잔소리	기타	합계
성별	남	비율	12.6	30.3	23.8	14.2	9.7	4.9	4.0	0.5	100.0
		빈도	236	569	446	267	182	91	75	9	1,875
	여	비율	38.4	17.8	17.7	13.8	4.8	4.7	2.6	0.2	100.0
		빈도	1,652	765	761	593	207	202	113	11	4,304
전체	비율		30.6	21.6	19.5	13.9	6.3	4.7	3.0	0.4	100.0
	빈도		1,888	1,334	1,207	860	389	293	188	20	6,179



<그림 2-29> 설을 맞아 염려되는 내용(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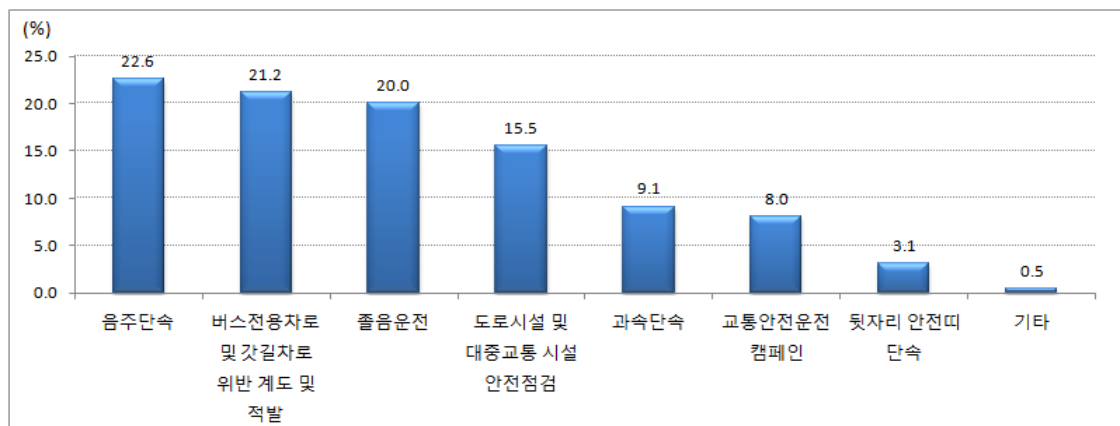
2)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이번 설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으로는 ‘음주단속’ (22.6%)이며,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21.2%), ‘졸음운전’ (20.0%),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15.5%) 등의 순임

<표 2-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주단속	버스전용 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졸음운전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과속단속	교통안전 운전 캠페인	뒷자리 안전띠 단속	기타	합계
전체	비율	22.6	21.2	20.0	15.5	9.1	8.0	3.1	0.5	100.0
	빈도	1,839	1,726	1,631	1,267	744	653	251	38	8,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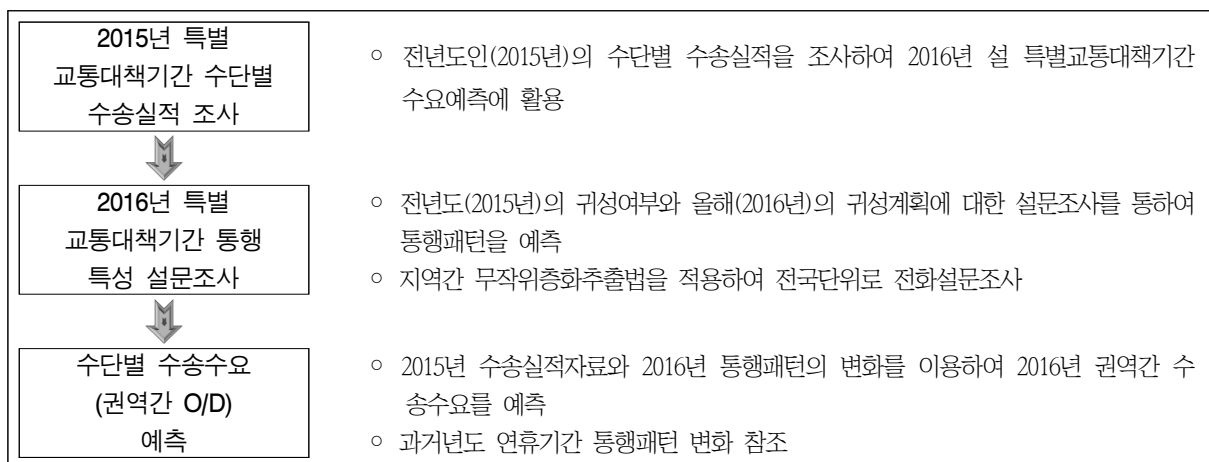


<그림 2-30>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6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설 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설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6년 설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설 연휴를 중심으로 한 6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6일간 통행은 전년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 성묘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통행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그림 2-31>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645만명, 1일 평균 608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592만명/일)에 비해 2.7% 증가하고, 평시(359만명/일)보다 69.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 연휴 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4.5%,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0.8%, 철도가 3.6%, 항공 0.7%, 해운 0.4%로 전망됨

<표 2-35>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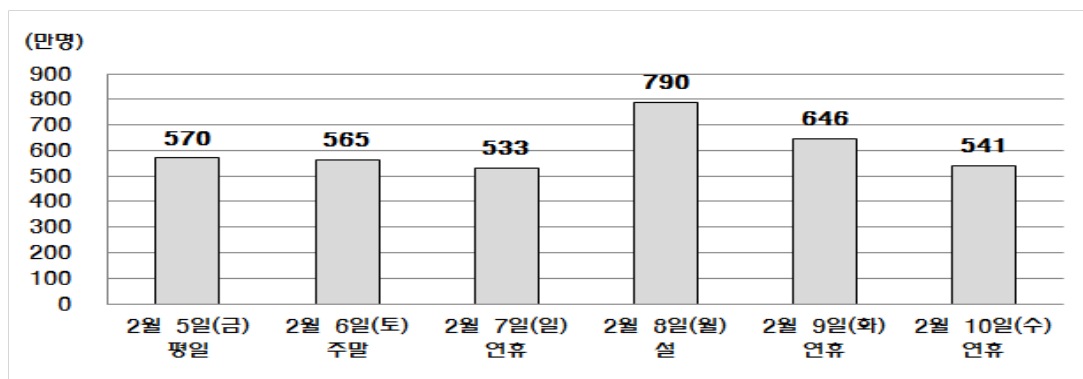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설 연휴 기간('16.2.5~2.10)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도 로	승용차		2,553	5,134	30,803	84.5	201.1
	버 스	고속버스	38	52	313	0.9	136.8
		시외·전세	757	600	3,598	9.9	79.3
철도			179	221	1,326	3.6	123.5
항공			39	42	251	0.7	107.7
해운			22	26	155	0.4	118.2
합계			3,588	6,075	36,446	100.0	169.3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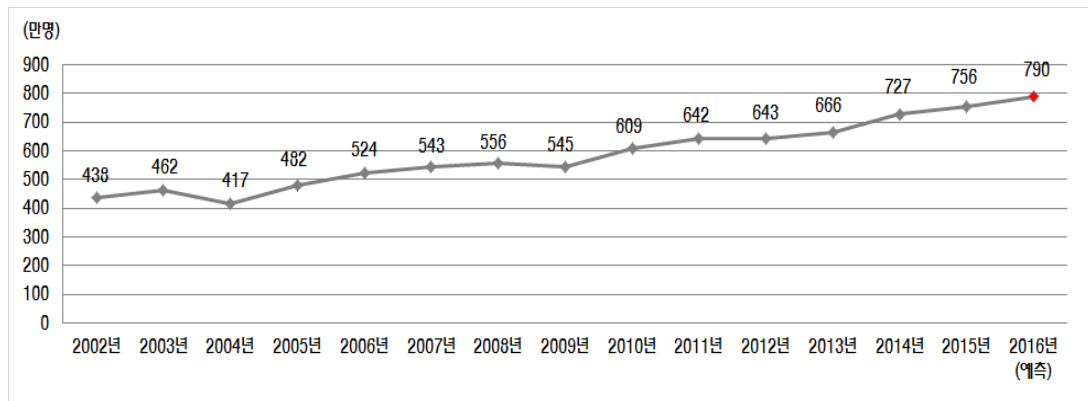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설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2월 8일(설 당일) 790만명으로 작년 대비(756만명, 2월 19일 설 당일) 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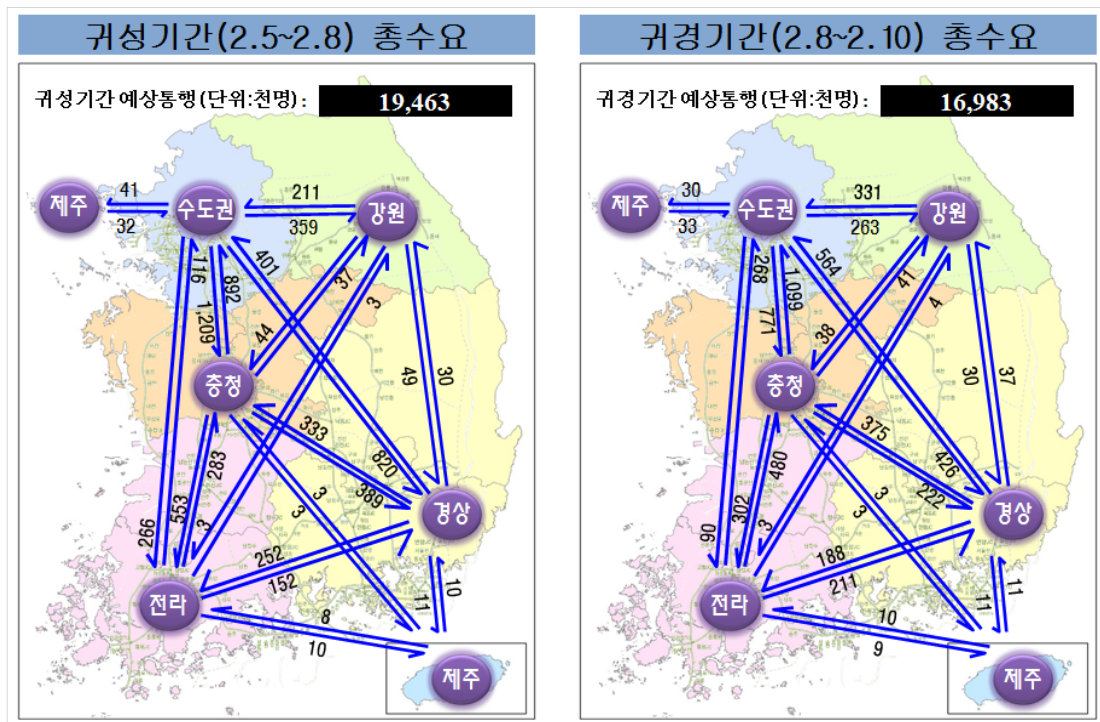


<그림 2-32> 2016년 설 연휴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2-33> 연도별 설 연휴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설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946만명, 귀경시 1,698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2.7%, 귀경시 40.7%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2-34> 2016년 설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특별교통대책용 교통수요예측결과와 특별교통대책기간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 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 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5~2.10, 6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487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49천명으로 102.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6% 과대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해운의 오차율이 13.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88.9% 증가

<표 2-36>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적					
			1일 평균 (C)	기간 전 체	1일 평균 (D)	기간 전 체				
승용차	5,030	2,553	5,134	30,803	5,008	30,045	102.5	▲2.5	99.6	196.2
고속버스	72	38	64	384	68	409	94.1	▼5.9	94.4	178.9
철도	217	179	221	1,326	212	1,274	104.2	▲4.2	97.7	118.4
항공	38	39	42	251	39	231	107.7	▲7.7	102.6	100.0
해운	25	22	26	155	23	136	113.0	▲13.0	92.0	104.5
전체	5,382	2,831	5,487	32,919	5,349	32,095	102.6	▲2.6	99.4	188.9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3장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하계휴가철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3장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6년 6월 9일(목)~2016년 6월 16일(목)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12월~2016년 5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17일간: 2015.07.24~08.09)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하계휴가철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4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5년 하계휴가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승용차, 고속버스를 제외하고 2014년 동기간보다 증가함
 - 특히 해운은 일평균 25,858명(51.4%) 증가로 각 수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승용차는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표 3- 1> 2014, 2015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 (17일) (A)	2015년 (17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대	4,203,231	3,094,672	71,454,929	52,609,425	-1,108,559	-18,845,504	-26.4
고속버스	인	141,294	140,745	2,401,996	2,392,659	-549	-9,337	-0.4
시외/전세	인	1,008,125	1,090,585	17,138,124	18,539,939	82,460	1,401,815	8.2
철도	인	411,624	418,511	6,997,611	7,114,691	6,887	117,080	1.7
항공	인	73,680	87,993	1,252,564	1,495,875	14,313	243,311	19.4
해운	인	50,322	76,180	855,468	1,295,064	25,858	439,596	51.4

제2절 하계휴가철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7.22(금)~8.7(일): 17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6월 22일(수)~26일(일)(5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5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1\%$)(유선전화 8,600세대, 인터넷전화 900세대)
 - 유효표본수 : 2,017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8\%$)

나. 조사내용

- 올해(2016년) 휴가 관련
 - 올해 하계휴가 여행계획, (이미 다녀왔을 경우) 하계휴가 시기, 가족구성원(가족구성원수, 모든 가족구성원의 여행여부 등), 자가용 보유여부,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하계휴가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및 해당시기에 여행을 계획한 이유, 하계휴가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일수, 하계휴가 여행지 및 여행지 유형, 주 교통수단,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자가용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하계휴가 여행 동행인(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고속도로 이용여부, 주 이용 고속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주요도로 혼잡정도 예상,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하계휴가 중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하계휴가 여행 총 예상 휴가 비용,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작년(2015년) 휴가 관련
 - 작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작년 하계휴가 여행 시기
- 개인 속성 : 세대주 연령, 직업

다. 조사표본 선정

- 하계휴가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6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시도 대상 세대수를 기준, 표본율 0.04%로 총 9,500세대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3- 2>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5년 하계					2016년 하계				
	전체 세대수 ¹⁾	표본		유효표본		전체 세대수 ²⁾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99,356	1,833	20.1	368	18.2	4,193,473	1,884	19.8	378	18.7
부산광역시	1,428,115	623	6.8	136	6.7	1,444,666	650	6.8	127	6.3
대구광역시	976,576	426	4.7	99	4.9	986,568	444	4.7	93	4.6
인천광역시	1,143,404	499	5.5	124	6.1	1,161,005	522	5.5	104	5.2
광주광역시	577,428	252	2.8	64	3.2	583,621	264	2.8	48	2.4
대전광역시	594,811	260	2.9	53	2.6	600,754	271	2.9	69	3.4
울산광역시	446,572	195	2.1	69	3.4	453,640	203	2.1	51	2.5
경 기 도	4,821,745	2,105	23.1	463	22.9	4,928,079	2,215	23.3	461	22.9
세 종 시	71,570	32	0.4	10	0.5	88,256	40	0.4	6	0.3
강 원 도	678,390	296	3.3	43	2.1	687,353	309	3.3	52	2.6
충청북도	662,079	289	3.2	67	3.3	674,425	303	3.2	73	3.6
충청남도	877,228	383	4.2	85	4.2	892,166	401	4.2	94	4.7
전라북도	777,764	340	3.7	100	5.0	785,838	352	3.7	80	4.0
전라남도	826,124	361	4.0	83	4.1	837,396	377	4.0	80	4.0
경상북도	1,158,048	506	5.6	113	5.6	1,175,135	528	5.6	129	6.4
경상남도	1,354,492	591	6.5	127	6.3	1,376,045	619	6.5	151	7.5
제 주 도	250,572	109	1.2	14	0.7	261,897	118	1.2	21	1.0
전국	20,844,274	9,100	100.0	2,018	100.0	21,130,317	9,500	100.0	2,017	100.0

주: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5)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6. 5)

3) 비례할당 적용시 세종시(0.3%)가 23표본으로 추출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30표본으로 유의할당하여 진행함

- 지역별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표본수는 다음과 같음

<표 3- 3>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전체 세대수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93,473	1,706	19.8	337	18.5	178	19.8	41	21.2
부산광역시	1,444,666	588	6.8	116	6.4	62	6.9	11	5.7
대구광역시	986,568	402	4.7	83	4.6	42	4.7	10	5.2
인천광역시	1,161,005	473	5.5	96	5.3	49	5.4	8	4.1
광주광역시	583,621	239	2.8	44	2.4	25	2.8	4	2.1
대전광역시	600,754	245	2.8	65	3.6	26	2.9	4	2.1
울산광역시	453,640	184	2.1	48	2.6	19	2.1	3	1.6
경 기 도	4,928,079	2,005	23.3	414	22.7	210	23.3	47	24.4
세 종 시	88,256	36	0.4	5	0.3	4	0.4	1	0.5
강 원 도	687,353	280	3.3	48	2.6	29	3.2	4	2.1
충청북도	674,425	274	3.2	67	3.7	29	3.2	6	3.1
충청남도	892,166	363	4.2	86	4.7	38	4.2	8	4.1
전라북도	785,838	319	3.7	69	3.8	33	3.7	11	5.7
전라남도	837,396	341	4.0	69	3.8	36	4.0	11	5.7
경상북도	1,175,135	478	5.6	115	6.3	50	5.6	14	7.3
경상남도	1,376,045	560	6.5	143	7.8	59	6.6	8	4.1
제 주 도	261,897	107	1.2	19	1.0	11	1.2	2	1.0
전국	21,130,317	8,600	100.0	1,824	100.0	900	100.0	193	100.0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6. 5)

라. 조사표본 추출

- 하계휴가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 리스트, 즉, 2016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n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중 해당 조사지역을 선택하여 표본수를 입력하면 시·군·구·동 단위의 실제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리스트가 추출되고 이를 무작위로 조사 진행함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여행여부 및 하계휴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
 - 전년대비 간다(22.2%→21.2%)는 비율이 줄어들고, 최근 3년간 간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여행비율의 감소는 ‘생업(사업)상의 이유’ (31.4%)와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23.8%)으로 분석됨
- 하계휴가 여행 시기
 - 하계휴가 여행 시기로는 ‘7월 30일(토)~8월 5일(금)’이 46.0%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38.2%→46.0%)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날짜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 (45.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사람(52.3%)들의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의 비율이 그 외 기간(34.6%)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월 5주~8월 1주에 계획을 세운 이유)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52.3%),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 집 방학에 맞춰’ (28.1%), ‘가장 더운 시기여서’ (10.2%)가 전체 및 그 외 기간 대비 높게 나타남

○ 하계휴가 여행지역

- ‘동해안권’으로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남해안권’, ‘서해안권’ 순임
- 최근 ‘해외’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강원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하계휴가 여행지역 유형 및 체류일수

- 여행지 유형은 ‘바다나 계곡’ (70.7%), 체류일수는 ‘2박 3일’ (43.2%)이 가장 높음
- (여행지 유형) ‘바다나 계곡’, ‘호텔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이 감소
- (체류일수) ‘당일’, ‘1박 2일’ 및 ‘2박 3일’이 감소한 반면, ‘3박 4일’과 해외여행 비율 증가에 따라 ‘4일 이상’이 증가함

○ 주 이용 교통수단

- 해외로의 여행 증가로 최근 3년간 비행기 이용률(14.4%→17.0%→20.3%)이 증가함
-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
- 자가용(승용차+승합차) 이용자는 자가용이 편리해서 이용하는 비율(73.6%)이 높았으며,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81.4%)임

○ 고속도로 이용률 및 주 이용 고속도로

- 고속도로 이용률은 감소(86.8%→84.3%)했으며, 전년대비 영동선, 경부선 등의 이용률이 감소한 반면, 서해안선, 중부선, 중앙선 등의 이용률이 증가함

○ 동행인 유형

- 가족/친지와 함께 가는 비율이 88.9%, 친구 5.3%, 가족/친지+친구가 5.0% 순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의 경우 가족/친지 여행이 90.8%, 친구와 여행이 4.2%인 반면, 해외여행의 경우 가족/친지 76.1%, 친구 13.4%로 차이를 보임

○ 예상소요시간

- 하계휴가 여행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4.8%로 가장 높음

○ 휴가비용

-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작년 64.0만원(실지출 비용)에서 65.8만원으로 약 2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해외여행은 430.4만원에서 385.9만원으로 44.5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100만원 이상’이 24.8%로 가장 높았고, ‘50~60만원 이상’ 24.7%, ‘30~40만원’ 15.5%의 순임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18.7%,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주요 도로의 혼잡 예상 정도로는 혼잡이 53.4%, 보통 24.3%, 원활 22.3% 순으로 나타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 하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67.2%(이용 41.0%+보통 26.2%)가 평소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며, 수신처로는 출발 전, 이동 중 모두 ‘휴대폰, 스마트폰’이 각각 65.3%,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출발 전에는 ‘포털사이트’가 42.1%로 가장 높고,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40.1%로 높게 나타남
-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평소 다니던 길이어서’가 56.0%로 가장 높았고, ‘교통정체가 없어서’ (24.3%), ‘교통정보를 신뢰하지 않아서’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처방안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한 결과, ‘예상되는 상습 정체구간의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출발’ 하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음
- 최근 가족여행 시기
 - 최근 가족여행 시기에 따르면 ‘6월 중’이 24.7%로 가장 높고, ‘1년 이내’ 23.2%, ‘6개월 이내’ 18.6% 등의 순임

나.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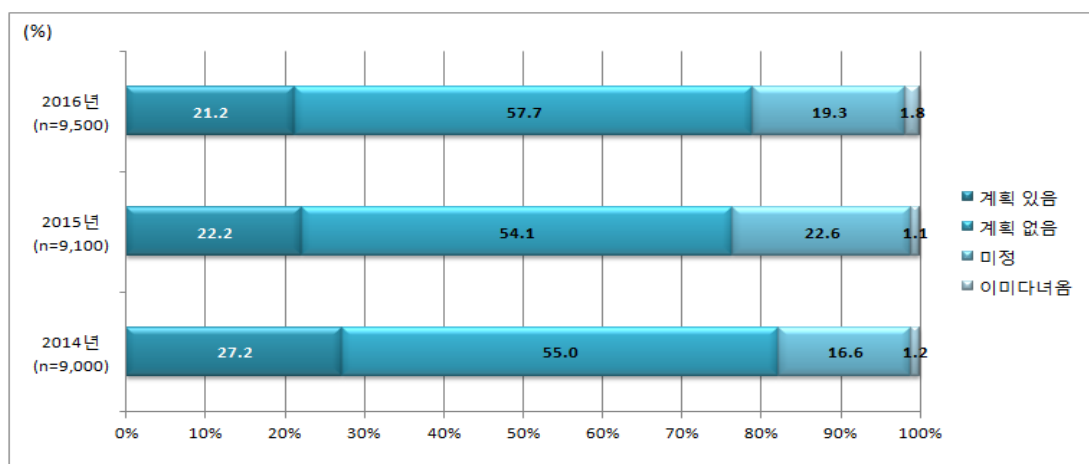
1) 올해(2016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올해 하계휴가시 여행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가구의 21.2%는 ‘하계휴가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자는 1.8%임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하계휴가 기간 중 여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7.2%, 2015년 22.2%, 2016년 21.2%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4>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여행 감	여행 안감	미정	이미 다녀옴	합계
2016년	비율	21.2	57.7	19.3	1.8	100.0
	빈도	2,017	5,485	1,829	169	9,500
2015년	비율	22.2	54.1	22.6	1.1	100.0
	빈도	2,018	4,926	2,055	101	9,100
2014년	비율	27.2	55.1	16.6	1.2	100.0
	빈도	2,447	4,955	1,492	106	9,000



<그림 3- 1>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연도별)

7) 2013년까지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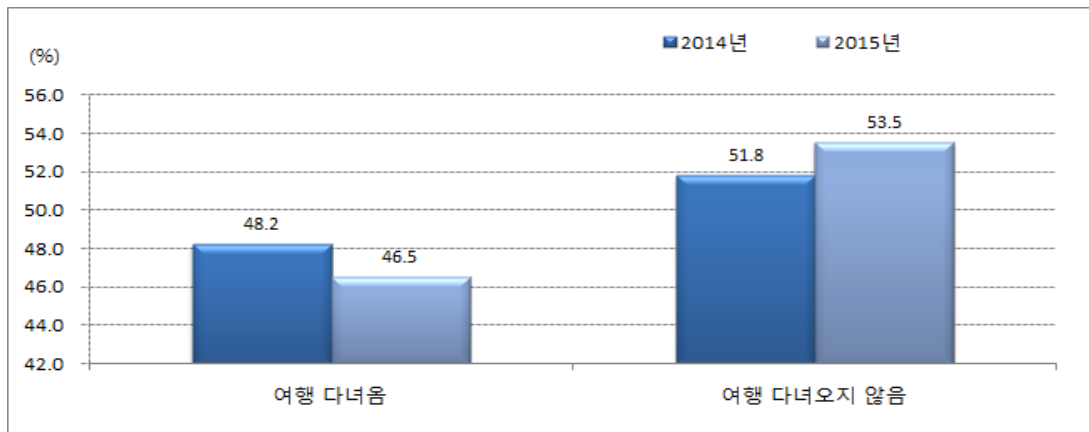
2)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n=9,500) 중 46.5%가 작년(2015년)에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 올해 하계휴가 사전조사 대상자 중 출발지역이 8개시도인 응답자의 46.9%가 작년에 하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함

<표 3- 5>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여행 다녀옴	여행 다녀오지 않음	합계
2015년	전국	비율	46.5	53.5	100.0
		빈도	4,367	5,025	9,392
	8개시도	비율	46.9	53.1	100.0
		빈도	2,987	3,386	6,373
2014년	전국	비율	48.2	51.8	100.0
		빈도	4,328	4,653	8,981
	8개시도	비율	49.0	51.0	100.0
		빈도	2,993	3,113	6,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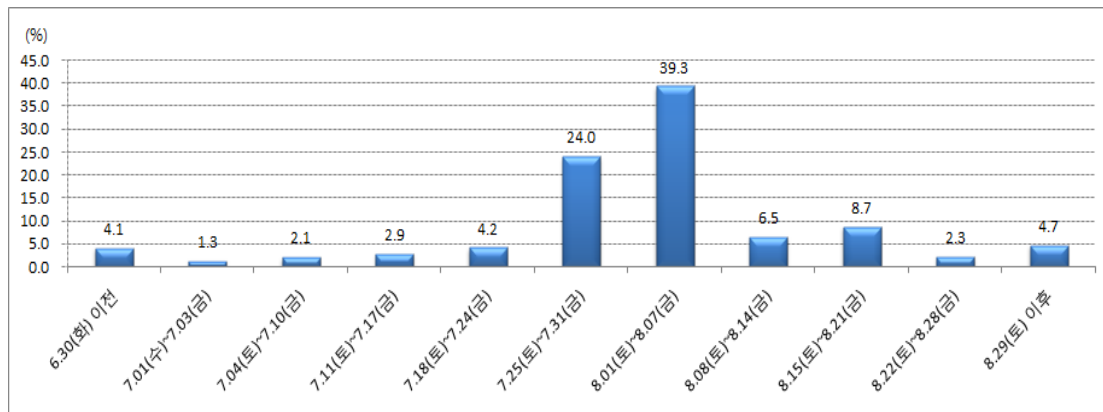
<그림 3- 2>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 여부

- 작년(2015년)에 여행을 다녀온 응답자의 여행시기를 살펴보면, ‘8.1(토)~8.7(금)’이 39.3%로 가장 높고, ‘7.25(토)~7.31(금)’이 24.0%, ‘8.15(토)~8.21(금)’ 8.7% 순임

<표 3- 6>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6.30(화) 이전	7.01(수)~ 7.03(금)	7.04(토)~ 7.10(금)	7.11(토)~ 7.17(금)	7.18(토)~ 7.24(금)	7.25(토)~ 7.31(금)	8.01(토)~ 8.07(금)	8.08(토)~ 8.14(금)	8.15(토)~ 8.21(금)	8.22(토)~ 8.28(금)	8.29(토) 이후	합계
비율	4.1	1.3	2.1	2.9	4.2	24.0	39.3	6.5	8.7	2.3	4.7	100.0
빈도	164	52	83	118	169	971	1,588	264	353	91	189	4,042



<그림 3- 3> 작년(2015년) 하계휴가시 여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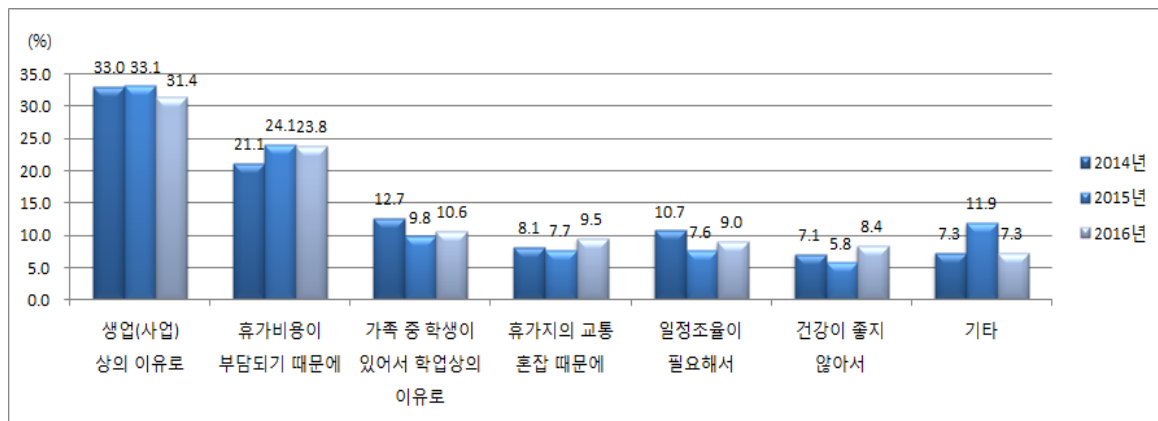
3)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

- 하계휴가 여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생업(사업)상의 이유로’가 3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휴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23.8%)’,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10.6%)’ 등의 순임
- 기타 이유로는 ‘귀찮아서’ (1.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 ‘더워서’, ‘집안사정 때문에’, ‘가기 싫어서’ (각각 0.7%) 등임
-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는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함
- 8개시도 대비 전국의 경우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여행을 가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휴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의 비율은 낮음

<표 3- 7>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합계
2016년	전국	비율	31.4	23.8	10.6	9.5	9.0	8.4	7.3	100.0
		빈도	1,676	1,271	566	505	479	446	394	5,337
	8개시도	비율	30.6	24.4	10.6	10.4	9.2	7.9	6.8	100.0
		빈도	1,125	897	389	384	338	292	251	3,676
2015년	전국	비율	33.1	24.1	9.8	7.7	7.6	5.8	11.9	100.0
		빈도	1,556	1,135	463	360	356	273	561	4,704
	8개시도	비율	31.8	24.2	10.2	8.3	7.6	6.0	12.0	100.0
		빈도	1,004	766	322	261	240	189	380	3,162
2014년	전국	비율	33.0	21.1	12.7	8.1	10.7	7.1	7.3	100.0
		빈도	1,537	983	590	377	499	331	342	4,659
	8개시도	비율	31.4	21.8	13.6	8.7	10.3	7.3	6.8	100.0
		빈도	989	687	428	274	323	231	215.0	3,147



<그림 3- 4> 하계휴가시 여행 안감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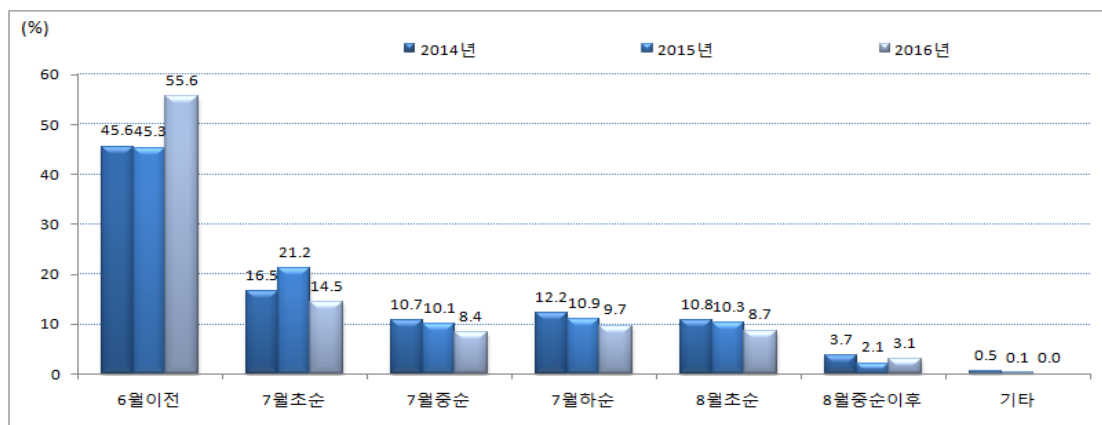
다.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하계휴가 여행계획있음 응답자)

- 조사 시점에서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했다고 응답한 경우,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운 시점 또는 세우는 시점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55.6%는 ‘6월 이전’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7월 초순’ 시점에 14.5%가 하계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작년(2015년) 대비 ‘6월 이전’에 계획을 세운다는 응답이 증가함

<표 3- 8>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6월 이전	7월 초순	7월 중순	7월 하순	8월 초순	8월 중순 이후	기타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55.6	14.5	8.4	9.7	8.7	3.1	-	100.0
		빈도	1,083	282	164	189	170	60	-	1,948
	8개시도	비율	57.1	13.2	7.8	9.9	8.5	3.3	-	100.0
		빈도	735	170	101	128	110	43	-	1,287
2015년	전체	비율	45.3	21.2	10.1	10.9	10.3	2.1	0.1	100.0
		빈도	888	416	197	214	201	42	1	1,959
	8개시도	비율	46.2	22.3	9.3	10.6	9.4	2.1	0.1	100.0
		빈도	620	299	125	142	126	28	1	1,341
2014년	전체	비율	45.6	16.5	10.7	12.2	10.8	3.7	0.5	100.0
		빈도	1,072	387	251	287	255	88	11	2,351
	8개시도	비율	47.4	15.3	10.2	12.2	10.6	4.0	0.3	100.0
		빈도	765	247	164	197	171	65	5	1,614



<그림 3- 5> 하계휴가 여행계획을 세우는 시점 - 계획있음(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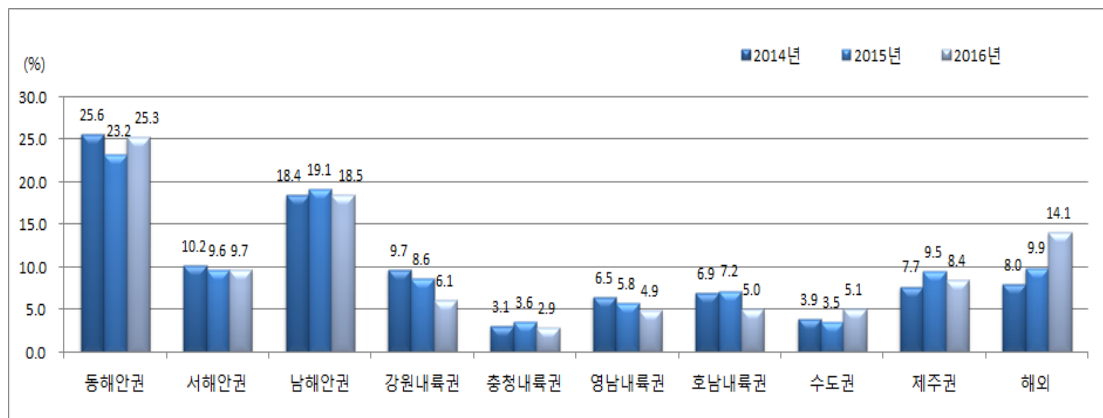
라. 하계휴가 여행지역

- 하계휴가시 여행 예정 지역을 분석한 결과, ‘동해안권’으로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25.3%로 가장 많고, ‘남해안권(18.5%)’, ‘서해안권(9.7%)’ 순임
- ‘해외’로의 여행은 14.1%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강원 내륙권’과 ‘영남내륙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9>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 내륙권	충청 내륙권	영남 내륙권	호남 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25.3	9.7	18.5	6.1	2.9	4.9	5.0	5.1	8.4	14.1	100.0
		빈도	455	174	333	110	53	88	90	91	151	254	1,799
	8개 시도	비율	25.3	9.5	16.8	7.2	2.9	5.8	4.3	5.5	7.7	15.0	100.0
		빈도	303	114	201	86	35	70	51	66	92	179	1,197
2015년	전체	비율	23.2	9.6	19.1	8.6	3.6	5.8	7.2	3.5	9.5	9.9	100.0
		빈도	407	169	336	151	64	102	126	61	166	174	1,756
	8개 시도	비율	23.7	10.1	17.6	9.3	3.7	6.6	5.8	3.5	8.8	10.9	100.0
		빈도	288	123	214	113	45	80	70	42	107	132	1,214
2014년	전체	비율	25.6	10.2	18.4	9.7	3.1	6.5	6.9	3.9	7.7	8.0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175	2,179
	8개 시도	비율	27.6	10.4	16.9	10.5	2.9	6.3	5.6	3.9	7.5	8.4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26.0	1,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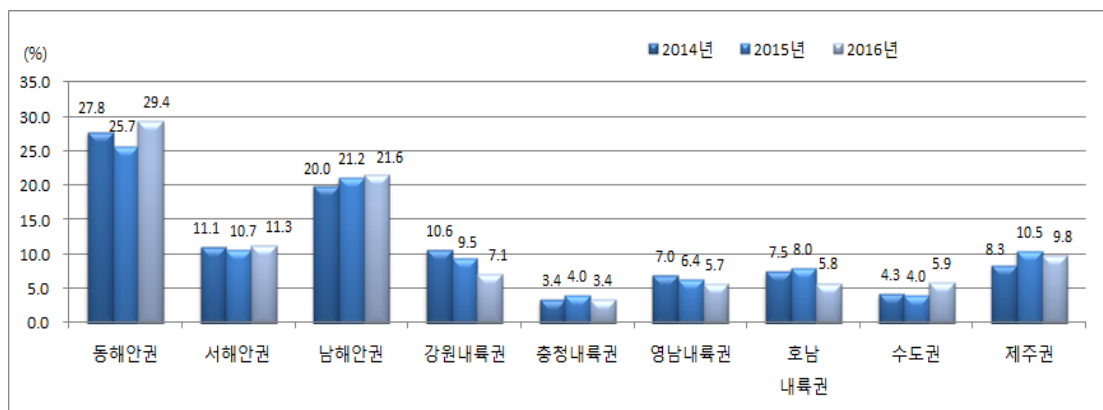
<그림 3- 6>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

- ‘국내여행’을 살펴보면, ‘동해안권’이 29.4%로 하계휴가 여행 예정지로 가장 비율이 높고, ‘남해안권’(21.6%), ‘서해안권’(11.3%) 순임
- 연도별로는 2014년부터 ‘강원내륙권’, ‘영남내륙권’의 비율이 감소추세인 반면, ‘남해안권’의 비율은 증가추세임

<표 3-10>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강원내륙권	충청내륙권	영남내륙권	호남내륙권	수도권	제주권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29.4	11.3	21.6	7.1	3.4	5.7	5.8	5.9	9.8	100.0
		빈도	455	174	333	110	53	88	90	91	151	1,545
	8개 시도	비율	29.8	11.2	19.7	8.4	3.4	6.9	5.0	6.5	9.0	100.0
		빈도	303	114	201	86	35	70	51	66	92	1,018
2015년	전체	비율	25.7	10.7	21.2	9.5	4.0	6.4	8.0	4.0	10.5	100.0
		빈도	407	169	336	151	64	102	126	61	166	1,582
	8개 시도	비율	26.6	11.4	19.8	10.4	4.2	7.4	6.5	3.9	9.9	100.0
		빈도	288	123	214	113	45	80	70	42	107	1,082
2014년	전체	비율	27.8	11.1	20.0	10.6	3.4	7.0	7.5	4.3	8.3	100.0
		빈도	557	223	400	212	67	141	151	86	167	2,004
	8개 시도	비율	30.1	11.3	18.4	11.5	3.2	6.8	6.1	4.3	8.2	100.0
		빈도	415	156	254	158	44	94	84	59	113	1,377



<그림 3- 7> 하계휴가시 여행지역(연도별)(국내)

마. 하계휴가 여행시기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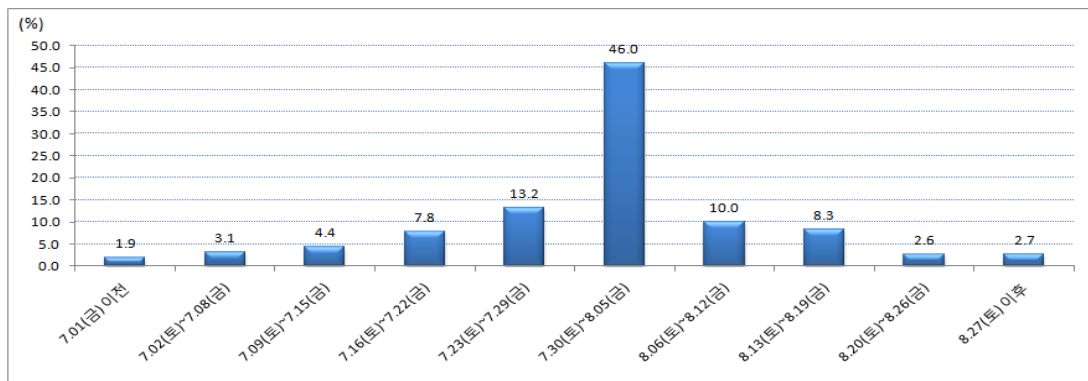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여행시기(계획있음)

- 올해 하계휴가시 여행시기를 분석한 결과, ‘7월 30일(토)~8월 5일(금)’ 동안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가구가 전체의 4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1>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7.01 (금) 이전	7.02 (토)~ 7.08 (금)	7.09 (토)~ 7.15 (금)	7.16 (토)~ 7.22 (금)	7.23 (토)~ 7.29 (금)	7.30 (토)~ 8.05 (금)	8.06 (토)~ 8.12 (금)	8.13 (토)~ 8.19 (금)	8.20 (토)~ 8.26 (금)	8.27 (토) 이후	합계
전체	비율	1.9	3.1	4.4	7.8	13.2	46.0	10.0	8.3	2.6	2.7	100.0
	빈도	35	57	81	144	243	847	183	152	48	50	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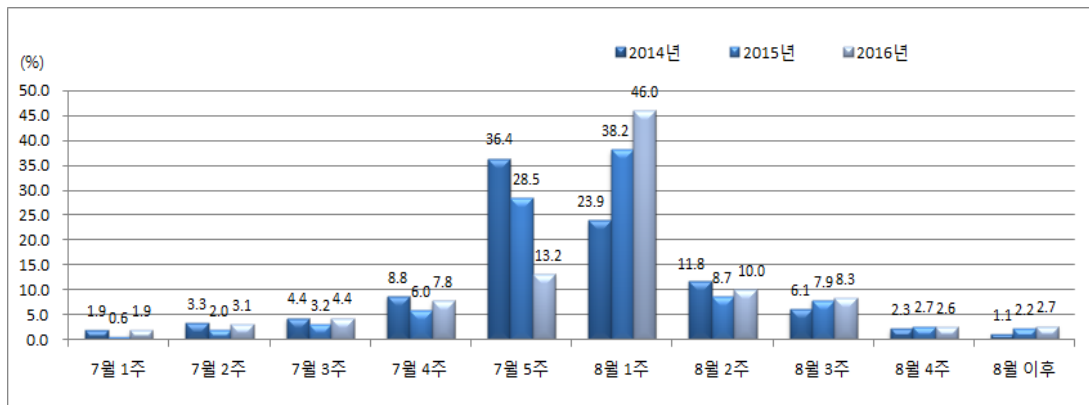
<그림 3- 8> 하계휴가시 여행일자

- 하계휴가시 여행시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7월 5주~8월 1주 사이에 여행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7월 1주	7월 2주	7월 3주	7월 4주	7월 5주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8월 4주	8월 이후	합 계
2016년	비율	1.9	3.1	4.4	7.8	13.2	46.0	10.0	8.3	2.6	2.7	100.0
	빈도	35	57	81	144	243	847	183	152	48	50	1,840
2015년	비율	0.6	2.0	3.2	6.0	28.5	38.2	8.7	7.9	2.7	2.2	100.0
	빈도	11	39	61	114	544	729	167	151	51	43	1,910
2014년	비율	1.9	3.3	4.4	8.8	36.4	23.9	11.8	6.1	2.3	1.1	100.0
	빈도	44	75	102	203	840	550	273	140	53	26	2,306



<그림 3- 9> 하계휴가시 여행시기(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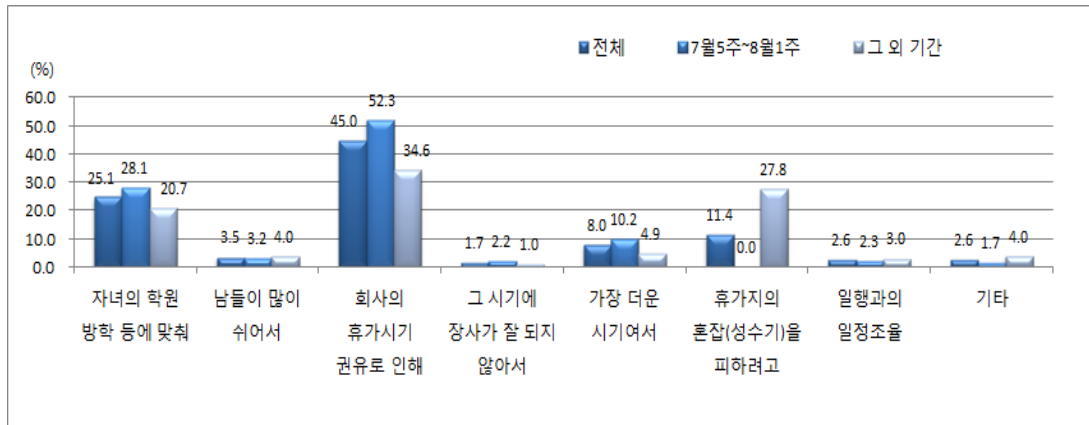
2) 휴가에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

- 휴가에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에 따르면,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가 45.0%로 가장 높고,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25.1%), ‘휴가지의 혼잡(성수기)을 피하려고’ (11.4%) 등의 순임
-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5주~8월 1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에 따르면,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52.3%),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 집 방학에 맞춰’ (28.1%), ‘가장 더운 시기여서’ (10.2%)가 전체 및 그 외 기간 대비 높게 나타남

<표 3-13> 휴가에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남들이 많이 쉬어서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그 시기에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가장 더운 시기여서	휴가지의 혼잡 (성수기)을 피하려고	일행과의 일정조율	기타	합계
전체	비율	25.1	3.5	45.0	1.7	8.0	11.4	2.6	2.6	100.0
	빈도	446	63	801	30	143	203	46	47	1,779
7월5주~ 8월1주	비율	28.1	3.2	52.3	2.2	10.2	-	2.3	1.7	100.0
	빈도	295	34	549	23	107	-	24	18	1,050
그 외 기간	비율	20.7	4.0	34.6	1.0	4.9	27.8	3.0	4.0	100.0
	빈도	151	29	252	7	36	203	22	29	729



<그림 3-10> 휴가예정일에 하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예정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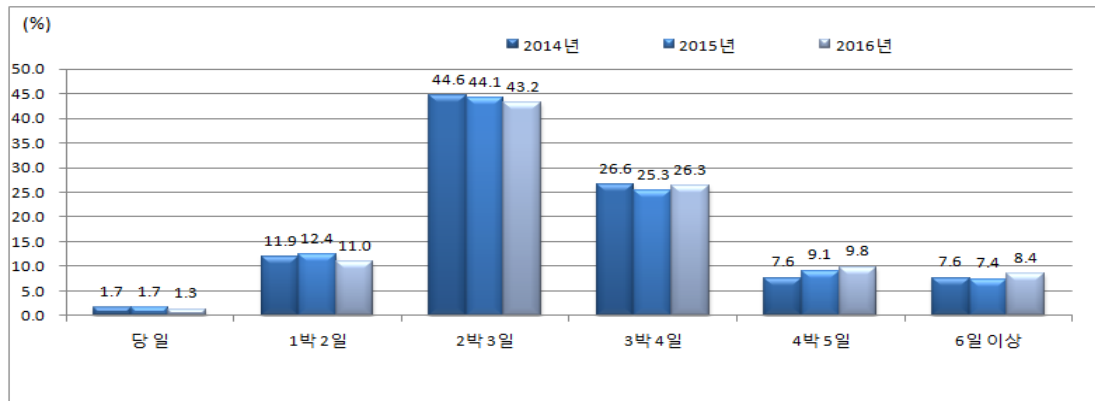
3) 하계휴가시 여행기간(계획있음)

-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으로 ‘2박 3일’이 전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박 4일’이 26.3%, ‘1박 2일’ 11.0% 순으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의 연도별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2박 3일’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4박 5일’의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냄

<표 3-14>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당 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6일 이상	합 계
2016년	전체	비율	1.3	11.0	43.2	26.3	9.8	8.4	100.0
		빈도	26	213	838	510	191	162	1,940
	8개 시도	비율	1.0	7.8	42.6	28.4	10.4	9.8	100.0
		빈도	13	100	546	364	133	126	1,282
2015년	전체	비율	1.7	12.4	44.1	25.3	9.1	7.4	100.0
		빈도	34	246	873	500	181	146	1,980
	8개 시도	비율	1.3	9.8	43.2	27.5	9.9	8.4	100.0
		빈도	17	132	584	371	134	113	1,351
2014년	전체	비율	1.7	11.9	44.6	26.6	7.6	7.6	100.0
		빈도	41	283	1,057	629	179	180	2,369
	8개 시도	비율	1.4	8.5	44.9	28.6	8.4	8.2	100.0
		빈도	23	139	733	467	137	134	1,633



<그림 3-11> 하계휴가시 여행기간(연도별)

바.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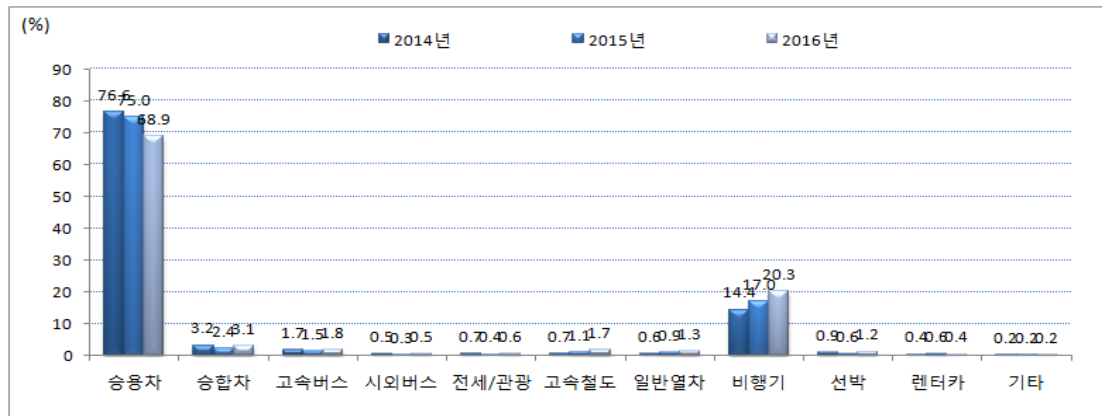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

- 2016년 하계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승용차, 승합차)’이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행기’ 20.3%, ‘버스(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가 2.9%, ‘철도(열차, 고속철도)’가 3.0%로 나타남
- 하계휴가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 연도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및 해외로의 여행 증가에 따라 ‘비행기’ 이용률이 2014년부터 증가추세임

<표 3-15>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승용차	승합차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관광 버스	고속 철도 (KTX)	일반 열차	비행기	선박	렌트카	기타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68.9	3.1	1.8	0.5	0.6	1.7	1.3	20.3	1.2	0.4	0.2	100.0
		빈도	1,367	61	36	10	12	33	26	403	23	8	5	1,984
	8개 시도	비율	68.4	2.7	2.0	0.5	0.4	2.3	1.5	20.6	1.1	0.5	0.2	100.0
		빈도	895	35	26	6	5	30	19	269	15	6	2	1,308
2015년	전체	비율	75.0	2.4	1.5	0.3	0.4	1.1	0.9	17.0	0.6	0.6	0.2	100.0
		빈도	1,494	47	30	6	8	21	18	339	11	11	6	1,991
	8개 시도	비율	74.0	2.2	1.8	0.3	0.5	1.3	0.9	17.5	0.5	0.7	0.4	100.0
		빈도	1,005	30	25	4	7	17	12	237	7	9	5	1,358
2014년	전체	비율	76.6	3.2	1.7	0.5	0.7	0.7	0.6	14.4	0.9	0.4	0.2	100.0
		빈도	1,855	78	41	12	16	18	15	349	21	10	6	2,421
	8개 시도	비율	76.2	3.4	1.8	0.5	0.7	0.8	0.6	14.6	0.7	0.4	0.2	100.0
		빈도	1,268	57	30	8	12	14	10	243	12	7	3	1,664



<그림 3-12> 하계휴가시 이용 교통수단(연도별)

2)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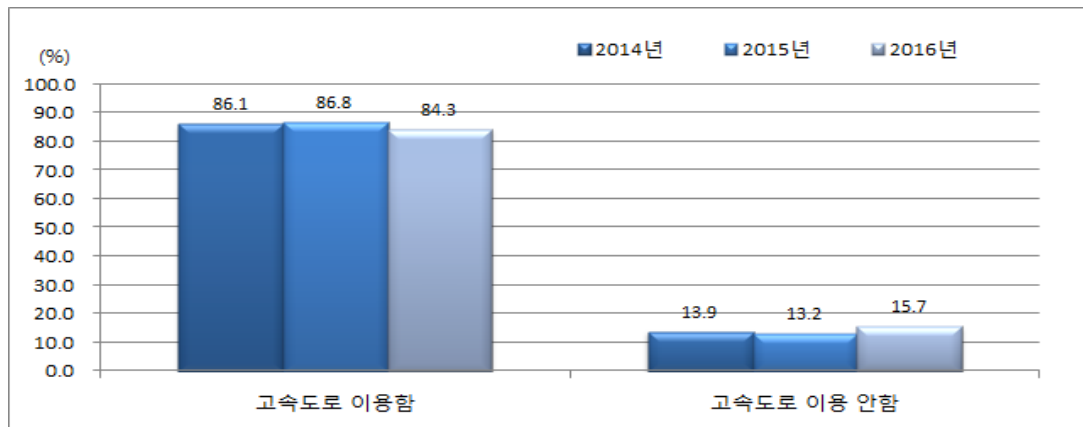
① 고속도로 이용여부

-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이용자의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여부는 ‘고속도로 이용함’이 84.3%, ‘고속도로 이용 안함’은 15.7%로 나타남
- 고속도로 이용률은 2015년 대비 2016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 안함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84.3	15.7	100.0
		빈도	1,128	210	1,338
	8개 시도	비율	89.7	10.3	100.0
		빈도	786	90	876
2015년	전체	비율	86.8	13.2	100.0
		빈도	1,092	166	1,258
	8개 시도	비율	90.8	9.2	100.0
		빈도	782	79	861
2014년	전체	비율	86.1	13.9	100.0
		빈도	1,591	257	1,848
	8개 시도	비율	91.4	8.6	100.0
		빈도	1,156	109	1,265



<그림 3-13> 하계휴가시 이용도로(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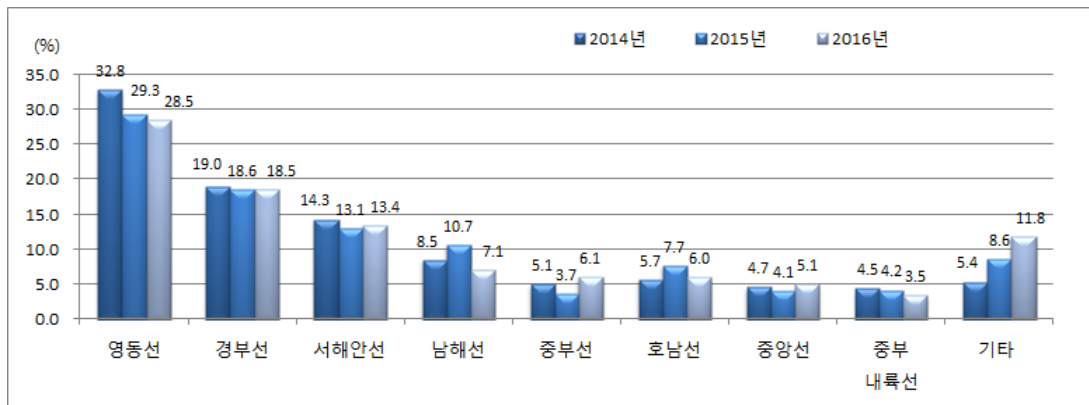
② 고속도로 이용노선

- 하계휴가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자의 주 이용노선은 ‘영동선’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부선’ (18.5%), ‘서해안선’ (13.4%)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영동선’과 ‘경부선’의 비율이 감소추세로 나타난 반면, ‘기타 고속도로’가 증가추세를 보임

<표 3-17>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영동선	경부선	서해안 선	남해선	중부선	호남선	중앙선	중부 내륙선	기타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28.5	18.5	13.4	7.1	6.1	6.0	5.1	3.5	11.8	100.0
		빈도	242	157	114	60	52	51	43	30	99	848
	8개 시도	비율	31.1	19.1	14.5	4.8	4.1	6.6	4.3	3.0	12.5	100.0
		빈도	189	116	88	29	25	40	26	18	76	607
2015년	전체	비율	29.3	18.6	13.1	10.7	3.7	7.7	4.1	4.2	8.6	100.0
		빈도	316	200	141	115	40	83	44	45	93	1,077
	8개 시도	비율	32.5	19.7	15.6	7.1	3.5	6.1	3.7	3.2	8.6	100.0
		빈도	252	153	121	55	27	47	29	25	67	776
2014년	전체	비율	32.8	19.0	14.3	8.5	5.1	5.7	4.7	4.5	5.4	100.0
		빈도	486	281	212	126	75	85	69	66	81	1,481
	8개 시도	비율	38.1	19.0	15.5	5.9	4.0	4.9	3.7	4.0	5.0	100.0
		빈도	416	207	169	64	44	53	40	44	56	1,092



<그림 3-14> 하계휴가시 고속도로 이용 예정노선(연도별)

3)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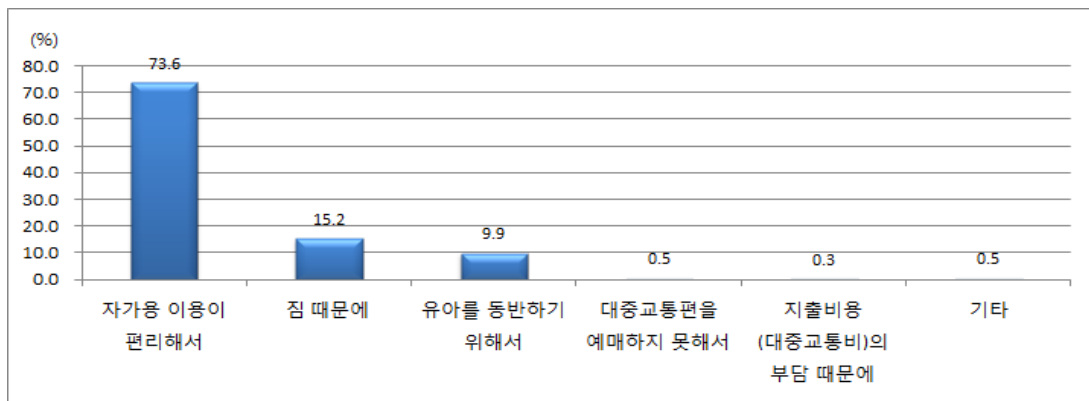
①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가 73.6%로 가장 높았고, ‘집 때문에’ (15.2%),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8>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집 때문에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지출비용 (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기타	합계
비율	73.6	15.2	9.9	0.5	0.3	0.5	100.0
빈도	1,050	217	141	7	5	7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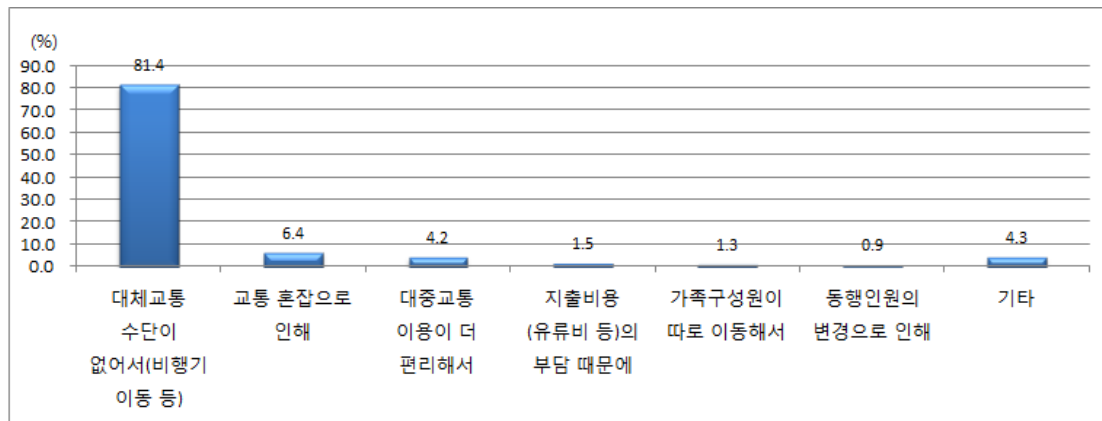
<그림 3-15>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

②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서 (비행기 이동 등)’가 81.4%로 가장 높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해’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9>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교통 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서	지출비용 (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기타	합계
비율	81.4	6.4	4.2	1.5	1.3	0.9	4.3	100.0
빈도	368	29	19	7	6	4	19	452



<그림 3-16> 자가용을 보유함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아. 하계휴가시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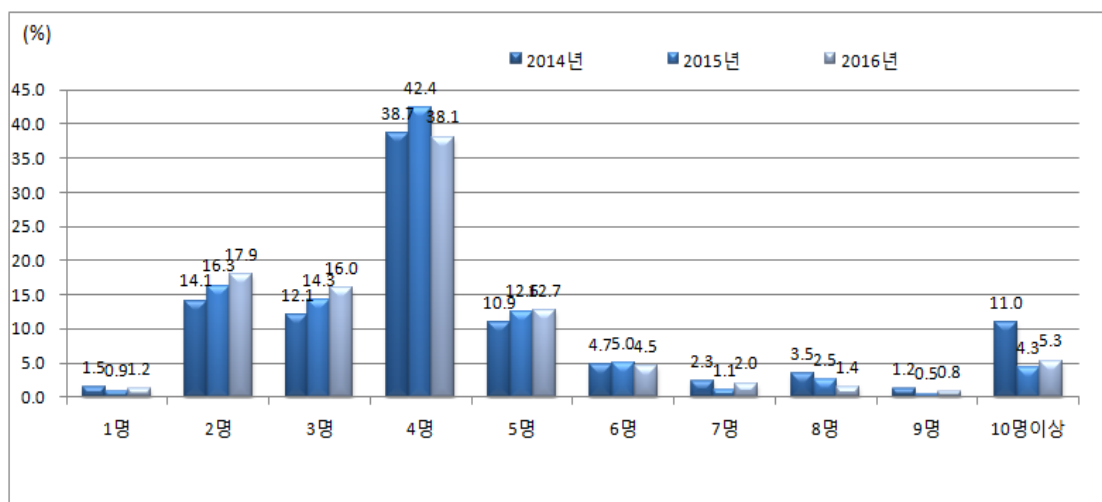
1) 하계휴가시 동행인 수

- 2016년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본인포함)는 ‘4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 (17.9%)’, ‘3명(16.0%)’ 순임

<표 3-20>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합계
2016 년	전체	비율	1.2	17.9	16.0	38.1	12.7	4.5	2.0	1.4	0.8	5.3	100.0
		빈도	23	347	310	739	247	87	39	28	16	102	1,938
	8개 시도	비율	1.3	19.5	17.5	35.6	11.8	5.2	1.7	1.7	0.9	4.6	100.0
		빈도	17	250	224	456	151	67	22	22	12	59	1,280
2015 년	전체	비율	0.9	16.3	14.3	42.4	12.6	5.0	1.1	2.5	0.5	4.3	100.0
		빈도	18	317	278	823	245	97	21	49	10	84	1,942
	8개 시도	비율	1.1	16.4	14.8	42.3	12.6	5.1	1.1	2.5	0.3	3.9	100.0
		빈도	14	217	196	560	167	67	15	33	4	52	1,325
2014 년	전체	비율	1.5	14.1	12.1	38.7	10.9	4.7	2.3	3.5	1.2	11.0	100.0
		빈도	36	336	287	922	260	111	54	84	29	262	2,381
	8개 시도	비율	1.3	15.1	11.8	38.4	10.8	4.7	2.4	3.5	1.2	11.0	100.0
		빈도	22	246	192	627	176	76	39	57	19	180	1,634



<그림 3-17> 하계휴가시 예정 동행인 수(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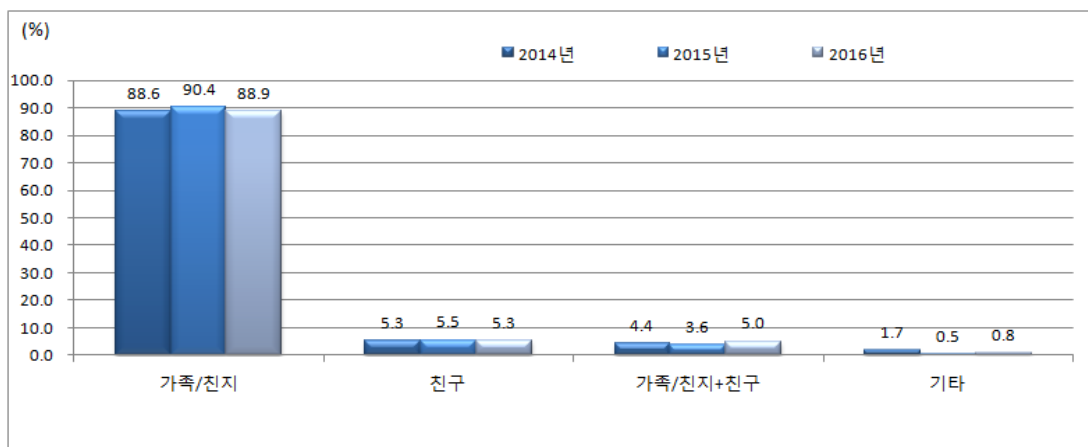
2) 하계휴가시 동행인 유형

- 하계휴가 여행을 함께 가는 동행인으로는 ‘가족/친지’가 88.9%로 다른 동행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휴가여행을 간다는 응답이 5.3%, ‘가족/친지+친구’가 5.0%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가족/친지’의 비율 감소하고, ‘가족/친지+친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1>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가족/친지	친구	가족/친지 +친구	기 타	합 계
2016년	전체	비율	88.9	5.3	5.0	0.8	100.0
		빈도	1,700	102	95	15	1,912
	8개시도	비율	89.4	5.5	4.7	0.5	100.0
		빈도	1,127	69	59	6	1,261
2015년	전체	비율	90.4	5.5	3.6	0.5	100.0
		빈도	1,714	105	68	10	1,897
	8개시도	비율	90.5	5.4	3.5	0.6	100.0
		빈도	1,169	70	45	8	1,292
2014년	전체	비율	88.6	5.3	4.4	1.7	100.0
		빈도	2,054	123	102	40	2,319
	8개시도	비율	89.0	4.9	4.5	1.6	100.0
		빈도	1,419	78	72	25	1,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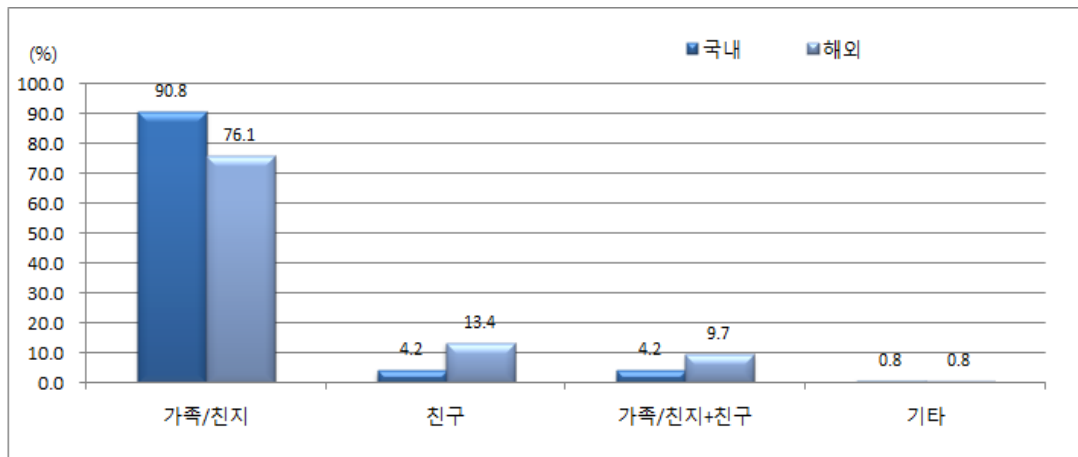
<그림 3-18>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연도별)

- 국내여행은 가족/친지 여행이 90.8%, 친구와 여행이 4.2%인 반면, 해외여행은 가족/친지 여행이 76.1%, 친구는 13.4%로 차이를 보임

<표 3-22>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가족/친지	친구	가족/친지 +친구	기타	합 계
2016년	국내	비율	90.8	4.2	4.2	0.8	100.0
		빈도	1,517	70	71	13	1,671
	해외	비율	76.1	13.4	9.7	0.8	100.0
		빈도	188	33	24	2	247
2015년	국내	비율	91.6	5.0	3.1	0.3	100.0
		빈도	1,593	87	54	6	1,740
	해외	비율	77.1	11.5	8.9	2.5	100.0
		빈도	121	18	14	4	157
2014년	국내	비율	89.1	4.9	4.7	1.4	100.0
		빈도	1,898	104	100	29,0	2,131
	해외	비율	82.2	10.9	1.1	5.7	100.0
		빈도	143	19	2	10.0	174



<그림 3-19> 하계휴가를 함께 가는 동행인(국내/해외여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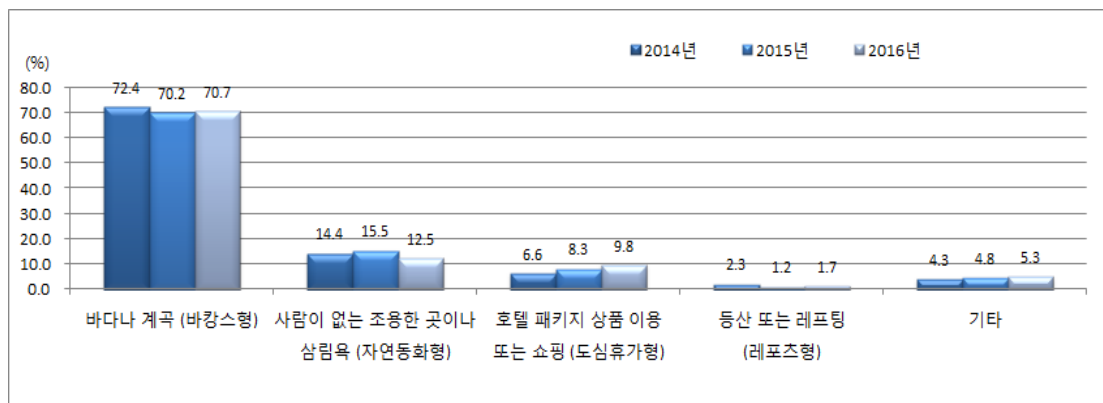
자.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

- 가장 선호하는 하계휴가 여행 유형은 ‘바다나 계곡(바캉스형)’이 70.7%로 가장 높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 등(자연동화형)’이 12.5% 순으로 나타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도심휴가형)’의 비율이 증가추세로 나타난 반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자연동화형)’의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임

<표 3-23>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 (자연동화형)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기타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70.7	12.5	9.8	1.7	5.3	100.0
		빈도	1,359	241	188	32	103.0	1,923
	8개 시도	비율	69.4	12.8	9.9	1.7	6.2	100.0
		빈도	882	162	126	21	79.0	1,270
2015년	전체	비율	70.2	15.5	8.3	1.2	4.8	100.0
		빈도	1,334	295	158	22	92	1,901
	8개 시도	비율	69.2	15.7	8.7	1.1	5.4	100.0
		빈도	899	204	113	14	70	1,300
2014년	전체	비율	72.4	14.4	6.6	2.3	4.3	100.0
		빈도	1,699	338	155	53	101	2,346
	8개 시도	비율	73.1	14.2	6.6	1.7	4.4	100.0
		빈도	1,184	230	107	28	71	1,620



<그림 3-20> 예정한 휴가여행지 유형(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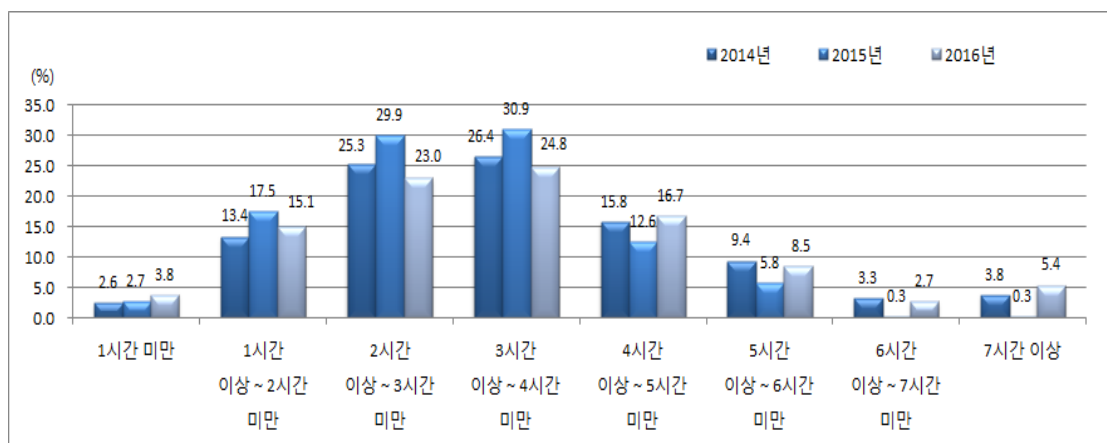
차. 예상소요시간

- 하계휴가 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은 ‘3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2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23.0%, 4시간 이상~5시간 미만’이 16.7%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시간 미만’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4>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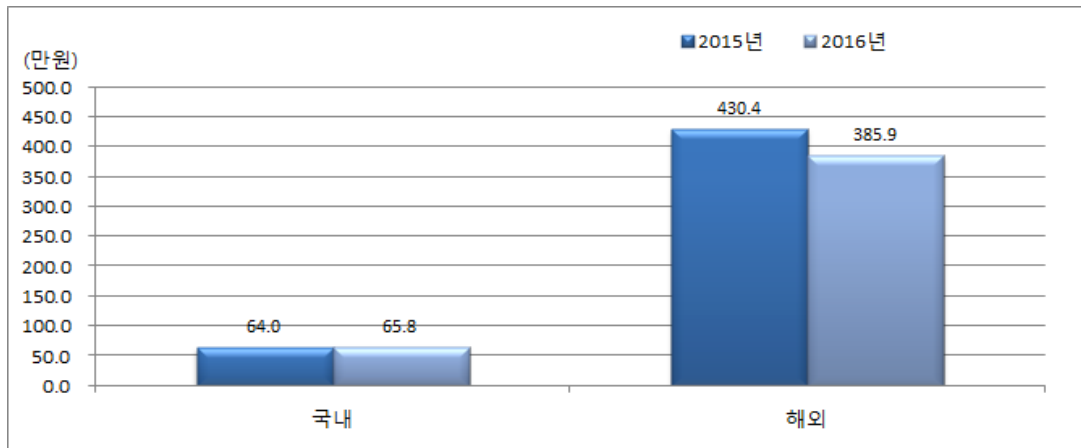
구 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합계
2016년	전체	비율	3.8	15.1	23.0	24.8	16.7	8.5	2.7	5.4	100.0
		빈도	67	265	404	436	294	149	49	95	1,759
	8개 시도	비율	2.2	12.3	22.8	26.6	18.0	9.5	2.6	6.0	100.0
		빈도	26	144	268	313	211	112	30	71	1,175
2015년	전체	비율	2.7	17.5	29.9	30.9	12.6	5.8	0.3	0.3	100.0
		빈도	48	306	523	541	221	102	4	4	1,749
	8개 시도	비율	2.3	16.8	28.9	32.3	14.1	5.3	0.1	0.2	100.0
		빈도	28	203	350	390	170	64	1	3	1,209
2014년	전체	비율	2.6	13.4	25.3	26.4	15.8	9.4	3.3	3.8	100.0
		빈도	58	296	560	586	350	208	74	85	2,217
	8개 시도	비율	1.6	9.1	24.4	28.5	18.2	10.9	3.5	3.8	100.0
		빈도	24	139	372	434	277	166	54	58	1,524



<그림 3-21> 휴가여행 목적지까지 예상소요시간(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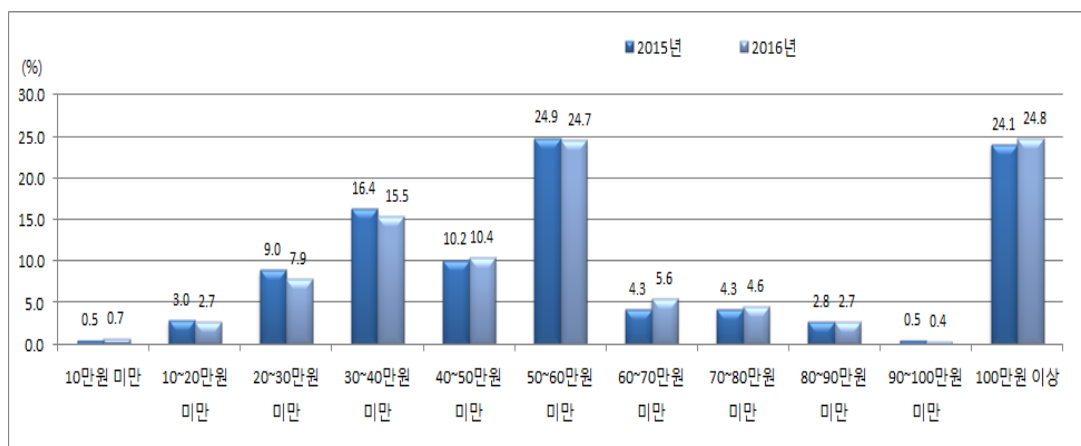
카. 하계휴가시 휴가비용

- 하계휴가시 국내여행 평균 65.8만원, 해외여행 평균 385.9만원을 사용할 예정임
- 가구당 평균 여행 지출 예상 비용은 작년 대비 국내는 약 1.8만원 증가하며, 해외는 약 44.5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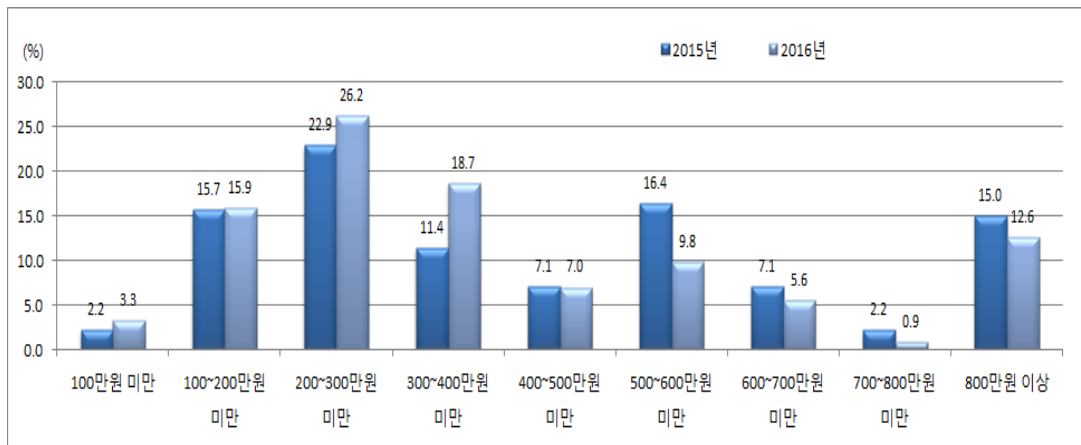
<그림 3-22>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 변화(연도별)

- 국내여행 휴가비용 분포는 ‘100만원 이상’이 24.8%로 가장 높았고, ‘50~60만원 미만’ 24.7%, ‘30~40만원’ 15.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3>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국내)

- 해외여행 휴가비용 분포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18.7%,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15.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4> 하계휴가시 총 예상 휴가비용(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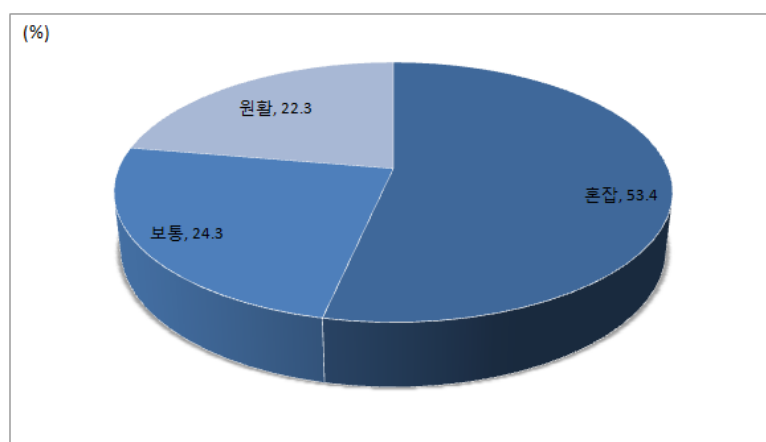
타.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1)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 하계휴가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53.4%가 하계휴가시 주요 도로가 혼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24.3%, 원활 22.3% 순임

<표 3-25>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혼잡	보통	원활	합계
비율	53.4	24.3	22.3	100.0
빈도	976	445	408	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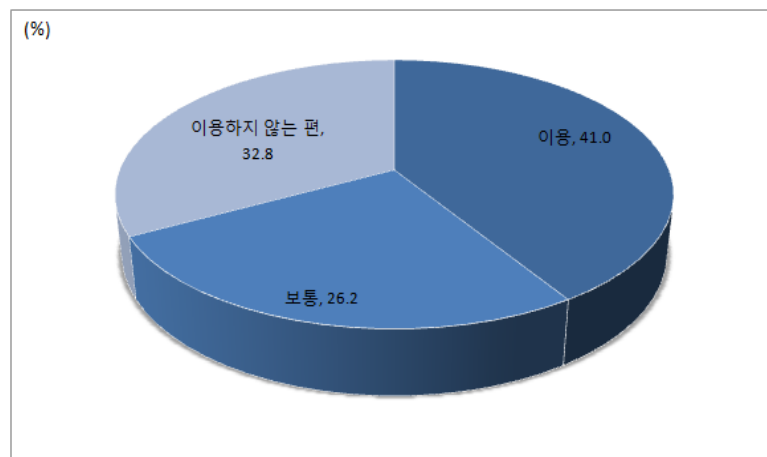
<그림 3-25> 하계휴가시 주요도로 혼잡 예상 정도

2)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하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평소 하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로는 ‘이용’이 41.0%, ‘보통’이 26.2%로 나타남

<표 3-26>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합계
비율	41.0	26.2	32.8	100.0
빈도	796	509	636	1,941



<그림 3-26>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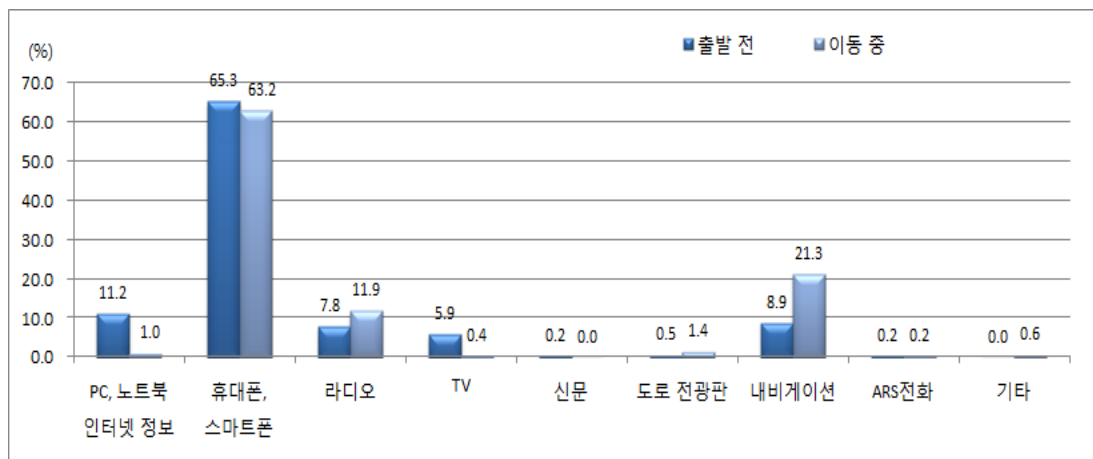
3)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하계휴가시 교통상황 안내 정보획득 경로는 출발 전, 이동 중 모두 ‘휴대폰, 스마트폰’이 각각 65.3%,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발 전 대비 이동 중 ‘라디오’, ‘내비게이션’, ‘도로전광판’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이동 중 대비 출발 전에는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TV’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휴대폰, 스마트 폰	라디오	TV	신문	도로 전광판	내비 게이션	ARS 전화	기타	합계
출발 전	비율	11.2	65.3	7.8	5.9	0.2	0.5	8.9	0.2	-	100.0
	빈도	141	824	98	75	2	7	112	3	-	1,262
이동 중	비율	1.0	63.2	11.9	0.4	-	1.4	21.3	0.2	0.6	100.0
	빈도	13	788	148	5	-	18	266	3	6	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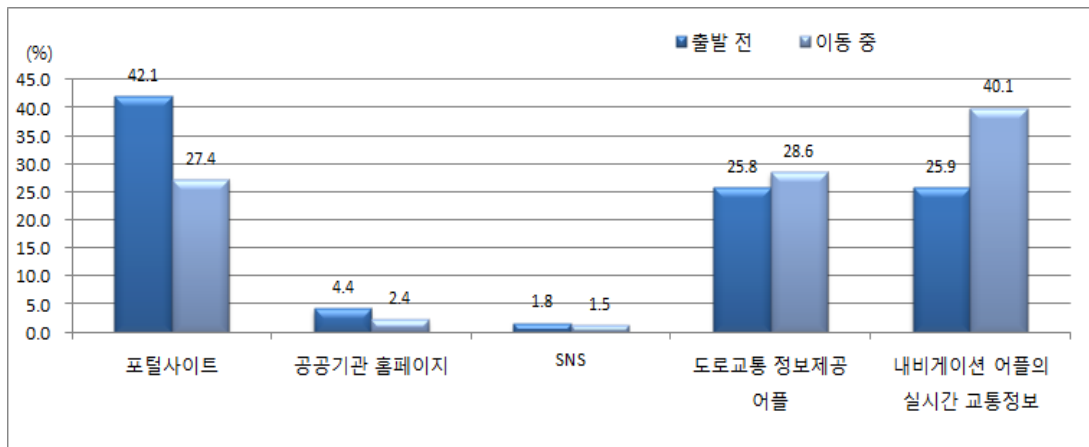
<그림 3-27>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출발 전에는 ‘포털사이트’가 42.1%로 가장 높고,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40.1%로 높게 나타남

<표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교통정보	합계
출발 전	비율	42.1	4.4	1.8	25.8	25.9	100.0
	빈도	381	40	16	233	234	904
이동 중	비율	27.4	2.4	1.5	28.6	40.1	100.0
	빈도	204	18	11	213	299	745



<그림 3-28> 휴대전화,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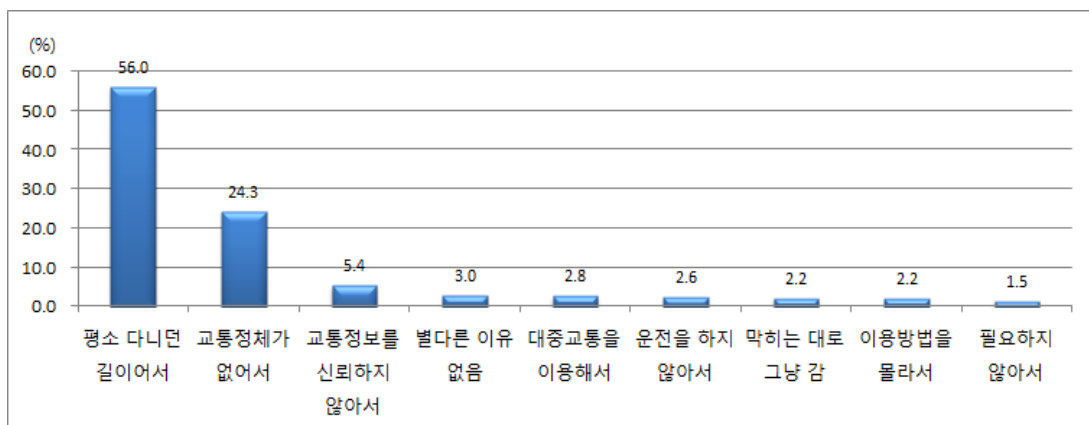
4)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평소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평소 다니던 길이어서’가 56.0%로 가장 높았고, ‘교통정체가 없어서’ (24.3%), ‘교통정보를 신뢰하지 않아서’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29>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평소 다니던 길이어서	교통정체가 없어서	교통 정보를 신뢰하지 않아서	별다른 이유 없음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지 않아서	막히는 대로 그냥 감	이용 방법을 몰라서	필요하지 않아서	합계
비율	56.0	24.3	5.4	3.0	2.8	2.6	2.2	2.2	1.5	100.0
빈도	302	131	29	16	15	14	12	12	8	539



<그림 3-29>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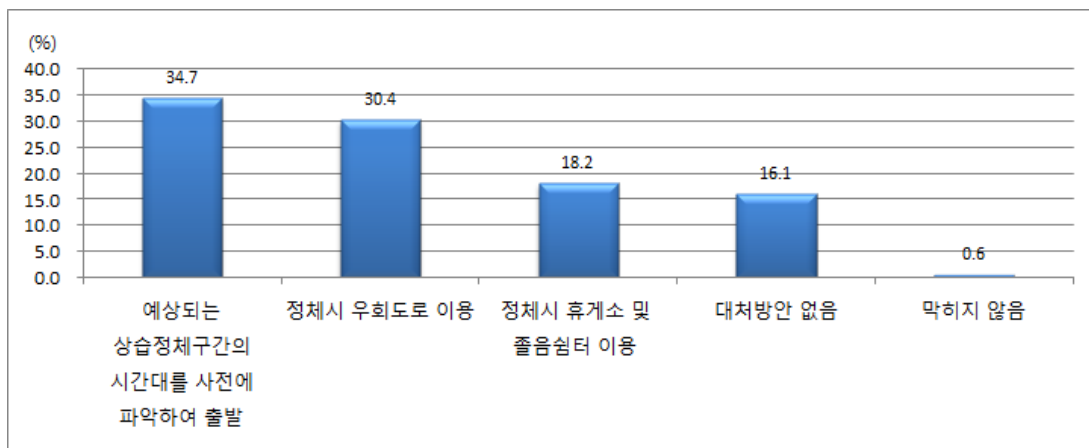
5)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 자가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한 결과, ‘예상되는 상습 정체구간의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출발’ 하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정체시 우회도로 이용’ (30.4%), ‘정체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이용’ (18.2%)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예상되는 상습정체구간의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출발	정체시 우회도로 이용	정체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이용	대처방안 없음	막히지 않음	합계
비율	34.7	30.4	18.2	16.1	0.6	100.0
빈도	475	416	250	220	9	1,370



<그림 3-30>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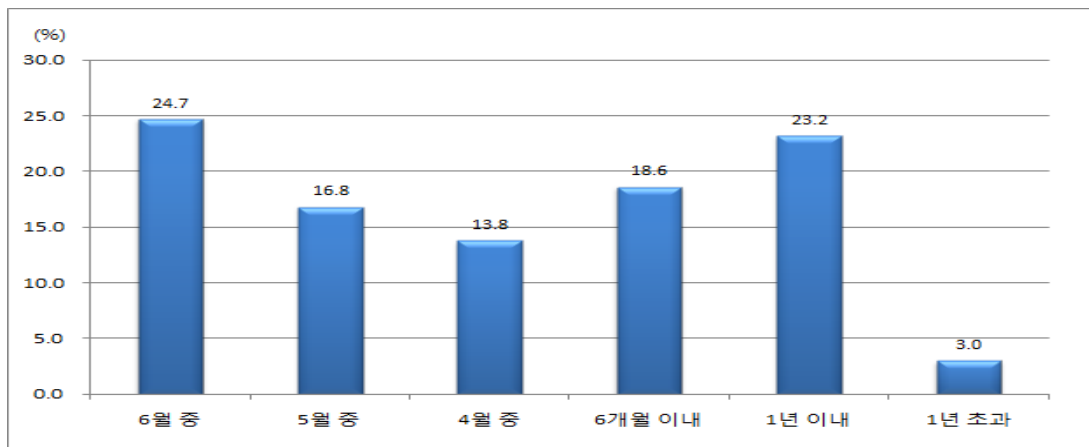
파. 기타사항

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⁸⁾

- 최근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응답자의 가족여행 시기를 조사한 결과, ‘6월 중’이 24.7%로 가장 높고, ‘1년 이내’ 23.2%, ‘6개월 이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6월 중	5월 중	4월 중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초과	합계
비율	24.7	16.8	13.8	18.6	23.2	3.0	100.0
빈도	989	671	551	743	926	120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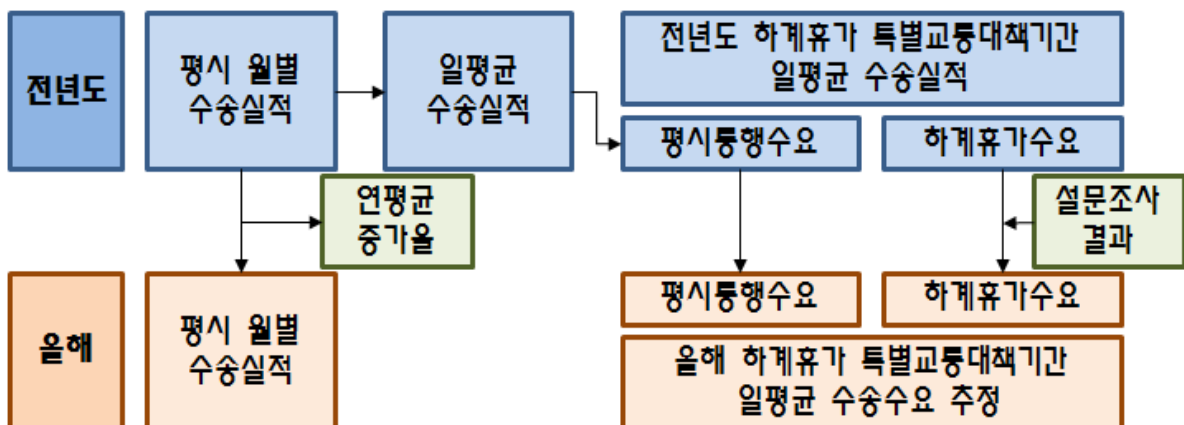
<그림 3-31> 최근 다녀온 가족여행

8) 최근 가족여행을 ‘가지 않았다’ (n=5,115, 56.1%)는 응답자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하계휴가 기간은 귀성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및 설 특별교통대책기간과는 달리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과 휴가통행을 구분하여 구축하며, 전년도 1년간의 연평균 수송실적을 평상시 통행으로 가정하고, 하계휴가 기간 동안의 수송실적과 평상시 통행간의 차이를 휴가통행으로 가정함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 휴가수요의 변화를 도출하여 전년도 수송실적에 적용함으로써 올해 하계휴가 기간 동안의 휴가수요를 예측함
- 전년도 수송실적에서 일평균 수요를 평상시 수요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요를 휴가수요로 구분함. 평상시 수요에 작년 대비 올해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올해년도 평시 수요를 산출하며, 휴가수요는 설문조사 결과인 전년 대비 올해 휴가통행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측함
- 전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의 수송실적은 수단별로 평상시 통행과 하계휴가 통행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 산출을 위해 전년도 대비 올해 하계 휴가시 이용수단 변화율을 반영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설문조사시 전년도 하계휴가시 이용수단과 올해 하계휴가시 예상 이용교통수단을 동시에 질문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전년도 대비 올해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의 변화를 예측함



<그림 3-32>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16.7.22~8.7, 1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8,065만명, 1일 평균 474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462만명/일)대비 2.5% 증가하고, 평시(385만명/일)보다 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계휴가 기간 중 여행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80.9%, 버스 12.8%, 철도 4.4%, 항공 1.0%, 해운 0.9%로 전망됨

<표 3-32> 2016년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휴가기간('16.7.22~8.7)			평시대비 (%)
				일평균 교통량	17일 총수송량	분담률 (%)	
도 로	승용차		2,848	3,839	65,261	80.9	134.8
	버 스	고속버스	43	57	970	1.2	132.6
		시외·전세	732	550	9,358	11.6	75.1
철도			171	208	3,541	4.4	121.6
항공			37	48	820	1.0	129.7
해운			19	41	699	0.9	215.8
합계			3,850	4,743	80,649	100.0	123.2

주: 1)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2)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하계휴가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교통수요예측결과와 기간 중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7.22~8.7, 17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4,193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473천명으로 76.6%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23.4% 과소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승용차의 오차율이 25.4%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75.5% 증가

<표 3-33>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 적					
			1일 평균 (C)	기간 전 체 (D)	1일 평균 (D)	기간 전 체 (E)				
승용차	3,773	2,848	3,839	65,261	5,143	87,439	74.6	▼25.4	136.3	180.6
고속버스	66	43	57	970	54	913	105.6	▲5.6	81.8	125.6
철도	196	171	208	3,541	196	3,333	106.1	▲6.1	100.0	114.6
항공	41	37	48	820	44	745	109.1	▲9.1	107.3	118.9
해운	36	19	41	699	36	609	113.9	▲13.9	100.0	189.5
전체	4,112	3,118	4,193	71,291	5,473	93,039	76.6	▼23.4	133.1	175.5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4장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제4절 사후평가

제4장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분석

제1절 추석 연휴 수송실적 자료조사

1. 자료수집 개요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도로 :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항공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해운 : 선박안전기술공단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기 : 특별교통대책기간 약 25일 전까지
 - 2016년 8월 4일(목)~2016년 8월 11일(목)
- 수송실적 수집기관별 수집데이터
 - 승용차(한국도로공사,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 월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차종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전세버스(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시외버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 철도(한국철도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항공(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해운(선박안전기술공단) : 월별 수송실적, 일별 수송실적, 일별 기종점별 수송실적
- 수송실적 자료수집 시간적 범위
 - 월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6년 6월~2016년 7월
 - 일별 수송실적 자료 수집 :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5일간: 2015.9.25~9.29)

2. 자료수집 결과(2015년 추석 연휴 수송실적)

- 각 기관별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자료를 수령한 후 전년도(2014년) 수송실적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시외/전세를 제외한 전체 수단에서 2015년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수송실적은 2015년 동기간 보다 10% 이상 증가함
 - 특히 고속버스의 경우 전년대비 24.6% 증가

<표 4- 1> 2014,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

교통수단	단위	일평균		기간 전체		증감 (B-A)		일평균실적 증감률 (%)
		2014년 (A)	2015년 (B)	2014년(7일) (A)	2015년(5일) (B)	일평균	기간 전체	
승용차 ^{주)}	대	3,030,312	3,446,315	21,212,186	17,231,573	416,003	-3,980,613	13.7
고속버스	인	150,189	187,090	1,051,326	935,452	36,901	-115,874	24.6
시외/전세	인	1,334,851	1,448,624	9,343,958	7,243,119	113,773	-2,100,839	8.5
철도	인	473,578	538,863	3,315,048	2,694,314	65,285	-620,734	13.8
항공	인	76,717	89,408	537,020	447,038	12,691	-89,982	16.5
해운	인	68,572	77,770	480,005	388,851	9,198	-91,154	13.4

주: 한국도로공사의 TCS자료(폐쇄식구간 기종점간 교통량)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을 승용차로 간주하여 통행량을 산정함

제2절 추석 연휴 특별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범위
 -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화)~9.18(일): 6일간)의 통행계획
 - 전국 단위 세대(17개 시·도) 대상
- 조사시기·방법·표본
 - 조사시기 : 2016년 8월 17일(수)~8월 22일(월)(6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조사표본 : 9,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3\%$)(유선전화 7,200세대, 인터넷전화 1,800세대 포함)
 - 유효표본수⁹⁾ : 2,000세대(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2.19\%$)

나. 조사내용

- 작년(2015년) 추석 연휴 기간 통행 관련사항 :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관련사항
 - 2016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계획, 귀성 및 여행지역, 거주지와 귀성지역의 동일 권역 여부, 귀성 및 여행 중 우선 이동 가능성, (계획없음 응답자)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귀성 및 여행계획이 없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가족들의 역귀성 지역, 출발날짜 및 출발시간, 귀가날짜 및 귀가시간, 체류일수 등
-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 자가용 보유 여부, 주 이용 교통수단, 동행인 수 및 동행인 유형, 주 이용 고속도로 노선, 자가용 이용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및 기타사항
 - 추석 연휴 교통비용, 본가와 처가 방문 여부 및 출발일자,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9) 유효표본은 올해 귀성, 여행계획이 있는 응답가구 기준임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휴대폰 이용시 구체적인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성묘 여부 및 시기, 성묘지역, 별초 여부 및 시기,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휴가일수

- 개인 속성 : 가족인원수, 세대주 연령 및 직업, 주거 형태

다. 조사표본 선정

-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 설문조사가 전국 세대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2016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모집단으로, 전국 17개 특별 광역시/도의 (대도시 위주, 군단위 이하 제외)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서울 및 광역시 : 군 단위 제외한 행정구역
 - 경기도 : 세대수 30만 가구 이상 행정구역
 - 세종시 : 전 지역
 - 그 외 지역 : 세대수 상위 10% 이상을 차지하는 행정구역

<표 4- 2>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2015년 추석					2016년 추석				
	전체 세대수 ¹⁾	표본		유효표본		전체 세대수 ²⁾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97,478	1,810	20.1	433	20.8	4,193,712	1,784	19.8	379	19.0
부산광역시	1,430,441	617	6.9	154	7.4	1,445,614	615	6.8	132	6.6
대구광역시	977,714	422	4.7	126	6.0	987,531	419	4.7	100	5.0
인천광역시	1,145,232	494	5.5	130	6.2	1,162,725	497	5.5	135	6.8
광주광역시	577,941	249	2.8	61	2.9	584,218	248	2.8	63	3.2
대전광역시	595,216	257	2.9	84	4.0	601,356	256	2.8	76	3.8
울산광역시	447,229	193	2.1	73	3.5	453,982	193	2.1	73	3.7
경 기 도	4,829,521	2,083	23.1	510	24.5	4,937,454	2,100	23.3	489	24.5
강 원 도	680,373	293	3.3	35	1.7	688,354	294	3.3	40	2.0
충청북도	664,186	286	3.2	58	2.8	675,264	287	3.2	61	3.1
충청남도	878,544	379	4.2	102	4.9	893,684	379	4.2	121	6.1
전라북도	778,350	336	3.7	36	1.7	786,489	335	3.7	44	2.2
전라남도	827,264	357	4.0	54	2.6	838,125	356	4.0	42	2.1
경상북도	1,160,150	500	5.6	114	5.5	1,176,023	502	5.6	97	4.9
경상남도	1,356,430	585	6.5	102	4.9	1,377,458	583	6.5	131	6.6
제주도	251,478	108	1.2	7	0.3	262,660	112	1.2	5	0.3
세종시	72,733	31	0.3	5	0.2	89,204	40	0.4	12	0.6
전 국	20,870,280	9,000	100.0	2,084	100.0	21,153,853	9,000	100.0	9,000	100.0

주: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5. 6)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6. 6)

- 지역별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표본수는 다음과 같음

<표 4-3>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실태 사전조사 지역별 조사 세대수(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단위: 세대수(세대), 비율(%))

구분	전체 세대수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표본		유효표본		표본		유효표본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특별시	4,193,712	1,427	19.8	292	19.2	357	19.8	87	18.2
부산광역시	1,445,614	492	6.8	104	6.8	123	6.8	28	5.9
대구광역시	987,531	336	4.7	77	5.1	83	4.6	23	4.8
인천광역시	1,162,725	398	5.5	109	7.2	99	5.5	26	5.5
광주광역시	584,218	198	2.8	48	3.2	50	2.8	15	3.1
대전광역시	601,356	205	2.8	56	3.7	51	2.8	20	4.2
울산광역시	453,982	154	2.1	51	3.3	39	2.2	22	4.6
경기도	4,937,454	1,680	23.3	369	24.2	420	23.3	120	25.2
강원도	688,354	235	3.3	29	1.9	59	3.3	11	2.3
충청북도	675,264	230	3.2	46	3.0	57	3.2	15	3.1
충청남도	893,684	303	4.2	96	6.3	76	4.2	25	5.2
전라북도	786,489	268	3.7	32	2.1	67	3.7	12	2.5
전라남도	838,125	285	4.0	34	2.2	71	3.9	8	1.7
경상북도	1,176,023	400	5.6	70	4.6	102	5.7	27	5.7
경상남도	1,377,458	467	6.5	98	6.4	116	6.4	33	6.9
제주도	262,660	90	1.3	5	0.3	22	1.2	0	0.0
세종특별자치시	89,204	32	0.4	7	0.5	8	0.4	5	1.0
전 국	21,153,853	7,200	100.0	1,523	100.0	1,800	100.0	477	100.0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16. 6)

라. 조사표본 추출

-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위한 추출표본이 조사대상 지역별 통행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할당된 조사표본의 20배수의 리스트, 즉, 2016년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비례 할당한 리스트를 추출하여 최종 설문조사된 비율이 지역별 세대수 및 동단위 세대수 비율과 근사치로 조사됨
- 리스트 추출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KORA)의 유선전화 RDD(Random Digital Dialing System) 제공서비스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지역별 세대수와 동일한 비율로 조사표본 20배의 리스트를 추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랜덤샘플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출하여 각 권역별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사전 설문조사 주요 결과

가. 결과 요약

- 귀성 및 여행비율
 - 응답가구 중 22.2%는 올해 추석 연휴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있으며, 역귀성 비율은 10.7%임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 하기 때문(70.5%)임
- 귀성-귀가 출발일
 - 귀성 출발일은 추석 전날인 '9월 14일(수)', 귀경 출발일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귀성일은 'D-1', 귀경일은 'D+3 이후'의 비율이 증가함
 - 귀성-귀경 출발일별 출발시간의 경우,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월 14일(수)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 오후'의 비율이 높음
- 체류일수
 - '1박 2일'의 비율이 30.6%로 높고, 연도별로는 '4박 5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
- 귀성 또는 여행 예정지역
 - '영남권'이 31.7%로 가장 높고, '호남권' (20.3%), '충청권' (18.1%) 순으로 나타남
 - 해외여행 비율 증가 : 1.7%('15) → 3.1%('16)

-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 ‘휴식을 위한 황금연휴라서’가 53.4%로 가장 많고, ‘여름휴가를 못가서’(19.0%),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해’(13.8%) 등임
- 이용교통수단
 - ‘자가용’(83.9%)이 가장 높고, ‘버스’(6.0%), ‘열차’(4.3%) 순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자가용이 감소하고, 비행기의 비율이 증가함
 - 고속철도(KTX) 이용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로 나타남
- 이용고속도로
 - ‘경부선’(30.4%), ‘서해안선’(14.4%), ‘호남선’(10.3%) 순
 - 연도별로는 ‘호남선’, ‘중부선’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경부선’의 비율은 감소함
- 자가용 보유가구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 이용 이유로는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70.0%)이며, 자가용 보유함에도 대중교통 이용 이유로는 ‘대안수단 부재’(42.0%) 때문임
- 동행인 수
 - 올해(2016년) 동행인 수는 자가용 평균 3.6명, 대중교통 평균 3.0명으로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자가용의 평균 동행인원이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평균 동행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 : 3.7명(’15) → 3.6명(’16), 대중교통 : 2.9명(’15) → 3.0명(’16)
 - 연도별로는 2014년 이후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동행인 수 ‘4명 이상’은 감소하고, ‘2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별초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57.2%가 별초를 하며, 별초 시기로는 ‘추석 연휴 2주전’(48.3%)이 가장 많음
 - 별초 시기는 전년(2015년)대비 ‘추석 연휴 3주 이전’이 감소함
- 성묘 여부 및 시기
 - 응답자의 67.6%가 성묘를 하며, 시기는 ‘추석 연휴’(52.9%)가 가장 많음
 - 전년(2015년)과 비교하여 ‘추석 연휴’(56.8%→52.9%)에 성묘를 예정하고 있는 응답자가 감소함
- 교통비용
 - 올해(2016년) 교통비용은 평균 1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함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및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비율은 57.7%이며, 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출발 중, 이동 중 각각 63.1%, 59.7%)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처가/친정 방문여부 및 방문일
 -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0.0%로 출발일은 ‘9월 15일(목, 추석 당일)’이 가장 많음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점
 -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이 31.7%로 가장 높고, 이는 ‘남자’(10.9%) 대비 ‘여자’(40.4%)의 응답률이 높음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졸음운전’이 30.1%로 가장 높음

나.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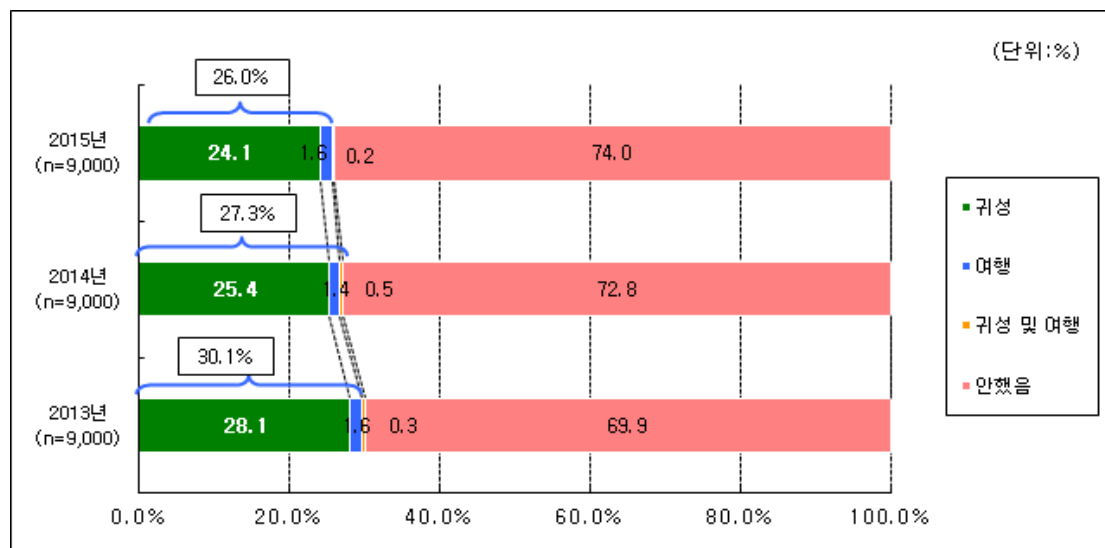
1)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및 여행 여부

- 작년(2015년)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및 여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6.0%가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4- 4>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했음	합계
2015년	비율	24.1	1.6	0.2	74.0	100.0
	빈도	2,172	144	21	6,663	9,000
2014년	비율	25.4	1.4	0.5	72.8	100.0
	빈도	2,284	123	45	6,548	9,000
2013년	비율	28.1	1.6	0.3	69.9	100.0
	빈도	2,533	147	30	6,290	9,000



<그림 4 -1>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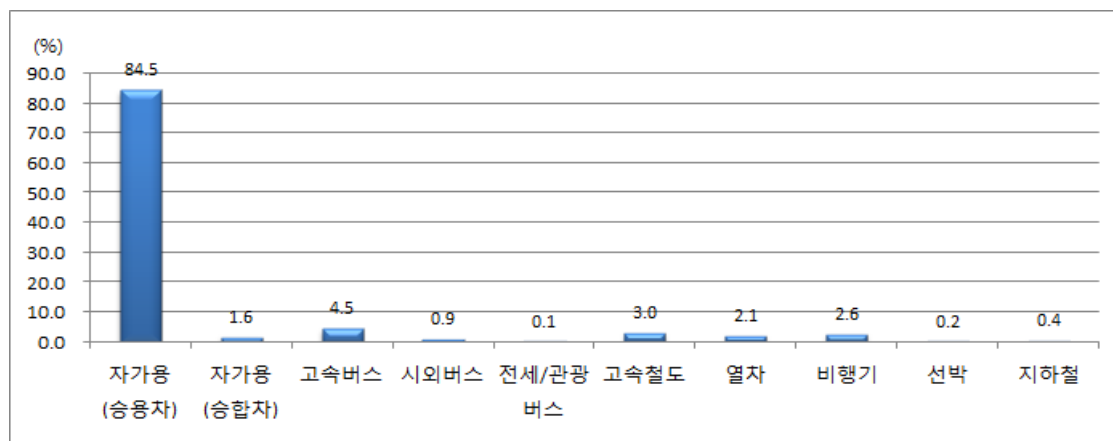
2)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 작년(2015년) 추석 연휴 기간에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주 이용 교통수단은 ‘자가용 (86.1%, 승용차 84.5%+승합차 1.6%)’이며, 다음으로 ‘버스(5.5%)’, ‘열차(5.1%)’, ‘비행기 (2.6%)’ 순임

<표 4- 5>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승합차)	고속 버스	시외 버스	전세/ 관광 버스	고속 철도	열차	비행기	선박	지하철	합계
전체	비율	84.5	1.6	4.5	0.9	0.1	3.0	2.1	2.6	0.2	0.4	100.0
	빈도	1,975	38	105	21	3	70	50	60	4	10	2,336



<그림 4- 2> 작년(2015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

다. 올해(2016년) 추석 귀성 및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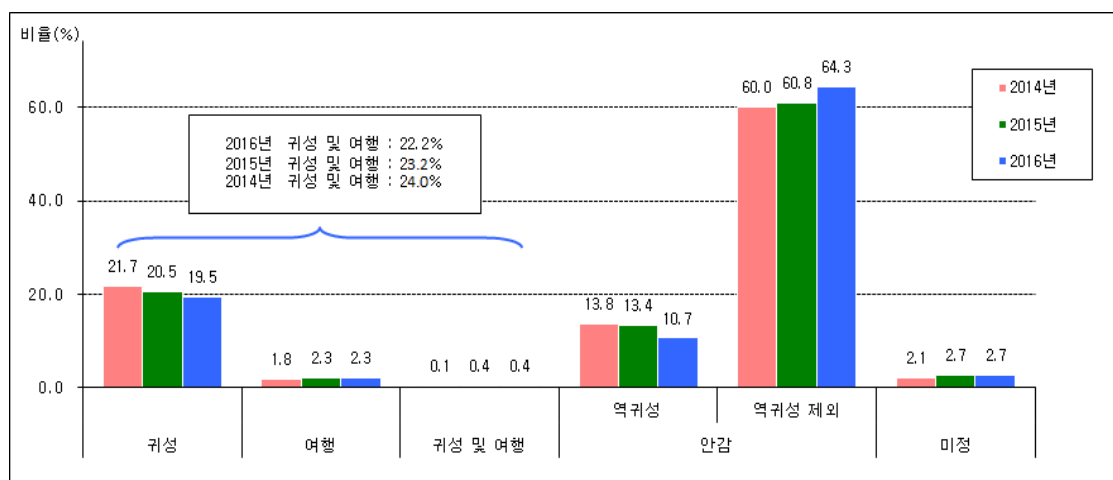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여행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의 22.2%가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구’ 중 10.7%는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임
- 추석 귀성 또는 여행여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귀성 및 여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남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역귀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표 4- 6>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여행	귀성 및 여행	안감		미정	합계
					역귀성 ^{주)}	역귀성 제외		
2016년	비율	19.5	2.3	0.4	10.7	64.3	2.7	100.0
	빈도	1,757	209	34	964	5,780	242	9,000
2015년	비율	20.5	2.3	0.4	13.4	60.8	2.7	100.0
	빈도	1,848	203	33	1,204	5,470	242	9,000
2014년	비율	21.7	1.8	0.5	13.8	60.0	2.1	100.0
	빈도	1,956	165	42	1,246	5,400	191	9,000

주: 2014년~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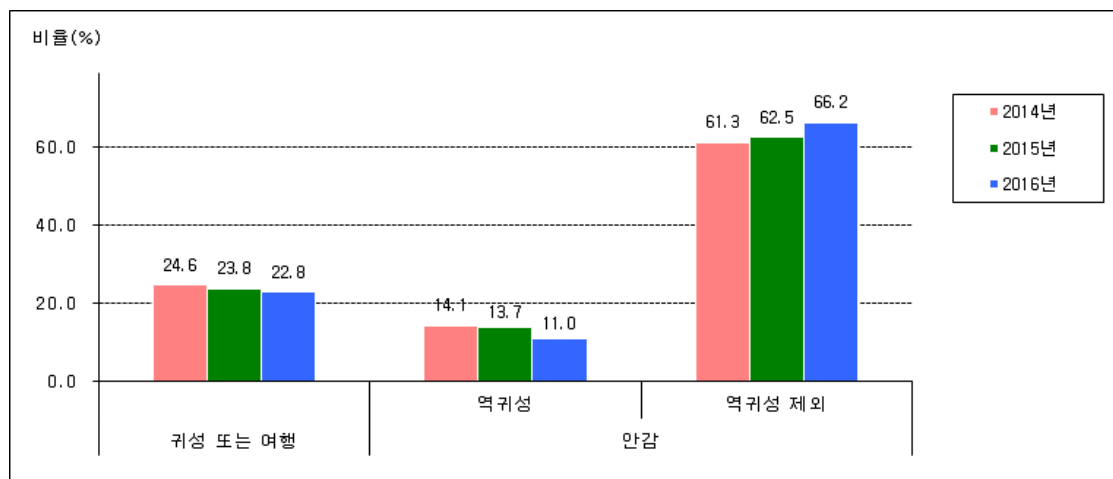
<그림 4-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연도별)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미정’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성 또는 여행’은 22.8%이며, 역귀성은 11.0%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귀성 또는 여행’, ‘역귀성’ 비율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임

<표 4-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귀성 또는 여행	안감		합계
			역귀성	역귀성 제외	
2016년	비율	22.8	11.0	66.2	100.0
	빈도	2,000	964	5,794	8,758
2015년	비율	23.8	13.7	62.5	100.0
	빈도	2,084	1,204	5,470	8,758
2014년	비율	24.6	14.1	61.3	100.0
	빈도	2,163	1,246	5,400	8,809



<그림 4-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 여부 - 미정제외(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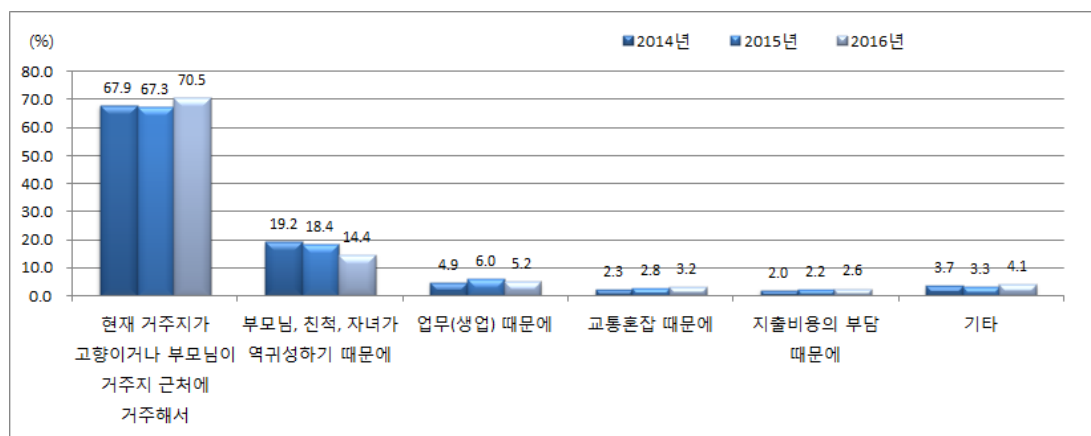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해서’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14.4%)’, ‘업무(생업) 때문에(5.2%)’, ‘교통혼잡 때문에(3.2%)’ 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교통혼잡 때문에’,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는 증가추세를 보임

<표 4-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업무 (생업) 때문에	교통 혼잡 때문에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70.5	14.4	5.2	3.2	2.6	4.1	100.0
	빈도	4,713	964	349	217	170	270	6,683
2015년	비율	67.3	18.4	6.0	2.8	2.2	3.3	100.0
	빈도	4,404	1,204	395	182	143	213	6,541
2014년	비율	67.9	19.2	4.9	2.3	2.0	3.7	100.0
	빈도	4,389	1,246	319	148	128	245	6,475



<그림 4-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이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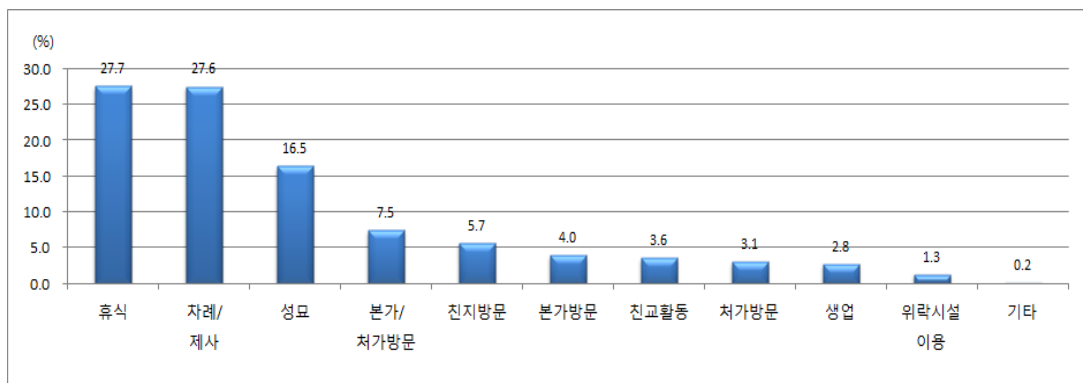
3)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응답자의 추석 연휴 계획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휴식’이 27.7%로 가장 많았고, ‘차례/제사’ (27.6%), ‘성묘’ (16.5%) 등의 순임

<표 4- 9>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휴식	차례/ 제사	성묘	본가/ 처가 방문	친지 방문	본가 방문	친교 활동	처가 방문	생업	위락 시설 이용	기타	합계
비율	27.7	27.6	16.5	7.5	5.7	4.0	3.6	3.1	2.8	1.3	0.2	100.0
빈도	3,857	3,848	2,293	1,043	792	562	507	432	393	179	33	6,954



<그림 4- 6> 귀성 및 여행을 가지 않는 경우 추석 연휴 계획

4) 추석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

- 추석 연휴 기간 중 다른 가족(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역귀성 비율이 감소추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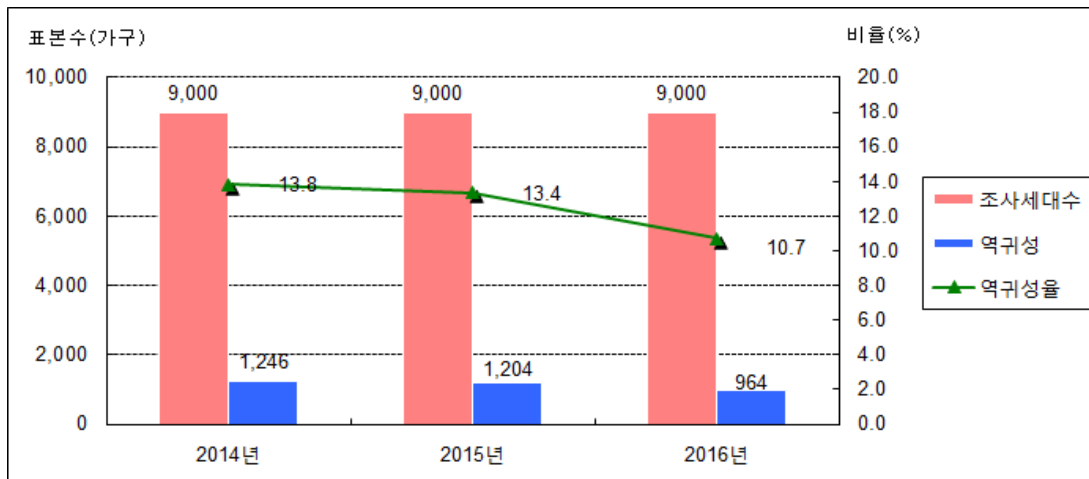
<표 4-10>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조사 세대수	역귀성 ¹⁾	역귀성 비율 ²⁾
2016년	빈도	9,000	964	10.7
2015년	빈도	9,000	1,204	13.4
2014년	빈도	9,000	1,246	13.8

주: 1) ‘올해(2016)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

2)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 하기 때문에’의 응답 표본과 ‘조사 세대수’의 백분율 값으로 전체 조사 세대수 중 역귀성 응답자의 비율임.



<그림 4-7> 다른 가족들(부모님, 친척, 자녀)의 역귀성 여부(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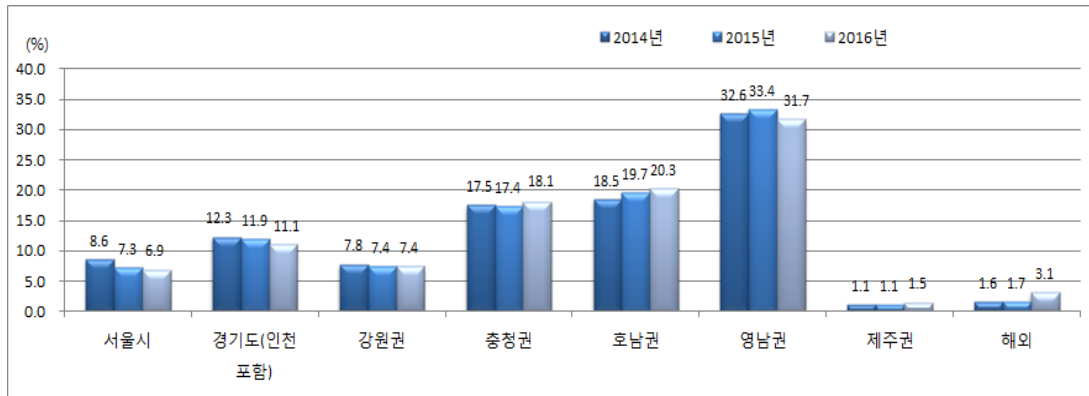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¹⁰⁾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지역은 ‘영남권’이 31.7%로 가장 높고, ‘호남권’ 20.3%, ‘충청권’ 18.1% 순임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 지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충청권’, ‘호남권’의 비율이 201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서울시’, ‘경기도(인천포함)’의 비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남

<표 4-1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서울시	경기도 (인천 포함)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해외	합계
2016년	비율	6.9	11.1	7.4	18.1	20.3	31.7	1.5	3.1	100.0
	빈도	134	214	142	349	392	611	28	60	1,930
2015년	비율	7.3	11.9	7.4	17.4	19.7	33.4	1.1	1.7	100.0
	빈도	152	247	154	360	407	691	23	36	2,070
2014년	비율	8.6	12.3	7.8	17.5	18.5	32.6	1.1	1.6	100.0
	빈도	185	264	167	377	399	702	24	35	2,153

10) 여행지역은 ‘1차 지역’ 기준으로 작성됨



<그림 4- 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지역(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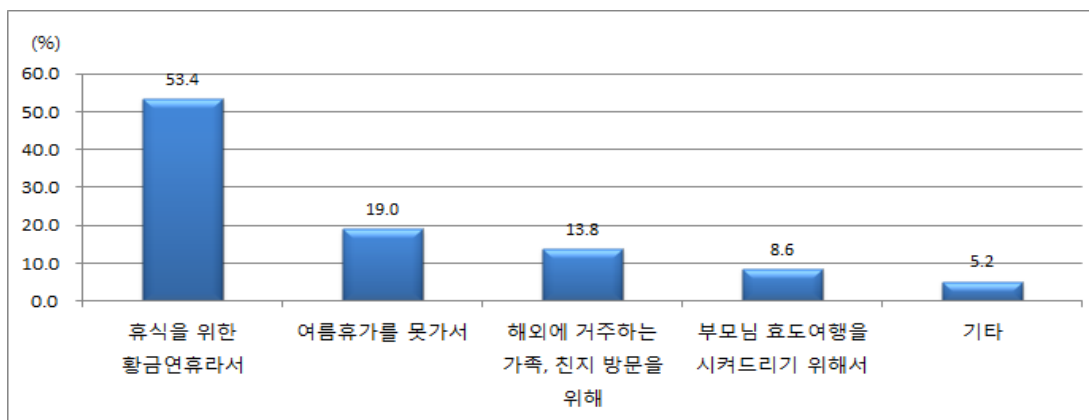
6)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휴식을 위한 황금연휴라서’가 53.4%로 가장 많고, ‘여름휴가를 못가서’ (19.0%),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해’ (13.8%), ‘부모님 효도여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8.6%) 등의 순임

<표 4-12>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휴식을 위한 황금연휴라서	여름휴가를 못가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해	부모님 효도여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53.4	19.0	13.8	8.6	5.2	100.0
	빈도	31	11	8	5	3	58



<그림 4- 9>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예정시기(출발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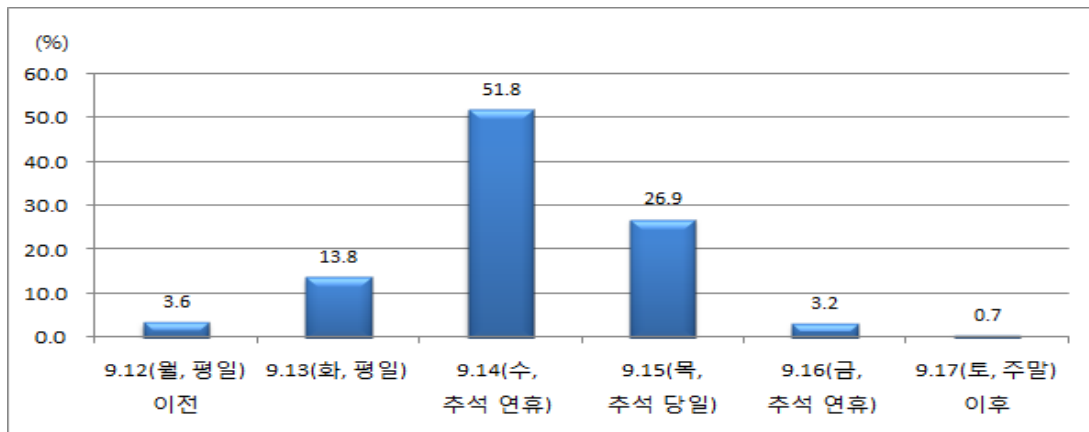
①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일자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 예정일자로 추석 전날인 ‘9월 14일(수)’이 51.8%로 가장 높았고,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 (26.9%), 추석 전전날인 ‘9월 13일(화)’(13.8%) 순임

<표 4-13>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9.12(월, 평일) 이전	9.13(화, 평일)	9.14(수, 추석 연휴)	9.15(목, 추석 당일)	9.16(금, 추석 연휴)	9.17(토, 주말)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3.6	13.8	51.8	26.9	3.2	0.7	100.0
	빈도	60	222	834	434	52	10	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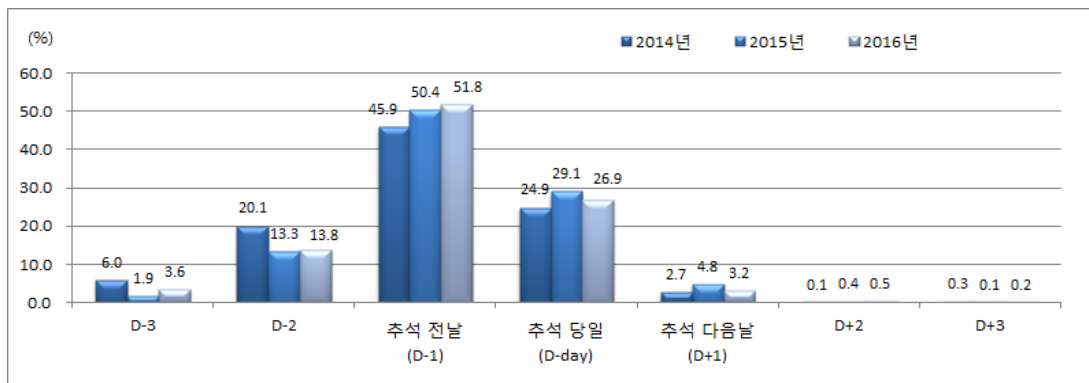
<그림 4-10> 추석 귀성 및 여행시 출발 예정일자

- 출발 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전날’의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임

<표 4-14>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구분		D-3	D-2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D+2	D+3	합계
2016년	비율	3.6	13.8	51.8	26.9	3.2	0.5	0.2	100.0
	빈도	60	222	834	434	52	8	2	1,612
2015년	비율	1.9	13.3	50.4	29.1	4.8	0.4	0.1	100.0
	빈도	34	223	844	487	80	7	2	1,677
2014년	비율	6.0	20.1	45.9	24.9	2.7	0.1	0.3	100.0
	빈도	104	352	806	436	48	1	7	1,754



<그림 4-11>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시 출발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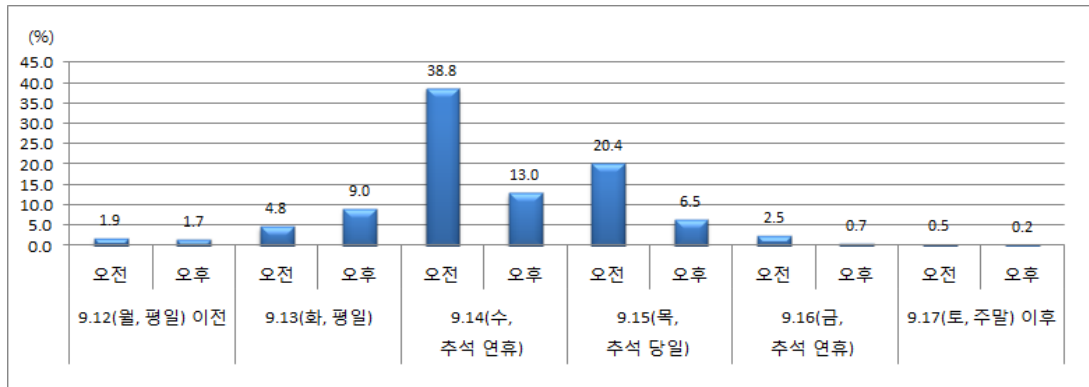
②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14일(수, 추석 연휴) 오전'이 38.8%로 가장 높고, '9월 15일(목, 추석 당일) 오전' (20.4%), '9월 14일(수, 추석 연휴) 오후' (13.0%) 순임

<표 4-15>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12(월, 평일) 이전		9.13(화, 평일)		9.14(수, 추석 연휴)		9.15(목, 추석 당일)		9.16(금, 추석 연휴)		9.17(토, 주말)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1.9	1.7	4.8	9.0	38.8	13.0	20.4	6.5	2.5	0.7	0.5	0.2	100.0
빈도	32	28	77	145	625	209	329	105	40	12	7	3	1,612



<그림 4-12> 귀성(출발)일자 별 시간(오전/오후)대

8)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시기(귀가일자 및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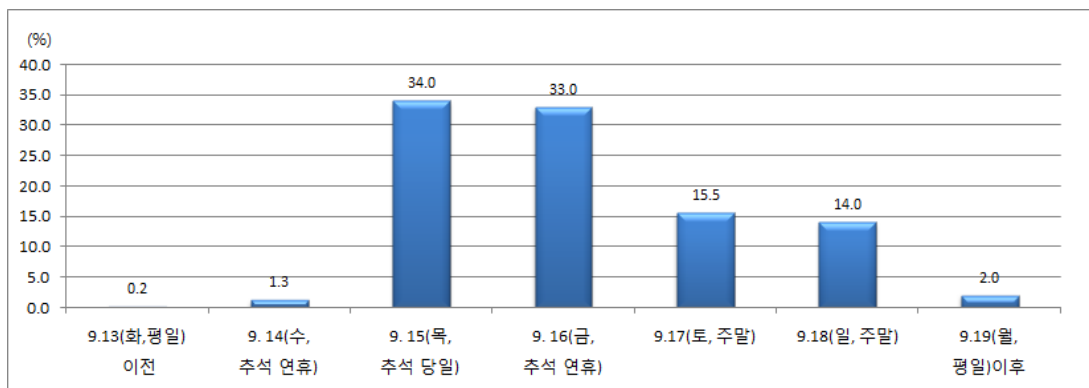
①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일자

- 추석 연휴 기간의 귀가 예정 일자는 추석 당일인 ‘9월 15일(목, 추석 당일)’이 34.0%로 가장 높고, ‘9월 16일(금, 추석 다음날)’ (33.0%), ‘9월 17일(토, 주말)’ (15.5%) 순임

<표 4-16>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13(화, 평일)이전	9. 14(수, 추석 연휴)	9. 15(목, 추석 당일)	9. 16(금, 추석 연휴)	9.17(토, 주말)	9.18(일, 주말)	9.19(월, 평일)이후	합계
2016년	비율	0.2	1.3	34.0	33.0	15.5	14.0	2.0	100.0
	빈도	2	20	515	499	235	212	31	1,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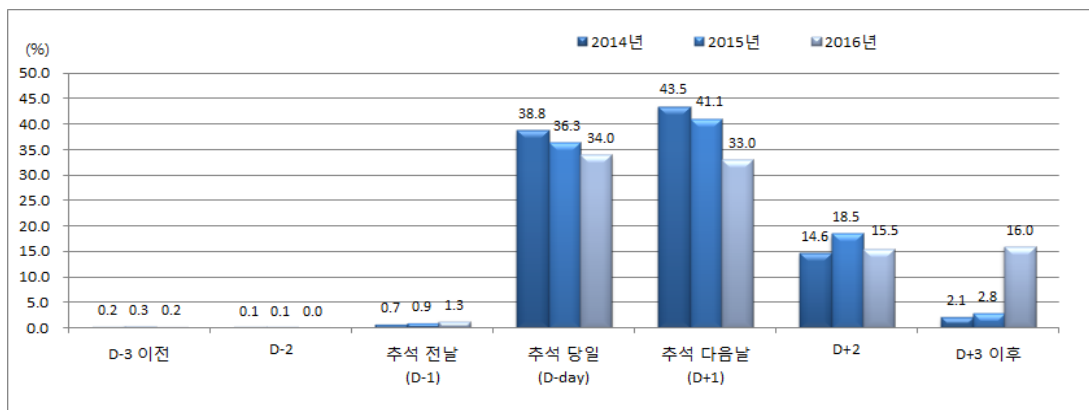
<그림 4-13> 추석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예정일자

- 출발일자를 추석을 기점으로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석 당일’과 ‘추석 다음날’에 귀가하는 비율이 감소추세임

<표 4-17>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D-3 이전	D-2	추석전날 (D-1)	추석당일 (D-day)	추석다음날 (D+1)	D+2	D+3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0.2	-	1.3	34.0	33.0	15.5	16.0	100.0
	빈도	2	-	20	515	499	235	243	1,514
2015년	비율	0.3	0.1	0.9	36.3	41.1	18.5	2.8	100.0
	빈도	5	2	14	564	640	289	43	1,557
2014년	비율	0.2	0.1	0.7	38.8	43.5	14.6	2.1	100.0
	빈도	3	2	13	672	753	253	36	1,732



<그림 4-14> 추석 연휴 기간 중 귀경 또는 여행 후 귀가 시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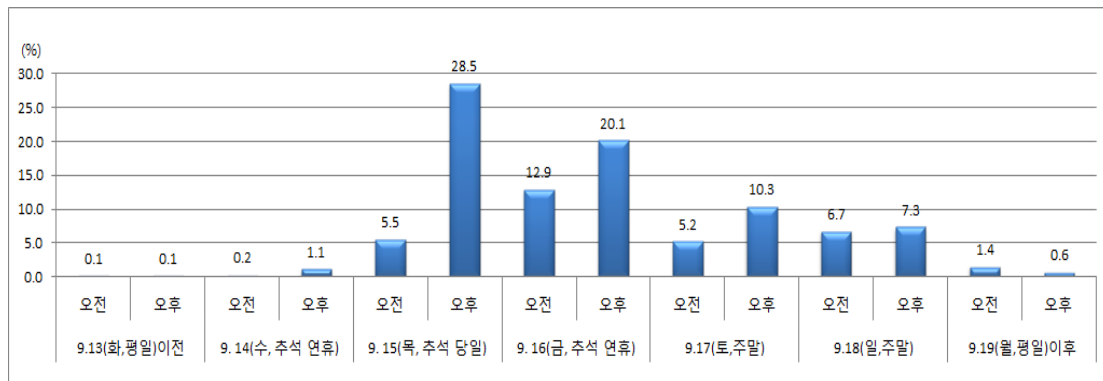
②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 귀가(출발)일자별 시간대를 오전, 오후로 분석해 보면, ‘9월 15일(목, 추석 당일) 오후’가 28.5%로 가장 높고, ‘9월 16일(금, 추석 연휴) 오후’ (20.1%), ‘9월 16일(금, 추석 연휴) 오전’ (12.9%) 순임

<표 4-18>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13(화,평일) 이전		9.14(수, 추석 연휴)		9.15(목, 추석 당일)		9.16(금, 추석 연휴)		9.17(토,주말)		9.18(일,주말)		9.19(월,평일) 이후		합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비율	0.1	0.1	0.2	1.1	5.5	28.5	12.9	20.1	5.2	10.3	6.7	7.3	1.4	0.6	100.0
빈도	1	1	3	17	84	431	195	304	79	156	102	110	21	10	1,514



<그림 4-15> 귀가(출발)일자별 시간(오전/오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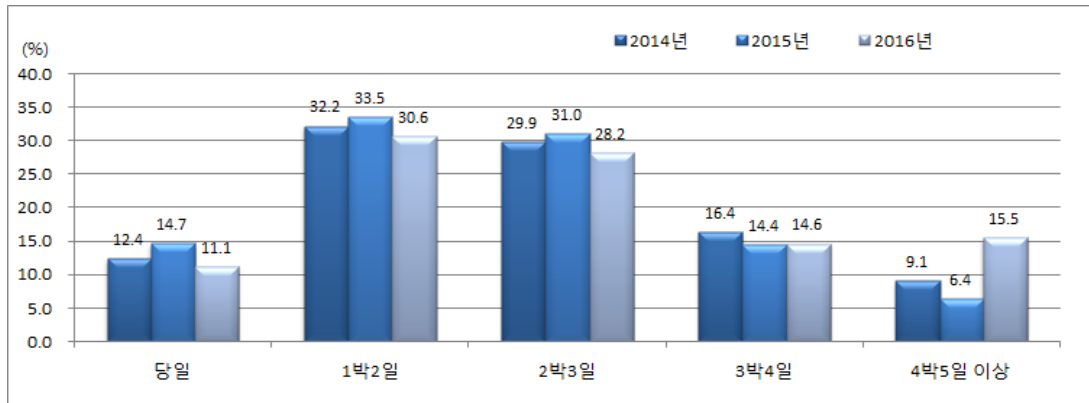
9) 체류일수

- 2016년 체류일수에 따르면, ‘1박 2일’이 30.6%로 가장 높고, ‘2박 3일’ (28.2%), ‘4박 5일 이상’ (15.5%), ‘3박 4일’ (14.6%) 등의 순임
- 2015년 대비 2016년 ‘당일’, ‘1박2일’, ‘2박 3일’의 비율이 감소하고, ‘4박 5일 이상’의 비율이 증가함

<표 4-19> 체류일수(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상	합계
2016년	비율	11.1	30.6	28.2	14.6	15.5	100.0
	빈도	186	515	475	246	261	1,683
2015년	비율	14.7	33.5	31.0	14.4	6.4	100.0
	빈도	253	578	534	248	110	1,723
2014년	비율	12.4	32.2	29.9	16.4	9.1	100.0
	빈도	231	600	556	305	170	1,862



<그림 4-16> 체류일수(연도별)

10)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을 교차분석한 결과,

-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다음날(D+1) 도착하는 비율은 2015년이 22.9%로 가장 높음
- 추석 전날(D-1) 출발하여 추석 당일(D-day)에 도착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추세로 나타남

<표 4-20> 추석 귀성-귀가 출발 예정일자 교차분석

(단위: %)

출발일	도착일	연도별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추석 전날 (D-1)	추석 다음날 (D+1)	20.2	22.9	19.5
추석 전날 (D-1)	추석 당일 (D-day)	20.9	19.3	19.0
추석 당일 (D-day)	추석 당일 (D-day)	10.2	11.9	9.9
추석 전전날 (D-2)	추석 다음날 (D+1)	12.5	5.5	0.4
추석 당일 (D-day)	추석 다음날 (D+1)	9.2	11.5	9.5

라. 주 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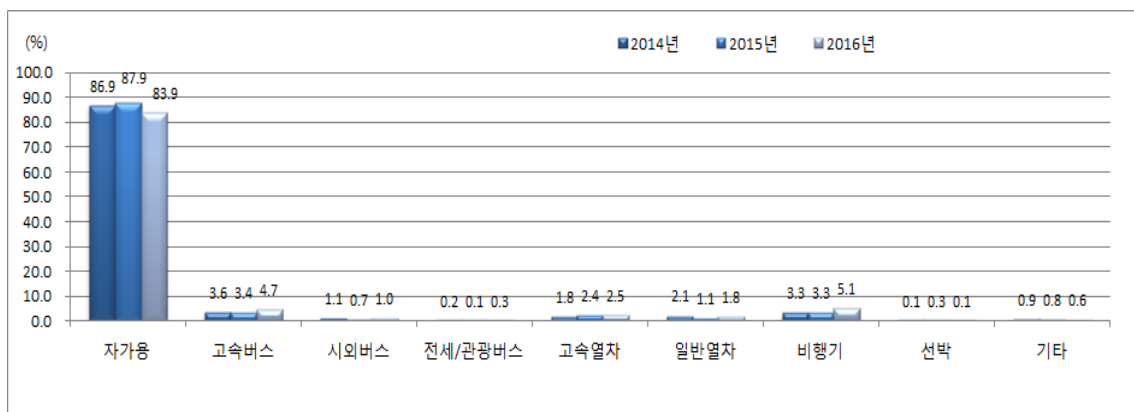
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교통수단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귀성 또는 여행시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승용차+승합차)’가 83.9%로 가장 높았고, ‘버스(6.0%, 고속버스 4.7%+시외버스 1.0%+전세/관광버스 0.3%)’, ‘열차(4.3%, 고속열차 2.5%+일반열차 1.8%)’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자가용이 감소하고, 비행기의 비율이 증가함

<표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자가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관광버스	고속열차	일반열차	비행기	선박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83.9	4.7	1.0	0.3	2.5	1.8	5.1	0.1	0.6	100.0
	빈도	1,667	94	20	6	50	36	102	2	11	1,988
2015년	비율	87.9	3.4	0.7	0.1	2.4	1.1	3.3	0.3	0.8	100.0
	빈도	1,782	68	14	3	49	23	67	5	15	2,026
2014년	비율	86.9	3.6	1.1	0.2	1.8	2.1	3.3	0.1	0.9	100.0
	빈도	1,858	78	23	5	39	45	71	3	16	2,138



<그림 4-17>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교통수단(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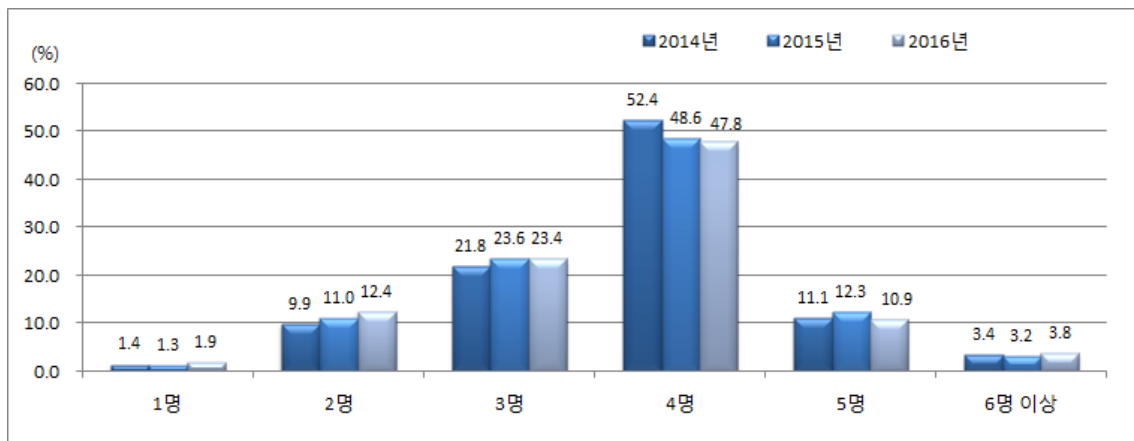
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명’이 47.8%로 가장 높고, ‘3명’(23.4%), ‘2명’(12.4%) 순임
- 2014년 이후 동행인 수 ‘4명 이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6년	비율	1.9	12.4	23.4	47.8	10.9	3.8	100.0
	빈도	31	206	390	796	181	63	1,667
2015년	비율	1.3	11.0	23.6	48.6	12.3	3.2	100.0
	빈도	22	192	411	846	214	54	1,739
2014년	비율	1.4	9.9	21.8	52.4	11.1	3.4	100.0
	빈도	26	181	400	962	204	63	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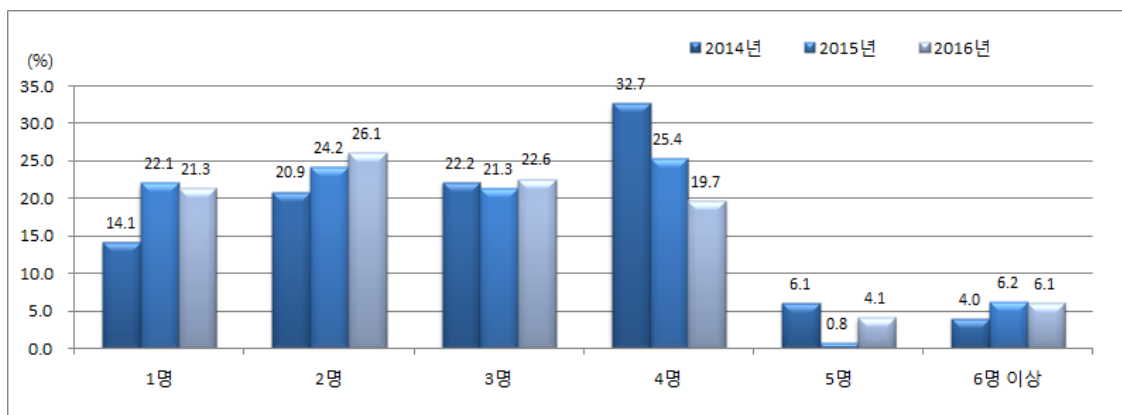
<그림 4-18>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자가용 이용(연도별)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성 또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정 동행인 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명’이 26.1%로 가장 높고, ‘3명’(22.6%), ‘1명’(21.3%) 순임
- 2014년부터 ‘2명’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4명’은 감소추세를 보임

<표 4-2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2016년	비율	21.3	26.1	22.6	19.7	4.1	6.1	100.0
	빈도	67	82	71	62	13	19	314
2015년	비율	22.1	24.2	21.3	25.4	0.8	6.2	100.0
	빈도	53	58	51	61	2	3	228
2014년	비율	14.1	20.9	22.2	32.7	6.1	4.0	100.0
	빈도	42	62	66	97	18	12	297



<그림 4-19>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예정 동행인 수 - 대중교통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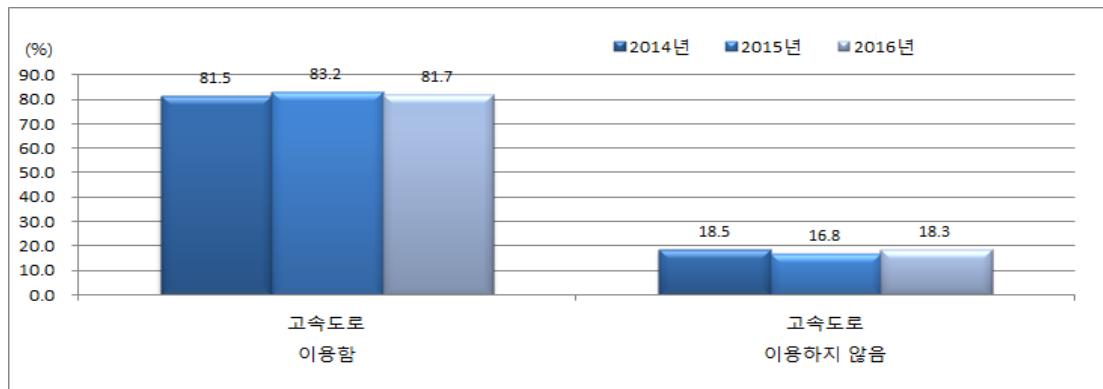
3)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 올해(2016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률은 81.7%로 전년 대비 1.5% 감소함

<표 4-2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고속도로 이용함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음	합계
2016년	비율	81.7	18.3	100.0
	빈도	1,140	256	1,396
2015년	비율	83.2	16.8	100.0
	빈도	1,436	289	1,725
2014년	비율	81.5	18.5	100.0
	빈도	1,506	341	1,847



<그림 4-20>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고속도로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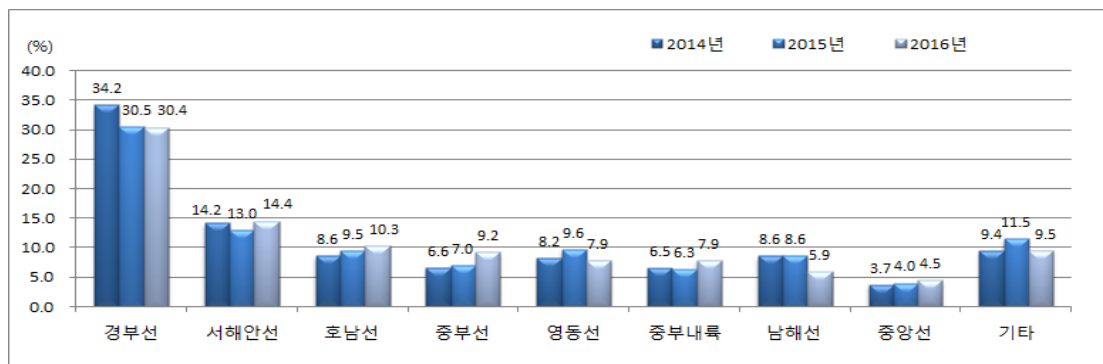
4)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

- 올해(2016년)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할 고속도로로는 ‘경부선’이 30.4%로 가장 높았고, ‘서해안선’ (14.4%), ‘호남선’ (10.3%) 등의 순임
- 연도별로는 ‘호남선’, ‘중부선’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경부선’의 비율은 감소함

<표 4-2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경부선	서해안선	호남선	중부선	영동선	중부 내륙	남해선	중앙선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0.4	14.4	10.3	9.2	7.9	7.9	5.9	4.5	9.5	100.0
	빈도	346	164	117	105	90	90	67	51	110	1,140
2015년	비율	30.5	13.0	9.5	7.0	9.6	6.3	8.6	4.0	11.5	100.0
	빈도	438	187	137	100	138	91	123	57	165	1,436
2014년	비율	34.2	14.2	8.6	6.6	8.2	6.5	8.6	3.7	9.4	100.0
	빈도	515	213	129	100	123	98	130	56	142	1,506



<그림 4-21>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예정 고속도로 노선(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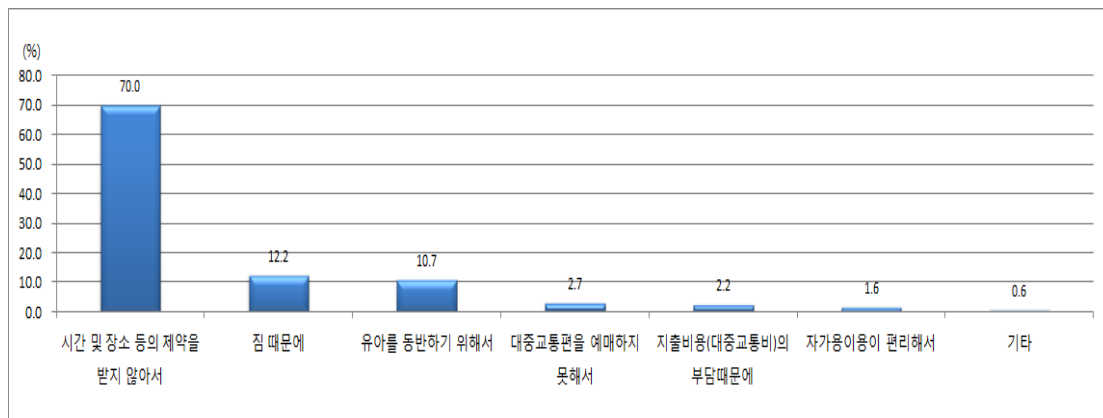
5)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 이유

-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는 이유로는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70.0%), ‘집 때문에(음식물이나 추석선물 등)’ (12.2%),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10.7%) 등으로 나타남

<표 4-26>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집 때문에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70.0	12.2	10.7	2.7	2.2	1.6	0.6	100.0
	빈도	1,162	202	178	46	36	26	11	1,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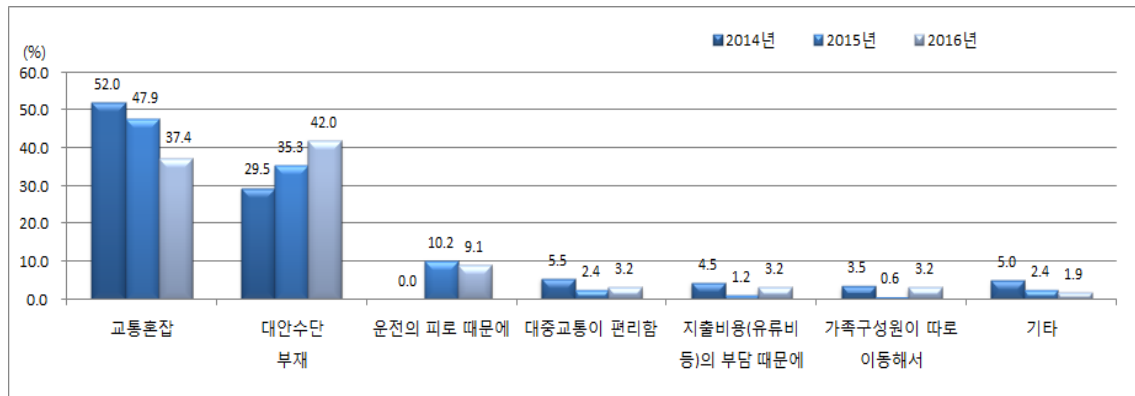
<그림 4-22> 추석 귀성 또는 여행시 자가용 이용 이유

-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대안수단 부재’ (42.0%), ‘교통 혼잡’ (37.4%) 등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등이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대안수단 부재’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음

<표 4-27>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교통혼잡	대안수단 부재	운전의 피로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함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7.4	42.0	9.1	3.2	3.2	3.2	1.9	100.0
	빈도	82	92	20	7	7	7	4	219
2015년	비율	47.9	35.3	10.2	2.4	1.2	0.6	2.4	100.0
	빈도	80	59	17	4	2	1	4	167
2014년	비율	52.0	29.5	-	5.5	4.5	3.5	5.0	100.0
	빈도	104	59	-	11	9	7	10	200



<그림 4-23> 자가용 보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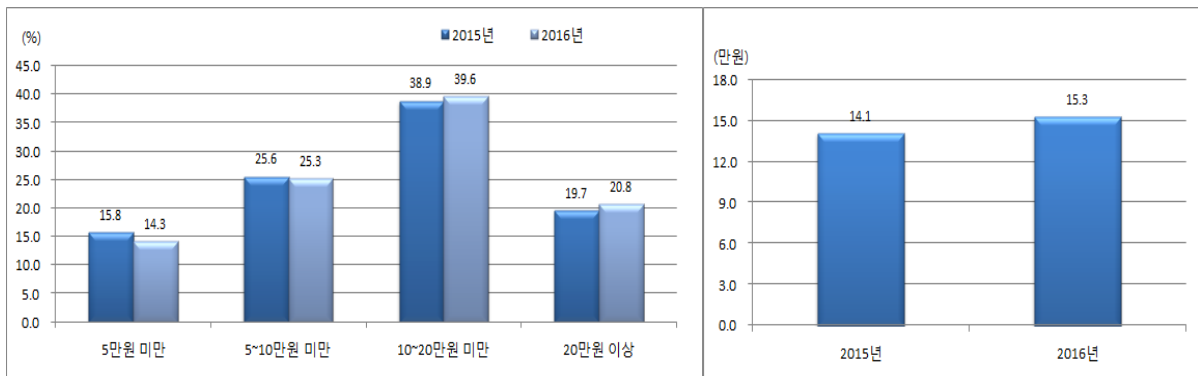
마. 추석 연휴 교통비용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귀성 및 귀경을 위한 왕복 예상 교통비용은 평균 15만 3천원으로 나타나, 작년(2015년) 14만 천원 대비 증가(1만 2천원)한 것으로 조사됨

<표 4-28>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단위: 비율(%), 빈도(명), 평균(만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합계	평균
올해 (2016년)	비율	14.3	25.3	39.6	20.8	100.0	15.3
	빈도	223	395	618	325	1,561	
작년 (2015년)	비율	15.8	25.6	38.9	19.7	100.0	14.1
	빈도	246	399	606	306	1,557	



<그림 4-24> 추석 귀성 및 귀가시 왕복 교통비용 - 전년 비용/올해 비용

바.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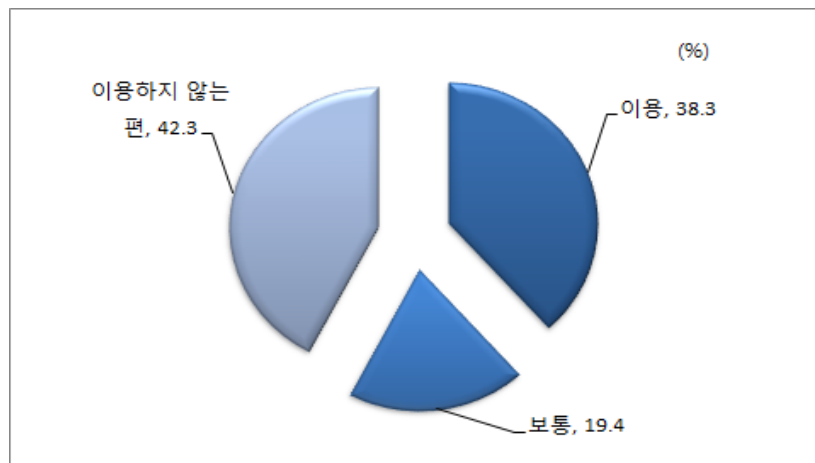
1)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에 따르면, 이용 비율은 57.7%(이용 38.3%+보통 19.4%)로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42.3%로 나타남

<표 4-29>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이용	보통	이용하지 않는 편	합계
2016년	비율	38.3	19.4	42.3	100.0
	빈도	745	376	822	1,943



<그림 4-25>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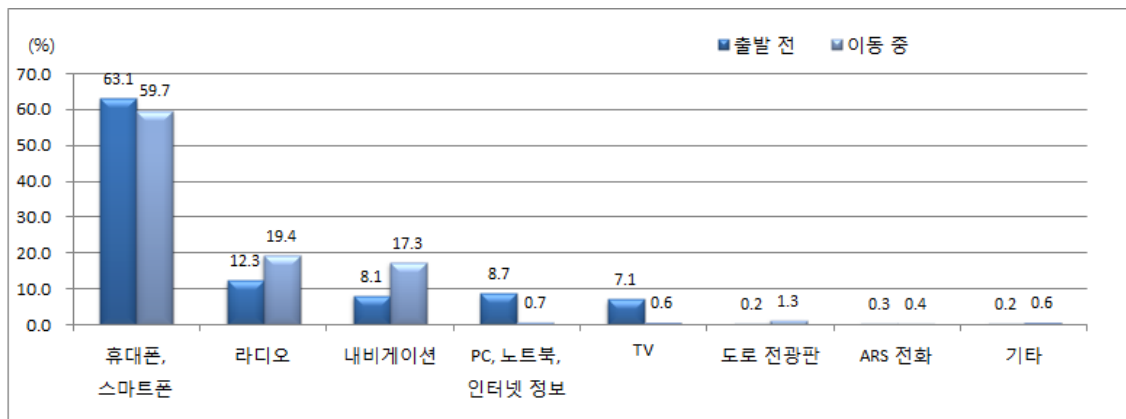
2)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

-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이용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신처를 조사한 결과, 출발 전과 이동 중 모두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각각 63.1%,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발 전에는 이동 중 대비 ‘휴대폰, 스마트폰’, ‘PC, 노트북, 인터넷정보’, ‘TV’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이동 중에는 출발 전 대비 ‘라디오’, ‘내비게이션’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0>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내비 게이션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TV	도로 전광판	ARS 전화	기타	합계
출발 전	비율	63.1	12.3	8.1	8.7	7.1	0.2	0.3	0.2	100.0
	빈도	694	135	89	96	78	2	3	2	1,099
이동 중	비율	59.7	19.4	17.3	0.7	0.6	1.3	0.4	0.6	100.0
	빈도	647	210	187	8	6	14	4	7	1,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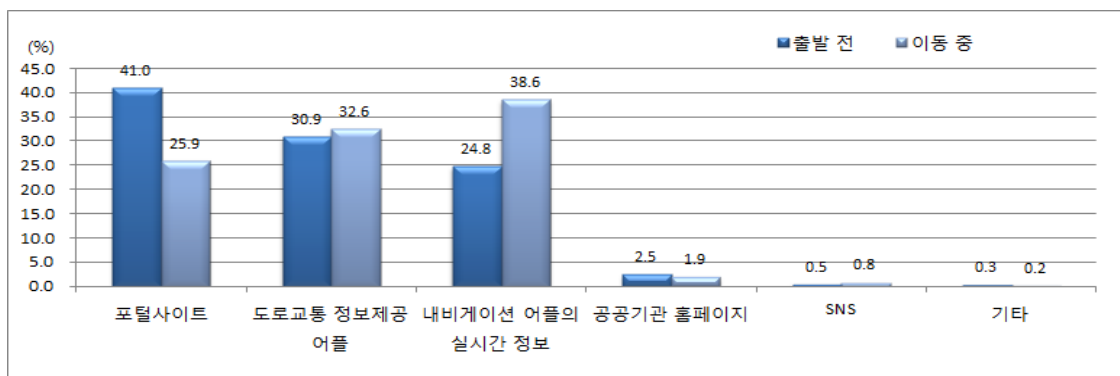
<그림 4-26> 교통상황 안내정보 수신처(출발 전, 이동 중)

- ‘휴대전화, 스마트폰’과 ‘PC, 노트북, 인터넷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수신처를 조사한 결과, 출발 전에는 ‘포털사이트’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고, 이동 중에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3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1>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출발 전, 이동 중)

(단위: 비율(%), 빈도(명))

구 분		포털사이트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내비게이션 어플의 실시간 정보	공공기관 홈페이지	SNS	기타	합계
출발 전	비율	41.0	30.9	24.8	2.5	0.5	0.3	100.0
	빈도	306	231	185	19	4	2	747
이동 중	비율	25.9	32.6	38.6	1.9	0.8	0.2	100.0
	빈도	161	203	240	12	5	1	622



<그림 4-27> 구체적인 정보수신처 - 휴대전화, 스마트폰 이용시(출발 전, 이동 중)

사.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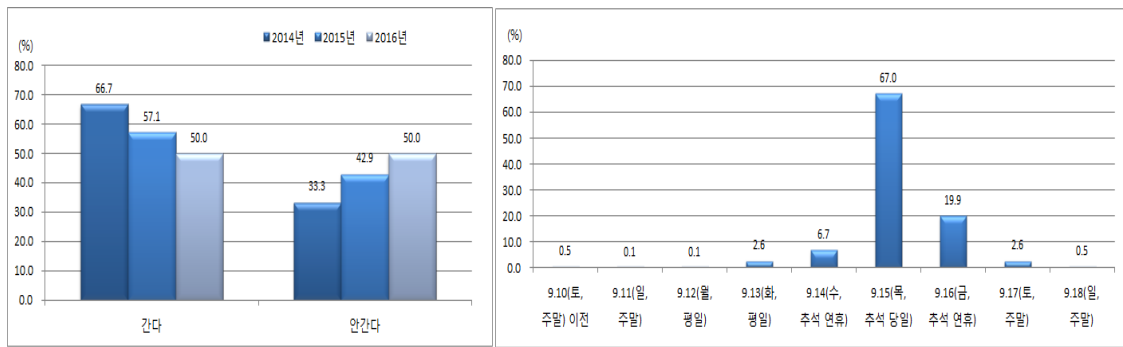
1)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여부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를 방문할 예정인 가구는 50.0%로, 작년(57.1%) 대비 하락함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로의 출발일은 ‘9월 15일(목, 추석 당일)’(67.0%)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9월 16일(금, 추석 연휴)’(19.9%), ‘9월 14일(수, 추석 연휴)’(6.7%)로 나타남

<표 4-32>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예정 일자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9.10 (토, 주말) 이전	9.11(일, 주말)	9.12(월, 평일)	9.13(화, 평일)	9.14(수, 추석 연휴)	9.15(목, 추석 당일)	9.16(금, 추석 연휴)	9.17(토, 주말)	9.18(일, 주말)	합계
전체	비율	0.5	0.1	0.1	2.6	6.7	67.0	19.9	2.6	0.5	100.0
	빈도	4	1	1	19	50	497	148	19	3	742



<그림 4-28> 추석 연휴 기간 중 처가(친정/외가) 방문여부 및 방문 예정 일자

2)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계획

-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계획을 조사한 결과, 성묘를 한다는 응답이 67.6%로 나타났으며, ‘추석 연휴’ 중에 성묘 예정인 응답자가 52.9%, ‘추석 연휴 전’이 40.4%, ‘추석 연휴 이후’가 6.7%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2016년 ‘추석 연휴’에 성묘하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추석 연휴 전’과 ‘추석 연휴 이후’의 비율이 증가함

<표 4-33>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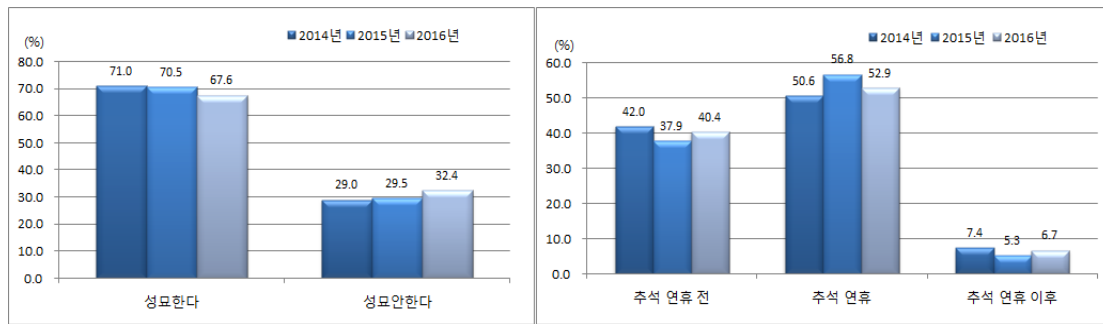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성묘한다	성묘안한다	합계
2016년	비율	67.6	32.4	100.0
	빈도	5,974	2,862	8,836
2015년	비율	70.5	29.5	100.0
	빈도	6,147	2,567	8,714
2014년	비율	71.0	29.0	100.0
	빈도	6,201	2,531	8,732

<표 4-34> 성묘 시기(성묘안함 제외)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추석 연휴 전	추석 연휴	추석 연휴 이후	합계
2016년	비율	40.4	52.9	6.7	100.0
	빈도	2,415	3,160	399	5,974
2015년	비율	37.9	56.8	5.3	100.0
	빈도	2,331	3,490	326	6,147
2014년	비율	42.0	50.6	7.4	100.0
	빈도	2,605	3,135	461	6,201



<그림 4-29> 추석 연휴 기간 중 성모 여부 및 성모시기

3) 벌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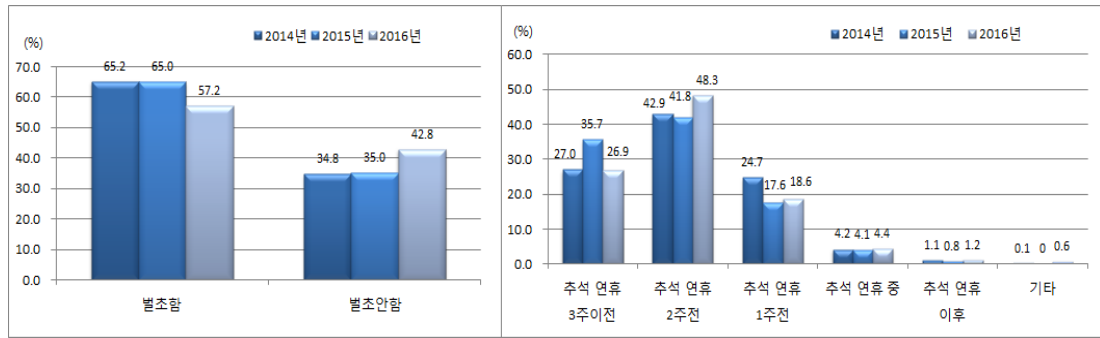
- 벌초계획이 있는 가구는 57.2%로 작년(2015년) 대비 하락(-7.8%)함
- 올해(2016년) 벌초시기를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2주전’ (48.3%)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추석 연휴 3주 이전’ (26.9%), ‘추석 연휴 1주전’ (18.6%) 순으로 벌초는 추석 연휴 이전 (93.8%)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작년(2015년) 대비 ‘추석 연휴 2주 이전’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추석 연휴 3주전’의 비율은 감소함

<표 4-35> 추석 연휴 기간 중 벌초 여부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벌초함	벌초안함	합계
2016년	비율	57.2	42.8	100.0
	빈도	4,502	3,366	7,868
2015년	비율	65.0	35.0	100.0
	빈도	5,722	3,087	8,809
2014년	비율	65.2	34.8	100.0
	빈도	5,775	3,089	8,864

<표 4-36> 벌초시기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추석 연휴 3주 이전	추석 연휴 2주전	추석 연휴 1주전	추석 연휴 중	추석 연휴 이후	기타
2016년	비율	26.9	48.3	18.6	4.4	1.2	0.6
	빈도	1,025	1,839	709	166	46	24
2015년	비율	35.7	41.8	17.6	4.1	0.8	-
	빈도	1,787	2,097	882	205	41	-
2014년	비율	27.0	42.9	24.7	4.2	1.1	0.1
	빈도	1,328	2,115	1,214	208	54	5



<그림 4-30> 추석 연휴 기간 중 별초 여부 및 별초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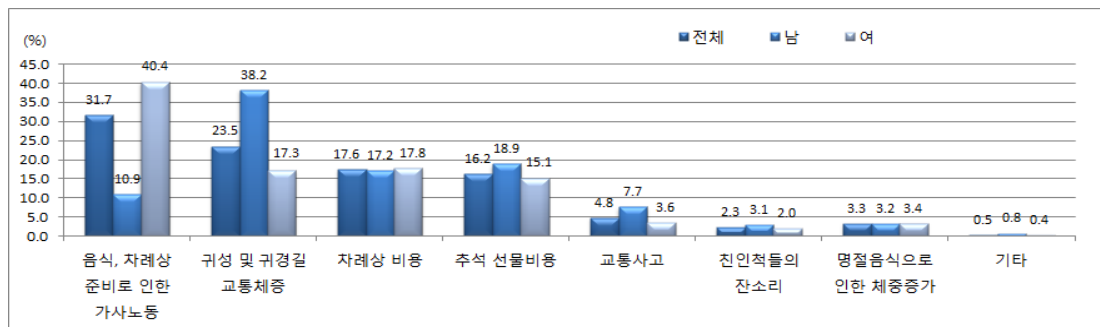
4)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으로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31.7%),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23.5%), ‘차례상 비용’ (17.6%), ‘추석 선물비용’ (16.2%) 등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르면, 여자는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40.4%)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자는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38.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37>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 체증	차례상 비용	추석 선물 비용	교통 사고	친인척 들의 잔소리	명절 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기타	합계	
전체	비율	31.7	23.5	17.6	16.2	4.8	2.3	3.3	0.5	100.0	
	빈도	1,636	1,216	908	839	250	120	173	24	5,166	
성별	남	비율	10.9	38.2	17.2	18.9	7.7	3.1	3.2	0.8	100.0
		빈도	167	586	263	290	118	47	49	13	1,533
	여	비율	40.4	17.3	17.8	15.1	3.6	2.0	3.4	0.4	100.0
		빈도	1,469	630	645	549	132	73	124	11	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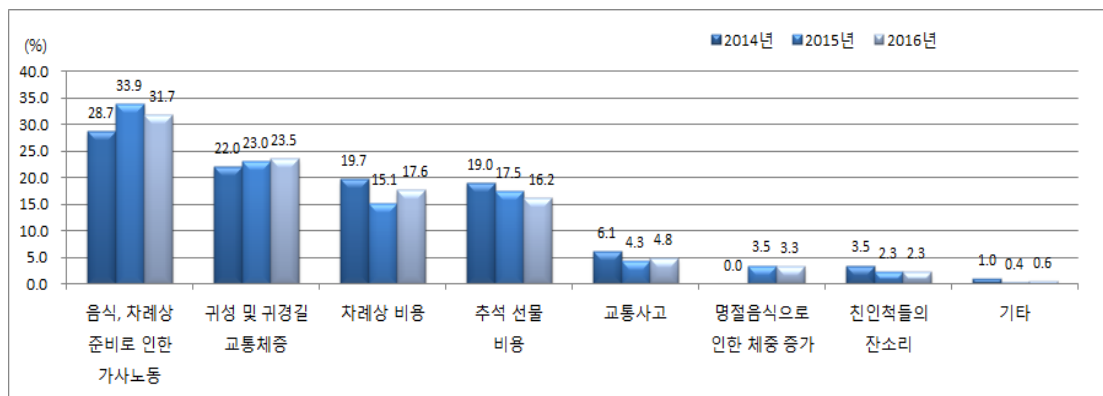
<그림 4-31>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

-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은 증가하였고, ‘추석 선물비용’은 감소함

<표 4-38>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 노동	귀성 및 귀경길 교통 체증	차례상 비용	추석 선물 비용	교통 사고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친인척들의 잔소리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1.7	23.5	17.6	16.2	4.8	3.3	2.3	0.6	100.0
	빈도	1,636	1,216	908	839	250	173	120	24	5,166
2015년	비율	33.9	23.0	15.1	17.5	4.3	3.5	2.3	0.4	100.0
	빈도	1,954	1,326	873	1,009	247	200	134	28	5,771
2014년	비율	28.7	22.0	19.7	19.0	6.1	-	3.5	1.0	100.0
	빈도	1,720	1,318	1,181	1,140	368	-	210	50	5,987



<그림 4-32> 추석을 맞이하여 염려되는 내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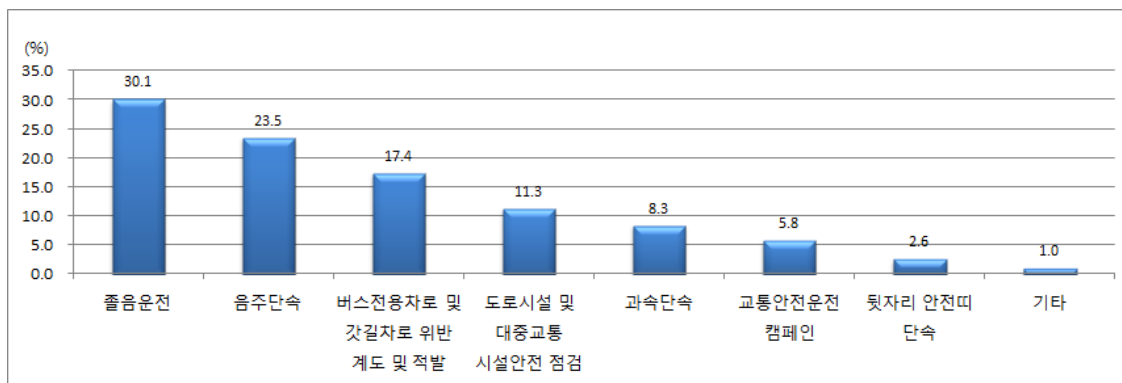
7)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으로는 ‘졸음운전’이 30.1%로 가장 많고, ‘음주 단속’ (23.5%),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17.4%), ‘도로시설 및 대중 교통 시설 안전점검’ (11.3%) 등의 순임

<표 4-39>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졸음운전	음주단속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 점검	과속단속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뒷자리 안전띠 단속	기타	합계
전체	비율	30.1	23.5	17.4	11.3	8.3	5.8	2.6	1.0	100.0
	빈도	2,407	1,881	1,391	907	660	462	211	77	7,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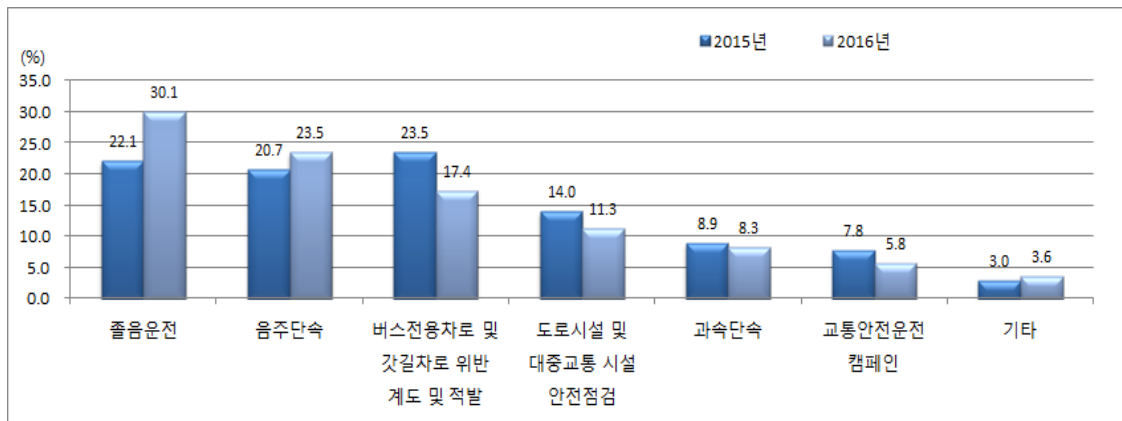
<그림 4-33>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

- 2015년과 비교하면, ‘졸음운전’, ‘음주단속’의 비율이 증가하고,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등은 감소함

<표 4-40>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연도별)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졸음운전	음주단속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계도 및 적발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 점검	과속단속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0.1	23.5	17.4	11.3	8.3	5.8	3.6	100.0
	빈도	2,407	1,881	1,391	907	660	462	246	7,996
2015년	비율	22.1	20.7	23.5	14.0	8.9	7.8	3.0	100.0
	빈도	1,807	1,689	1,923	1,144	730	638	246	8,177



<그림 4-34> 교통안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할 대책(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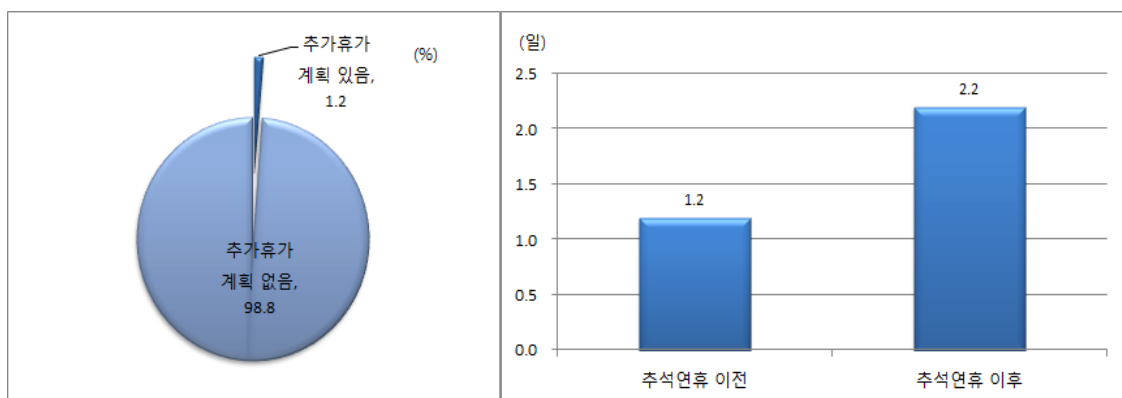
8) 추가휴가 계획

- 추석 연휴 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1.2%(110명)으로 나타남
- ‘추석 연휴 이전 휴가일수’는 평균 1.2일, ‘추석 연휴 이후 휴가일수’는 평균 2.2일임

<표 4-41> 추가휴가 계획

(단위: 비율(%), 빈도(명))

구분		추가휴가 계획 있음	추가휴가 계획 없음	합계
2016년	비율	1.2	98.8	100.0
	빈도	110	8,813	8,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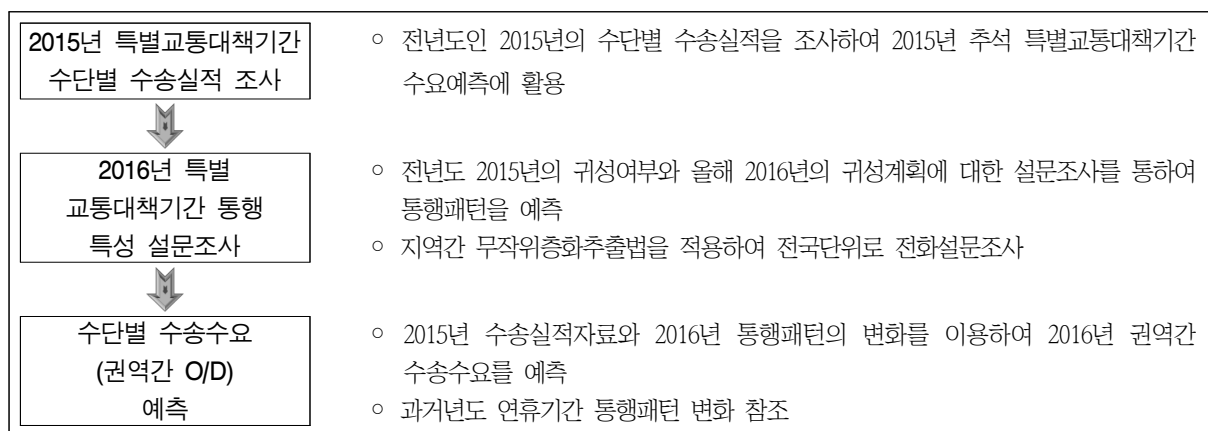


<그림 4-35> 추가휴가 여부 및 일수

제3절 수요예측 방법론 및 수요예측 결과

1.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요예측 방법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6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요예측방법도 기존의 특별교통대책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함
- 통행수요예측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집될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일별 수송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성을 파악함
 - 귀성 및 귀경, 성묘 등 추석 특별 교통수요는 D-1일부터 D+1일에 집중될 것이며, D-2일과 D+2일은 평상시 통행과 귀성통행이 혼재한 것으로 가정함
 - 평상시 통행과 혼재되어 있는 수송실적에서 설문조사에서 산출되는 일자별 귀경비율을 적용하여 귀성 및 귀경 통행을 산출하며, 나머지 통행을 평상시 통행인 것으로 간주함
- 2016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은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6일간 통행과 인접 주말 통행을 구분하여 예측함
 - 연휴기간 포함 6일간 통행은 전년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실적을 기반으로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 성묘 통행 및 친지방문통행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
 - 인접 주말동안의 통행수요는 전년도 수송실적 자료에서 관련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우므로, 과거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주말이 포함된 유사 경우에서 통행패턴과 주말통행특성 조사에 의한 평일 대비 주말통행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함



<그림 4-36>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수요 예측과정

2. 수요예측 결과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6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총 3,752만명, 1일 평균 625만명으로 전망됨
-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621만명/일)에 비해 0.8% 증가하고, 평시(363만명/일)보다 7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객 등이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3.6%, 버스(고속버스+시외·전세버스)가 11.2%, 철도가 4.0%, 항공 0.7%, 해운 0.5%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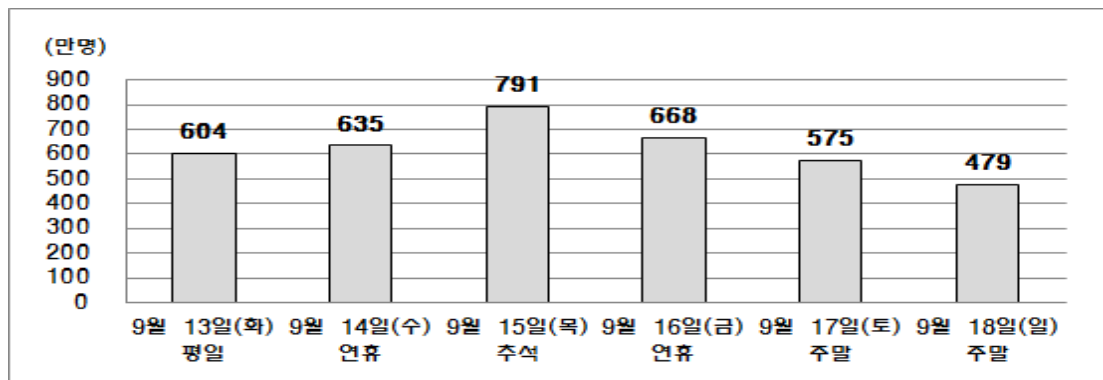
<표 4-42> 2016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통행수요 예측결과(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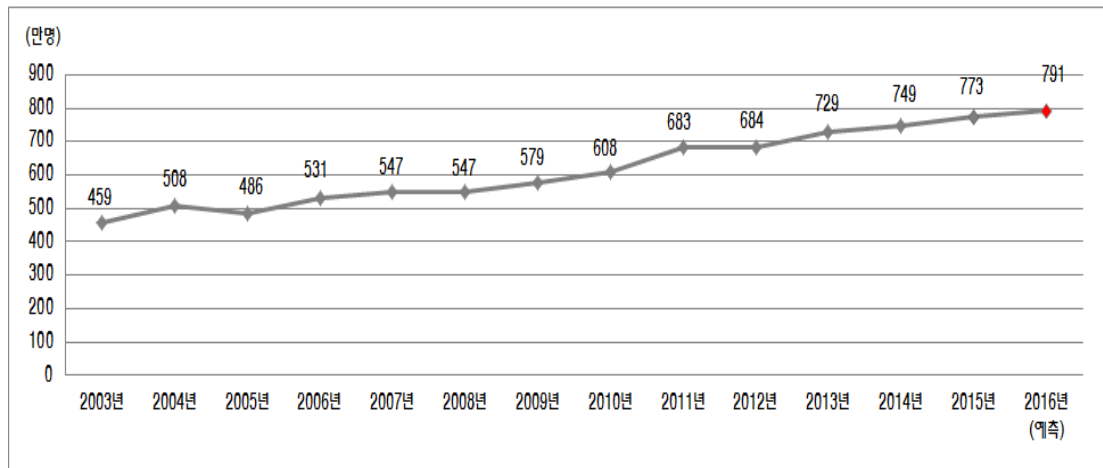
구분 교통수단			평시 1일 수송량	추석 연휴 기간('16.9.13~9.18)			평시대비 (%)
				일평균 이동인원	6일 총 이동인원	분담률 (%)	
도 로	승용차		2,695	5,229	31,376	83.6	194.0
	버 스	고속버스	46	73	436	1.2	158.7
		시외·전세	668	626	3,755	10.0	93.7
철도			164	249	1,491	4.0	151.8
항공			36	45	270	0.7	125.0
해운			18	32	194	0.5	177.8
합계			3,627	6,254	37,522	100.0	172.4

주: 1)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로 한정하였으며, 폐쇄식 구간을 기준으로 함
 2) 수단별 수송실적 자료는 각 기관에서 수집하여 사용함
 3) 과거의 수송실적현황과 추석 연휴 통행패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한 통행수요임

- 1일 최대 이동인원은 9월 15일(추석 당일) 791만명으로 작년 대비(773만명, 9월 27일 추석 당일) 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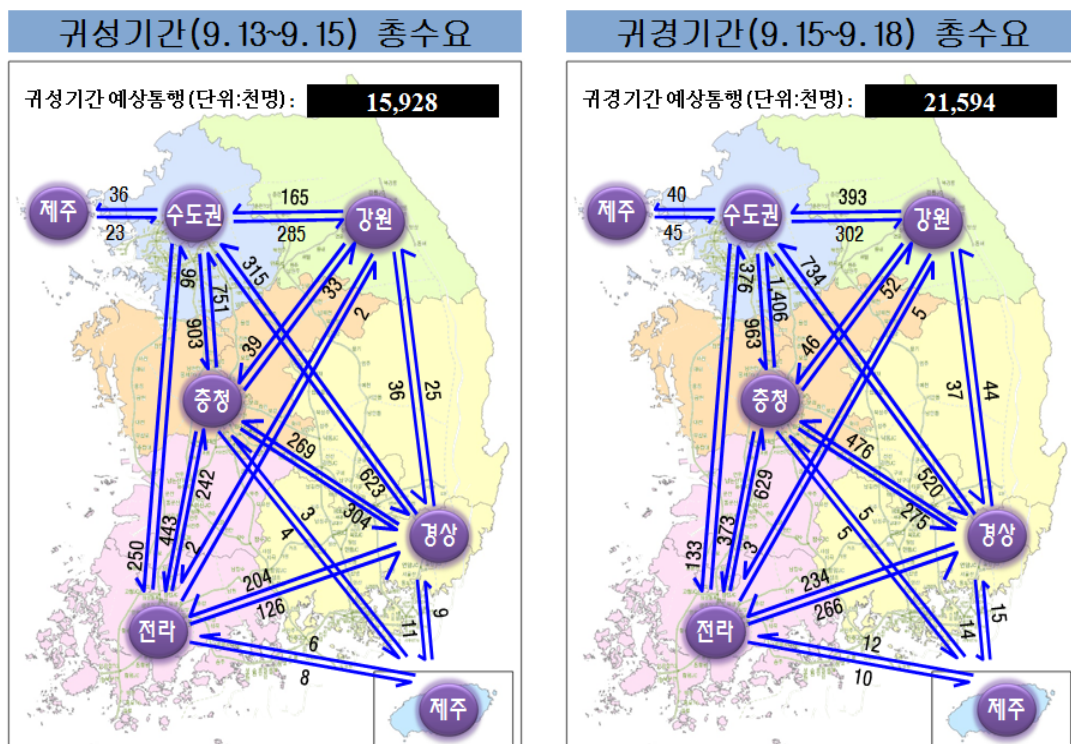


<그림 4-37>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일자별 이동수요(전망)



<그림 4-38>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연도별 하루 최대 이동 추이

-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지역간 이동은 귀성시 1,593만명, 귀경시 2,159만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통행 중 수도권에서 출발하거나 수도권으로 도착하는 통행이 귀성시 42.1%, 귀경시 40.7%를 차지하여 각 권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역의 고속도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그림 4-39> 2016년 추석 귀성, 귀경기간 권역간 통행수요

제4절 사후평가

1. 사후평가 방법론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의 교통수요예측결과와 기간 중 실적자료 간의 비교를 위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완료 이후 집계 가능한 수단별 수송실적을 활용하여 사후평가함
- 수송실적 자료 수집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수송실적 수집 자료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13~9.18, 6일간)의 일별 출발·도착지별 여객 수송실적 및 일별 총 수송실적
-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2. 사후평가 결과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1일 평균 예측치는 5,628천명, 실제 이동인원은 5,388천명으로 104.5%의 정확도로 예측되었으며, 4.5% 과대 예측함
- 교통수단별로는 고속버스의 오차율이 12.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에 2016년 평시보다 82.1% 증가

<표 4-43>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사후평가(시외전세제외)

(단위: 천명)

교통수단	2015년 실적 (일 평균) (A)	2016년 평시 (일 평균) (B)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확도 (E) (C÷D×100) (%)	오차율 ³⁾ (E-100) (%)	전년대비 (D÷A×100) (%)	평시대비 (D÷B×100) (%)
			예 측		실 적					
			1일 평균 (C)	기간 전 체	1일 평균 (D)	기간 전 체				
승용차	5,221	2,695	5,229	31,376	5,010	30,060	104.4	▲4.4	96.0	185.9
고속버스	75	46	73	436	83	500	88.0	▼12.0	110.7	180.4
철도	223	164	249	1,491	221	1,325	112.7	▲12.7	99.1	134.8
항공	39	36	45	270	42	254	107.1	▲7.1	107.7	116.7
해운	31	18	32	194	31	186	103.2	▲3.2	100.0	172.2
전체	5,589	2,959	5,628	33,767	5,388	32,325	104.5	▲4.5	96.4	182.1

주: 1) 대중교통 중 시외·전세버스 실적은 수집이 불가능하여 비교 대상에서 제외

2)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폐쇄식구간 통행에 한함

3) 오차율 : ▲ - 과대예측, ▼ - 과소예측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과제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 본 과업은 하계휴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시와 달리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수단별 특별수송수요를 예측하여 각 기간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특별교통대책
 -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수요예측을 통하여 정부대책을 지원함
 - 설문조사, 수요예측, 특별교통대책을 카드뉴스 및 포스터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특별교통대책의 결과 홍보를 위한 보다자료 수요예측 부문에 있어서도 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 유효표본오차 및 전체표본오차 개선을 위해 유효표본수를 증대시켰으며, 통행시 의사결정권자인 남성의 응답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오후 13시~21시로 조사 시간대를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주말조사를 추가함
 - 또한 과거 20대, 30대 및 40대 응답자 비율이 높은 시간대에 조사원을 보다 더 투입하여 조사 대상에서 다수 누락되었던 맞벌이부부와 가장의 응답률을 높임
 - 조사지침서, 조사원 평가표, 내검 및 코딩가이드, 상담품질관리 가이드 등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화 하였고, 다수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조사표를 삭제·변경·추가하였으며, 조사시기별 추가된 문항은 아래와 같음
 - 2016년 설 연휴¹¹⁾ : 대체공휴일 휴식여부 및 대체공휴일 실시 후 좋은 점, 설 계획이 없는 경우 설 연휴 기간 계획, 설 계획이 있는 경우 설 당일 계획, 출발 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여행) 소요시간, 목적지부터 귀가 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설을 맞이하여 가장 염려되는 내용
 - 2016년 하계휴가철 :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
 - 2016년 추석 연휴 :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 교통상황 안내정보 이용 정도(출발 전,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 획득 경로(출발 전, 이동 중), 성묘 지역,

11)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는 2015년 사업에서 수행되었음

추가적인 휴가계획 여부 및 휴가일수

- 2014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 응답자에게 답례품(경품)을 제공하여 조사 응답률을 증대함
-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부터는 집 전화조사 외에 인터넷 집 전화를 도입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함(하계휴가철 약 900표본, 추석 연휴 약 2,000표본)

○ 교통수요예측방법

-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 사업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년도 특별교통대책기간의 수송실적과 사전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평시 통행과 특별(연휴, 휴가 등) 통행을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함
- 설 및 추석 연휴 특별교통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통행 목적을 평상시 통행, 귀성·귀경통행(역귀성 포함)으로 세분화함. 즉, 평상시 통행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연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귀성 및 귀경통행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전년도 대비 올해의 귀성 비율을 적용함
- 공간적 단위로는 귀성, 귀경 수요 제공시 전국을 6개 권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기종점 통행량을 구축 및 제시함

○ 특별교통대책기간별 교통수요특성

- 하계휴가철 수요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휴가기간의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하계휴가 기간에는 해외, 남해안권 및 제주도 여행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의 귀성 수요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해외 여행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귀경객에 대한 분산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후평가결과

- 특별교통대책기간 이후 특별교통대책 추진결과보고에서 특별교통수요예측결과와 각 수단별 수송실적 집계자료에 의거한 총 수송인원을 비교하여 평가함
- 전체수단 기준(시외·전세버스 제외) 2016년 설 연휴의 경우 2.6%, 2016년 하계휴가의 경우 23.4%, 2016년 추석 연휴의 경우는 4.5%의 오차율을 보임
- 오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단은 설과 하계휴가의 경우 각각 해운(13.0%), 승용차(25.4%), 추석 연휴의 경우 고속버스가 12.0%로 가장 큰 오차를 보임

제2절 향후 과제

-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별교통수요에서 발견되는 통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초자료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승용차 통행의 시·공간적 이동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자료 보완 대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최근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교통정보의 취득 및 활용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우회국도 선택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비게이션, 모바일 자료 및 국도 교통량조사자료가 확보될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예측방법을 도입하여 기존 수요 예측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과거의 통행수요 예측치와 고속도로 TCS 및 하이패스 자료와 같은 수송실적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사전 및 간이조사로 구분하는 현행 방법은 특별교통대책기간보다 30여일 전에 시행되는 사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연말연시, 여름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보완조사로써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간이조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전조사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측된 통행수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사전응답과 실제 결과간의 편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후조사의 표본수를 늘려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가구의 유선전화 보유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터넷 전화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휴대전화 조사를 병행·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 록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언론보도실적 정리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 사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담당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하여 자전거, 여행용가방, 가정용공구세트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1월 6일(수)~10일(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설사연구원 홈페이지 대리 (Tel. 02-66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S/V 확인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작년(2015년) 설 연휴

1. 귀께서는 작년(2015년) 설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안갔음

▶문2로 이동

▶문3으로 이동

1-1. 귀께서 작년 설(2015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⑫ 모름/무응답 (물려주지 말 것)

▶응답문 문2로 이동

Section II. 올해(2016년) 설 연휴 귀성 및 여행

• 올해 설 연휴 기간은 2월 6일(토), 2월 7일(일), 2월 8일(월), 2월 9일(화)이며, 10일(수)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집니다.

2. 귀하께서는 대체공휴일(2월 10일 수요일)에 쉬실 예정입니까?

- ① 예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

2-1. (문2의 ①응답자만) 대체공휴일 실시 후 어떠한 점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향에 오래 머물 수 있어 좋다
② 여행을 할 수 있어 좋다
③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
④ 귀경길의 혼잡이 개선되었다
⑤ 기타)

3. 귀께서는 올해(2016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2016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응답문 문3-4로 이동

3-3. 올해(2016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귀성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1차 귀성지 기준)

- ① 부모님댁 ② 자녀집 ③ 처갓집
④ 큰집 ⑤ 기타()

3-5.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 ① 예 >문4로 이동 ② 아니오 >문3-6으로 이동

3-6. (문3-5의 ②의 응답자만) 귀역에서는 이번 설 연휴에 귀성을 꼭 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응답후 문4로 이동

4. 그럼, 귀역에서는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5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5으로 이동

문3-5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6으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아니오'인 경우 >문6으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③미정'인 경우 >문20으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2016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5의 ③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③ 3-5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6로 이동

4-3. 올해(2016년) 설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5의 ③와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③ 3-5의 ① 문4의 ①응답자는 문6로 이동

>응답후 문6으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응답후 문6으로 이동

SectionⅢ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6.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7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생업) 때문에
⑤ 신정에 다녀와서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20으로 이동

6-1. (문3의 '③미정,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다면 설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6-2. (귀성 및 여행계획이 있는 경우-문3의 ① 문4의 ① 응답자만) 귀하에서는 설 당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7. (문6의 ①응답자만)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7-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7-2	④ 부모님 ⑤ 친지 ⑥ 자녀 ⑦ 없음		
7-3	⑧ 부모님 ⑨ 친지 ⑩ 자녀 ⑪ 없음		

>응답후 문20으로 이동

SectionⅣ. 귀성 및 여행 출발일 및 출발시간

8.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2016년도 설연휴 : 2.8(토) ~ 2.9(일), 2.10(수, 대체공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2.4(목, 평일) 이전 ② 2.5(금, 평일)
③ 2.6(토, 주말) ④ 2.7(일, 설연휴)
⑤ 2.8(월, 설당일) ⑥ 2.9(화, 설연휴)
⑦ 2.10(수, 대체공휴일) ⑧ 2.11(목, 평일)
⑨ 2.12(금, 평일) ⑩ 2.13(토, 주말) 이후
⑪ 미정

9.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9-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⑩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⑪ 10시간 이상

10.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씨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2016년도 설연휴 : 2.6(토) ~ 2.9(화), 2.10(수, 대체공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들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2.4(목, 평일) 이전 ② 2.5(금, 평일)
 ③ 2.6(토, 주말) ④ 2.7(일, 설연휴)
 ⑤ 2.8(월, 설당일) ⑥ 2.9(화, 설연휴)
 ⑦ 2.10(수, 대체공휴일) ⑧ 2.11(목, 평일)
 ⑨ 2.12(금, 평일) ⑩ 2.13(토, 주말) 이후
 ⑪ 미정

11.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미정

11-1.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⑩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⑪ 10시간 이상

Section V.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2. 귀객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객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4로 이동

-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5로 이동

⑩ 렌트카 ▶문14로 이동

⑪ 기타() ▶문15로 이동

⑫ 모름/무응답 (몰라주지 말 것) ▶문14로 이동

14. (문13의 '①자가용(승용차), ②자가용(승합차), ⑩렌트카' 응답자만) 귀객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7로 이동

-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문16으로 이동

15. (문13의 '③'~'⑪'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 ▶문12의 ①응답자는 문18-1로 이동

-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문16으로 이동

16.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⑤ 성인자녀(만 19세 이상)
 ⑥ 기타()

17.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통영-대전)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서울특별시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서울-군위선(경원선)
 ⑫ 당진-상주선(영덕선) ⑬ 서천-공주선 ⑭ 대구-부산선
 ⑮ 기타()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몰라주지 말 것)

▶응답후 문19로 이동

2. 2016년 설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 사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담당원 000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2월 16일(화)~17(수)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시사연구원 총지문 대리(02-66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S/V 확인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않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① 만 19세 미만 **※작성불가능**
② 만 19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69세 이하 ⑦ 만 70세 이상 **※설문종료**

Section I. 올해(2016년) 설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있음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6년)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객에서는 지난 설 연휴기간(2월 6일~7일 10일)을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한 곳만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4-2응답후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4-2응답후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4-2응답후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4-2응답후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4-2응답후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4-2응답후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SectionII 귀성 및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

3. 설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4-1로 이동

- 3-1. (문3의 ①응답자만)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문4-1로 이동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설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정업) 때문에
⑤ 설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문4-1로 이동

- 4-1. (문2의 '④안함' 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하지 않았다면, 설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수)

-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⑫ 모름/무응답

▶응답후 종료

- 4-2. (귀성 및 여행한 경우-문2의 ①⑤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설 당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복수)

-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⑫ 모름/무응답

※ CAT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받을

- 5-1. 올해 설 연휴에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5-2. 올해 설 연휴에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5-3.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5-4. 올해 설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5-5. 귀성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1차 귀성지기준)

- ① 부모님댁 ② 자녀집 ③ 처갓집
④ 큰집 ⑤ 기타()

- 5-6.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SectionⅢ. 귀성 및 여행 출발일 및 출발시간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였습니까?
(※ 2018년도 설연휴 : 2.8(토) ~ 2.9(일), 2.10(수, 대체공휴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2.4(목, 평일) 이전 ② 2.5(금, 평일)
③ 2.6(토, 주말) ④ 2.7(일, 설연휴)
⑤ 2.8(월, 설당일) ⑥ 2.9(화, 설연휴)
⑦ 2.10(수, 대체공휴일) ⑧ 2.11(목, 평일)
⑨ 2.12(금, 평일) ⑩ 2.13(토, 주말) 이후
⑪ 모름/무응답

-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 ① 0시~오전3시 미만 ②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③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②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2.4(목, 평일) 이전 ② 2.5(금, 평일)
 ③ 2.6(토, 주말) ④ 2.7(일, 설연휴)
 ⑤ 2.8(월, 설당일) ⑥ 2.9(화, 설연휴)
 ⑦ 2.10(수, 대체공휴일) ⑧ 2.11(목, 평일)
 ⑨ 2.12(금, 평일) ⑩ 2.13(토, 주말) 이후
 ⑪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②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 ① 0시~오전3시 미만 ③ 오전3시~오전6시 미만
 ② 오전6시~오전9시 미만 ④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⑤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⑥ 오후3시~오후6시 미만
 ⑦ 오후6시~오후9시 미만 ⑧ 오후9시~자정 미만
 ⑨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③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②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⑨ 모름/무응답

10~11.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 ①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⑩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⑪ 10시간 이상 ⑫ 모름/무응답

11.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 ①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9시간 미만 ⑩ 9시간 이상~10시간 미만
 ⑪ 10시간 이상 ⑫ 모름/무응답

Section IV.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2. 귀객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귀객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대중교통 이용**

- ④ 고속버스 ⑤ 지외버스 ⑥ 전세/관광버스
 ⑦ 고속철도(KTX) ⑧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⑨ 비행기 ⑩ 선박

③ **대중교통 이용**

- ④ 렌트카 ⑤ **대중교통 이용**
 ⑥ 기타() ⑦ **대중교통 이용**
 ⑧ 모름/무응답 (올려주지 말 것) ⑨ **대중교통 이용**

13-1. (문1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13-2. (문13의 ①, ② 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13-3. (문12의 ① 응답자 중 문13의 ⑤~⑩ 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운전의 피로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13-4. (문13의 '①②' 자가용' 응답자만) 귀객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이름(로이름)**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이름(로이름)

13-5. (문13의 '③④'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이름(로이름)**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이름(로이름)

13-6. 귀성 및 여행을 함께 다녀온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⑤ 성인자녀(만 19세 이상)
 ⑥ 기타() ⑦ 모름/무응답

14. (문13의 ①, ②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충청-대전) ③ 영동선
 ④ 호남선(전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서울-울진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서울-춘천선(경원선)
 ⑫ 당진-삼주선(영덕선) ⑬ 서천-공주선 ⑭ 대구-부산선
 ⑮ 기타()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몰라주지 말 것)

14-1. (문1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⑥ 모름/무응답

Section V. 설 연휴 교통비용

15. 올해(2016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항목 기준으로 응답받은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6년) 설연휴 교통비용	() 만원
--------------------	--------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⑦ 모름/무응답

15-2.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⑦ 모름/무응답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 사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하계휴가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상담원 000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100분께 압력밥솥, 자전거, 그늘막 텐트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6월 22일(수)~26일(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조사연구팀 (Tel. 02-669-2794)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자정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L. 응답자 성별

※ 밑줄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L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19세 미만과 만 70세 이상은 면접 중단

①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② 만 19세~29세
(※고등학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69세 이하
⑦ 만 70세 이상 **▶면접중단**

Section I. 올해(2016년) 여름 휴가여행

1. 귀객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문1-2로 이동**
② 아니오 **▶문3 응답 후 문5로 이동**
③ 미정 **▶문5로 이동**
④ 이미 다녀옴 **▶문1-2로 이동**

1-1. (문1의 ①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① 04.29(금) 이전 ② 04.30(토) ~ 05.06(금)
③ 05.07(토) ~ 05.13(금) ④ 05.14(토) ~ 05.20(금)
⑤ 05.21(토) ~ 05.27(금) ⑥ 05.28(토) ~ 06.03(금)
⑦ 06.04(토) ~ 06.10(금) ⑧ 06.11(토) ~ 06.17(금)
⑨ 06.18(토) ~ 06.24(금) ⑩ 모름/무응답 (블러uzzi 말 것)

▶응답후 문15로 이동

1-2. 귀객의 가족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

1-2-1. 모든 가족구성원이 함께 여행을 가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귀객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문1의 '②'에 응답자만) 평소 귀객에서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① 6월 이전 ② 7월 초순 ③ 7월 중순
④ 7월 하순 ⑤ 8월 초순 ⑥ 8월 중순 이후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블러uzzi 말 것)

▶응답후 문1로 이동

3. (문1의 '㉔아니오'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병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타 ()
 ㉔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응답후 문16으로 이동

4.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가실 예정입니까?
 (출발 일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정확한 날짜를 모를 경우 몇 주차에 가는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 ① 7.01(금) 이전 ② 7.02(토)~7.08(금)
 ③ 7.09(토)~7.15(금) ④ 7.16(토)~7.22(금)
 ⑤ 7.23(토)~7.29(금) ⑥ 7.30(토)~8.05(금)
 ⑦ 8.06(토)~8.12(금) ⑧ 8.13(토)~8.26(금)
 ⑨ 8.27(토) 이후 ㉔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4-1. ○○(문4번 응답시기)에 여름휴가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의 학원 방학 등에 맞춰
 ② 남들이 많이 쉬어서
 ③ 회사의 휴가시기 권유로 인해
 ④ 그 시기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⑤ 가장 더운 시기여서
 ⑥ 휴가지의 혼잡(성수기)을 피하려고
 ⑦ 기타()

5.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실 계획이십니까?

-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5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 (문6) 여행예정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만약 여행 예정지가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1의 '㉔예'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 ① 국내 ▶문7로 이동 ② 해외 ▶문8로 이동
 ③ 둘다 ▶문7로 이동

7. (문6의 '㉔국내', ③ 응답자만)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떠나실 예정입니까?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	--	-----------	--	--

8. 그럼, 예정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②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 (자연동화형)
 ③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⑥ 기타 ()
 ㉔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Section II. 주이용 교통수단

9.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이용하실 주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9-1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㉔ 렌트카
 ⑩ 기타() ㉔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9-1.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편을 예약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자가용 이용이 편리해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응답후 문10으로 이동

9-2. (문1-3이 ①이며, 문9의 ③~⑥인 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기타()

▶응답후 문10-1로 이동

10.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귀객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11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10-2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문11로 이동**

- 10-1. (문9의 ③~⑩인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명(본인혼자) **▷문12로 이동**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문10-2로 이동

⑪ 모름/무응답 **▷문12로 이동**

- 10-2. (문10-1의 응답이 '③~⑩'인 응답자만)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휴가여행을 가시나요?

① 가족/친지 ② 친구 ③ 직장/단체
④ 연인 ⑤ 가족/친지+친구 ⑥ 친구+연인
⑦ 기타 ()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 중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① 예 **▷문1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로 이동**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2로 이동**

- 11-1. (문11의 '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① 경부선 ② 중부선(통영-대전)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서울-춘천(경춘선)
⑫ 당진-상주선(영덕선) ⑬ 서천-공주선 ⑭ 대구-부산선
⑮ 기타()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1시간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③ 2시간이상~3시간미만 ④ 3시간이상~4시간미만
⑤ 4시간이상~5시간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미만
⑦ 6시간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이상
⑨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SectionⅢ.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3. 올해 여름휴가 여행 출발 및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14. 귀객에서는 평소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14-1로 이동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4-5로 이동

- 14-1.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평소 **여름휴가 여행 출발 전**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14-2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4-2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 14-2. (문14-1의 '⑥'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여름휴가 출발 전**)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 14-3. (문14의 '①②③' 응답자만) 평소 **여름휴가 여행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14-4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4-4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4. (문14-3의 '㉔'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여름휴가 이동 중)

- ①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
 ②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③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등)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14-5. (문14의 ④, ⑤, ⑥ 응답자만) 교통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정체가 없어서
 ② 교통정보를 신뢰하지 않아서
 ③ 평소 다니던 길이라서
 ④ 기타()

14-6. (문9의 ①, ② 응답자만) 여름휴가 중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주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① 정체시 우회도로 이용
 ② 정체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 이용
 ③ 예상되는 상습정체구간의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여 출발
 ④ 대처 방안 없음
 ⑤ 기타()

SectionIV.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

15. 올해(2016년) 예상되는 여름 휴가여행 지출 비용은 얼마입니까?

※ 귀댁의 총 지출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족이 함께 가더라도 귀댁의 지출비용만을 응답바랍니다.

올해(2016년) 총 여름휴가 비용 () 만원

SectionV. 작년(2015년) 여름 휴가여행

16. 귀댁에서는 작년(2015년)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 ① 예 **▶문16-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7로 이동**

16-1. (문16의 ① 응답자만) 그럼, 작년(2015년) 여름 휴가 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 ① 6.30(화) 이전
 ② 7.01(수)~7.03(금)
 ③ 7.04(토)~7.10(금)
 ④ 7.11(토)~7.17(금)
 ⑤ 7.18(토)~7.24(금)
 ⑥ 7.25(토)~7.31(금)
 ⑦ 8.01(토)~8.07(금)
 ⑧ 8.08(토)~8.14(금)
 ⑨ 8.15(토)~8.21(금)
 ⑩ 8.22(토)~8.28(금)
 ⑪ 8.29(토) 이후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7. 귀댁에서는 최근 가족여행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 ① 1개월 이내(6월중) ② 2개월 이내(5월 중)
 ③ 3개월 이내(4월중) ④ 6개월 이내
 ⑤ 1년 이내 ⑥ 기타()

※ 지금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 귀댁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1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16년 하계휴가철 특별교통통행실태 사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하계휴가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담당원 000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8월 11일~12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실사업연구원 (Tel. 02-559-279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S/V 확인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않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교통확정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6년) 여름 휴가여행

※ 문1은 리스트상의 응답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음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③ 미정

2. 귀하께서는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문1의 ① 응답자 **※문2-1로 이동**)
(문1의 ② ③ 응답자 **※문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③ 미정 (문1의 ① 응답자 **※문2-2로 이동**)

2-1. (문1의 ②, ③ → 문2의 ②로 변경된 응답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계획이 없다고(또는 미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물려주지 말 것)

2-2. (문1의 ② → 문2의 ②, ③로 변경된 응답자만)

그런,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 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⑪ 모름/무응답 (물려주지 말 것)

2-3. (문1의 ㉔, ㉕ → 문2의 ㉔, ㉕ 응답자만) 그럼, 여름 휴가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미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3. 그럼,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 정확한 날짜를 모르 경우 몇 주치인지 또는 날짜를 설명하여 응답을 유도함 (주단위로 응답시 날짜 확인필수)

- ① 7.01(금) 이전 ② 7.02(토)~7.08(금)
 ③ 7.09(토)~7.15(금) ④ 7.16(토)~7.22(금)
 ⑤ 7.23(토)~7.29(금) ⑥ 7.30(토)~8.05(금)
 ⑦ 8.06(토)~8.12(금) ⑧ 8.13(토)~8.19(금)
 ⑨ 8.20(토)~8.26(금) ⑩ 8.27(토) 이후
 ⑪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3-1. (문3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⑪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4. 올해 여름 휴가여행은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 ① 당일 ② 1박 2일 ③ 2박 3일
 ④ 3박 4일 ⑤ 4박 5일 ⑥ 5일 이상
 ⑦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4-1. (문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휴가일정 기간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일정 기간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정증정가시	① 생업(사업)상의 문제가 해결됨 ② 휴가비용 문제가 해결됨 ③ 가족 중 학생의 학업문제가 해결 ④ 휴가지의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⑤ 교통편 문제가 해결됨 ⑥ 숙소 문제가 해결됨 ⑦ 건강이 좋아짐 ⑧ 일정조율이 가능해짐 ⑨ 기상여건이 좋아져서 ⑩ 기타 ()
2) 일정감소시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휴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가족 중 학생이 있어서 학업상의 이유로 ④ 휴가지의 교통혼잡 때문에 ⑤ 교통편을 구하지 못해서 ⑥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⑦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⑧ 일정조율이 필요해서 ⑨ 기상여건의 악화 때문에 ⑩ 기타 ()

※ (문5) 휴가 여행지는 국내, 해외를 구분해서 응답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외나 국내가 각각 두 군데 이상일 경우 가장 먼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여름 휴가여행은 국내, 해외 중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 ① 국내 ▶문6으로 이동
 ② 해외 ▶문7로 이동
 ③ 둘 다 ▶문6으로 이동

6. 여름 휴가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주관식으로도 응답받아 코드화)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	-----------	--	--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지 예정지역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여름 휴가여행 지역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교통정체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7. 그럼, 여행하신 휴가 여행지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 ① 바다나 계곡 (바캉스형)
 ②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산림욕 (자연동화형)
 ③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 또는 쇼핑 (도심휴가형)
 ④ 등산 또는 레프팅 (레포츠형)
 ⑤ 교회수련회 등 (종교활동형)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8.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9로 이동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8-1로 이동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주이용 교통수단이 △△△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주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휴가비용의 부담 때문에
② 여행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숙박 예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⑤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상여건 때문에 ⑦ 교통정책 때문에
⑧ 대중교통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⑨ 기타()

9. (문8의 ①, ②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문10으로 이동

9-1. (문8의 ③~⑩인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올해 여름 휴가여행을 함께 다녀오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본인혼자)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이상
⑪ 모름/무응답

▶문12로 이동

10. (문8의 '①승용차', '②승합차' 응답자만) 올해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하셨습니까?

※ 고속도로는 국도/지방도를 제외한 유료도로를 의미

- ① 예 ▶문11로 이동
② 아니오
③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0-1. (문10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고속도로를 이용(또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도로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 (문10의 '①예' 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	()
--------------------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전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선)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⑯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1-1. (문11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여행시 △△△선을 주로 이용 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셨었는데, 이용 노선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타()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 올해 여름휴가 여행시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⑧ 7시간 이상
⑨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SectionⅡ.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3. 올해 여름휴가 여행 출발 및 귀가시 주요 도로 (고속도로, 주요국도)는 어느 정도 혼잡했습니까?

- ① 매우 혼잡 ② 혼잡
③ 보통 ④ 소통원활
⑤ 소통매우 원활 ⑥ 모름/무응답

14. 귀댁에서는 여름휴가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14-1로 이동

-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불러주지 말 것)

▶문15로 이동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설문지

1.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 사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추석 사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랩의 조사담당원 000입니다. **참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감사의 뜻으로 추첨을 통해 자전거, 전기 그릴팬, 가정용 공기세트(수정) 등을 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8월 17일~21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랩 조사연구팀 김성희 과장 (Tel. 02-669-2792)

조지역 Quota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랩의 면접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	------------------------------	--------------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꼭**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작년(2015년) 추석 연휴

1. 귀객에서는 작년(2015년) 추석 연휴에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 ① 귀성 **▶문2로 이동**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안갔음 **▶문3으로 이동**

2. 귀객에서 작년(2015년)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셨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차
⑫ 모뎀/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3으로 이동

Section II.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귀성 및 여행

• 올해 추석연휴 기간은 9월 14일(수), 15일(목), 16일(금)이며, 17일(토), 18일(일)까지 이어집니다.

3. 귀객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귀성 한다 **▶문3-1로 이동**
② 귀성 계획이 없다 **▶문4로 이동**
③ 미정 **▶문4로 이동**

3-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 ① 한 곳 **▶문3-2로 이동**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문3-3으로 이동**

3-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	-----------

3-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3-4. 거주지(출발지)와 귀성지역이 동일한 권역(17개 시도 기준)인가요? (예 : 서울→서울, 경남→경남 등)

- ① 예 ② 아니오
▶문3으로 이동

4. 그럼, 귀책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여행 한다 >문4-1로 이동

② 여행 계획이 없다

문3-4의 응답이 '①예'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4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9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아니오'인 경우 >문7로 이동

문3의 응답이 '②미정'인 경우 >문5으로 이동

4-1. 그럼 몇 곳을 가세요?

① 한 곳 >문4-2로 이동 ② 두 곳 >문4-3으로 이동

③ 세 곳 이상 >문4-3으로 이동

4-2.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	--	-----------	--	--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 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4-3.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입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문3의 ①과 문4의 ①응답자는 문5로 이동

>문3의 ②, ③ 문4의 ①응답자는 문9로 이동

>문3응답후 문9로 이동

5. (문3의 '①귀성 한다'와 문4의 '①여행한다'를 둘 다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귀성을 먼저 가시나요? 여행을 먼저 가시나요?

① 귀성 먼저 간다 ② 여행 먼저 간다

>문3응답후 문9로 이동

6. (문3의 '③미정'을 선택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또는 여행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귀성/여행 할 가능성이 높음

② 귀성/여행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문7-1 응답후 문3으로 이동

7.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그럼,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8 응답후 문9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영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 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문7-1 응답후 문3으로 이동

8. (문3의 '③미정', 문3의 '②없다', 문4의 '②없다' 둘 다 응답한 응답자만) 귀성 또는 여행계획이 없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복수)

① 위락시설 이용 ② 휴식 ③ 친교활동

④ 성묘 ⑤ 생업 ⑥ 친지방문 ⑦ 본지방문

⑧ 처가방문 ⑨ 본가/처가방문 ⑩ 차례/제사

⑪ 기타()

8-1. (문3, 4의 추석 귀성 및 여행지역의 '해외' 응답자 예게만 질문)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휴식을 위한 황금연휴라서

② 여름휴가를 못가서

③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지 방문을 위해

④ 부모님 효도여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⑤ 기타()

9. (문7의 '①응답자만)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신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실 예정입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B-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B-2	①부모님 ②친지 ③자녀 ④없음		
B-3	①부모님 ②친지 ③자녀 ④없음		

>문3응답후 문3으로 이동

10.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2016년도 추석연휴 : 9.14(수) ~ 9.18(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 | |
|------------------|-----------------|
| ① 9.10(토, 주말) 이전 | ⑤ 9.11(일, 주말) |
| ② 9.12(월, 평일) | ⑥ 9.13(화, 평일) |
| ③ 9.14(수, 추석연휴) | ⑦ 9.15(목, 추석당일) |
| ④ 9.16(금, 추석연휴) | ⑧ 9.17(토, 주말) |
| ⑨ 9.18(일, 주말) | ⑩ 9.19(월, 평일) |
| ⑪ 9.20(화, 평일) 이후 | ⑫ 미정 |

11.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0시~오전3시 미만 | ⑤ 오전3시~오전6시 미만 |
| ② 오전6시~오전9시 미만 | ⑥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
| ③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 ⑦ 오후3시~오후6시 미만 |
| ④ 오후6시~오후9시 미만 | ⑧ 오후9시~자정 미만 |
| ⑨ 미정 | |

12.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 | |
|------------------|-----------------|
| ① 9.10(토, 주말) 이전 | ⑤ 9.11(일, 주말) |
| ② 9.12(월, 평일) | ⑥ 9.13(화, 평일) |
| ③ 9.14(수, 추석연휴) | ⑦ 9.15(목, 추석당일) |
| ④ 9.16(금, 추석연휴) | ⑧ 9.17(토, 주말) |
| ⑨ 9.18(일, 주말) | ⑩ 9.19(월, 평일) |
| ⑪ 9.20(화, 평일) 이후 | ⑫ 미정 |

13.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0시~오전3시 미만 | ⑤ 오전3시~오전6시 미만 |
| ② 오전6시~오전9시 미만 | ⑥ 오전9시~오후12시 미만 |
| ③ 오후12시~오후3시 미만 | ⑦ 오후3시~오후6시 미만 |
| ④ 오후6시~오후9시 미만 | ⑧ 오후9시~자정 미만 |
| ⑨ 미정 | |

Section III.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4. 귀객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5. 귀객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6으로 이동

-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고속철도(KTX) ⑦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⑧ 비행기 ⑨ 선박
 ⑩ 렌트카 ⑪ 기타()

▶문16으로 이동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6. (문15의 '①자가용(승용차), ②자가용(승합차), ⑩렌트카' 응답자만) 귀객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문17로 이동

-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문16-2로 이동

16-1. (문15의 '③' ④ ⑥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실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문14의 ① 응답자는 문16으로 이동

-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⑪ 기타()명

▶문16-2로 이동

16-2. 귀성 및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모님(부부) ② 부모님-부(父) ③ 부모님-모(母)
 ④ 미성년 자녀(만19세미만) ⑤ 성인자녀(만19세이상)
 ⑥ 기타()

17. (문15의 ① ② 응답자만)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을 하나만 말씀해주시오.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광주-대구 선(88올림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창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8. (문15의 ① ② 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편을 예약하지 못해서 ③ 짐 때문에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④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19. (문14의 ① 응답자 중 문15의 ③ ④ ⑥ 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운전의 피로 때문에 ⑦ 기타()

Section IV. 추석 연휴 교통비용

20. 올해(2016년) 예상되는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항목 기준으로 응답받을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타(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올해(2016년) 추석 연휴 교통비용 () 만원

Section V. 기타 사항

21. 귀객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입니까?

-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문22로 이동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문21-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문21-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문22로 이동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2로 이동

21-1. (문21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 ① 9.10(토, 주말) 이전 ② 9.11(일, 주말)
 ③ 9.12(월, 평일) ④ 9.13(화, 평일)
 ⑤ 9.14(수, 추석연휴) ⑥ 9.15(목, 추석당일)
 ⑦ 9.16(금, 추석연휴) ⑧ 9.17(토, 주말)
 ⑨ 9.18(일, 주말) ⑩ 9.19(월, 평일)
 ⑪ 9.20(화, 평일) 이후 ⑫ 미정

Section VI.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22. 귀객에서는 평소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문22-1로 이동

-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23으로 이동

22-1. (문22의 '①, ②, ③' 응답자만) 평소 추석 귀성 및 여행 출발 전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22-2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22-2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22-2. (문22-1의 '㉑ ㉓'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추석귀성/여행 출발전)

-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22-3. (문22의 '㉑㉓㉔' 응답자만) 평소 추석 귀성 및 여행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22-4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22-4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22-4. (문22-3의 '㉑ ㉓'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추석귀성/여행 이동중)

- ①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②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③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 문23부터는 귀성 또는 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에게 질문

23. 귀객에서는 성묘를 언제 가십니까?

- ① 추석 연휴 전
 ② 추석 연휴
 ③ 추석 연휴 이후
 ④ 성묘를 가지 않음

23-1. 그렇다면, 귀객에서는 성묘를 어느 지역으로 가십니까?

성묘 지역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	-----------	--	-----------	--	--

24. 귀객에서는 별초를 하십니까?

- ① 한다 >문24-1로 이동
 ② 하지 않는다 >문25로 이동

24-1. (문24의 ①응답자만) 그렇다면 별초는 언제하십니까?

- ① 추석연휴 3주 이전 ② 추석연휴 2주전
 ③ 추석연휴 1주전 ④ 추석연휴 중
 ⑤ 추석연휴 이후 ⑥ 기타()

25. 귀객에서는 올해 추석의 귀성 및 귀경을 위해 연휴 기간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① 예 >문25-1로 이동
 ② 아니오 >문26으로 이동

25-1. 그럼, 계획하신 휴가일 수를 추석 연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추석연휴 이전()일, 추석연휴 이후()일

26. 귀하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가장 염려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음식, 차례상 준비로 인한 가사노동
 ② 귀성 및 귀경길 교통체증
 ③ 차례상 비용 ④ 추석 선물비용
 ⑤ 교통사고 ⑥ 친인척들의 잔소리
 ⑦ 명절음식으로 인한 체중증가
 ⑧ 없음 ⑨ 기타()

27. 이번 추석 명절에 정부에서 교통안전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제도 및 적발
 ② 도로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 안전점검
 ③ 교통안전운전 캠페인 ④ 음주단속
 ⑤ 과속 단속 ⑥ 뒷자리 안전띠 단속
 ⑦ 졸음운전 ⑧ 기타()

Section VII. 응답자 특성

※ 지금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자 특성 분류를 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Q1. 실례지만 귀객의 가족은 본인을 포함해서 총 몇 분이십니까? (총 명)

DQ2. 귀객의 세대주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29세
 ③ 만 30세~39세 ④ 만 40세~49세
 ⑤ 만 50세~59세 ⑥ 만 60세 이상

DQ3. 귀객 세대주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혼여자로 정규직일 경우는 직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전업주부 ⑬ 무직 ⑭ 모름/무응답

2. 2016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통행실태 사후조사 설문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합니다.

2016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중 특별교통통행실태조사

<추석 사후조사>

주 최 : 국토교통부
주 관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템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조사 의뢰를 받은 리서치템의 조사담당원 000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설문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응답해주신 설문항목 중 몇 가지만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 2016년 9월 22일~23일,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기관 : ㈜리서치템, 조사연구원 김성희 과장 (Tel. 02-669-2792)

조사지역 Quota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세종시

본 조사는 리서치템의 면접 거점사원을
중주하여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_____
면접원 ID _____

S/V 확인 _____

Section 0.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응답자 성별

※ 질문하지 말고 적을 것

① 남 ② 여

S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세~29세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부터 조사 진행)
② 만 30세~39세 ③ 만 40세~49세
④ 만 50세~59세 ⑤ 만 60세~69세 이하

Section I. 올해(2016년) 추석 연휴

※ 사전조사 응답내역이 이미 기재되어 있음

1. (사전조사에서 응답 받은) 올해(2016년) 추석 연휴기간 및 주말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 계획 여부 :

① 귀성 ② 여행 ③ 귀성 및 여행
④ 미정 ⑤ 안감

2. 귀객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9.14(수) ~ 16(일)) 이용해 귀성 또는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① 귀성 → Q2-1.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② 여행 → Q2-2.그럼, 몇 곳을 다녀오셨나요?
(① 한 곳, ② 두 곳, ③ 세 곳 이상)
③ 귀성 및 여행 → Q2-3.그럼, 귀성 또는 여행 먼저 가셨나요?
(① 귀성 먼저, ② 여행 먼저)
④ 안감

[※ 조건문]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귀성/여행/귀성 및 여행 => 문2.안감 = 문4.귀성 여행 취소 이유
문1.미정/안감 => 문2.귀성 = 문5-1.귀성지역1 => (다수귀성 조건문) => 문5-1.귀성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여행 = 문5-2.여행지역1 => (다수여행 조건문) => 문5-2.여행지역2
문1.미정/안감 => 문2-3.귀성 여행 우선순위 => 문5-3.귀성 여행 / 문5-4.여행귀성
문1.미정/안감 => 문2.안감 = 문3. 귀성 여행 없는 이유

3.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또는 여행)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정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편향중단

4. 지난달 사전조사와 달리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귀성 또는 여행계획을 취소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척, 자녀가 역귀성하기 때문에 ▶문3-1로 이동
② 현재 거주지가 고향이거나 부모님이 거주지 근처에 거주해서
③ 지출비용의 부담 때문에 ④ 업무(정업) 때문에
⑤ 추석 연휴기간 외에 귀성(또는 여행)
⑥ 교통혼잡 때문에 ⑦ 기타() ⑧ 모름/무응답

▶응답후 편향중단

3-1. (문3, 4의 ㉠응답자만) 다른 가족들이 역귀성을 하셨다면 어느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셨습니까? (* 복수응답 가능)

문	가족 구분	광역시/도 code	시/군/구 code
3-1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3-2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3-3	① 부모님 ② 친지 ③ 자녀 ④ 없음		

▶응답후 면접중단

* CATI시스템의 조건문에 따라 귀성 및 여행지역을 각각 응답 받음

5-1. 귀성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2.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3. 귀성과 여행은 어느 지역으로 다녀오셨습니까?

1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4. 올해 추석 연휴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고 어느 지역으로 귀성을 다녀오셨습니까?

1차 여행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2차 귀성	광역시/도Code		시/군/구Code	

5-5. (문5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또는 여행 지역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이 거주지를 변경해서
 ② 귀성(또는 여행) 다녀오는 순서를 변경해서
 ③ 친가 또는 처가 중 한곳만 다녀와서
 ④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⑤ 지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⑥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6. 귀성(또는 여행)의 출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 추석연휴 : 9.14(수) ~ 9.18(일))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9.10(토, 주말) 이전 ⑧ 9.11(일, 주말)
 ② 9.12(월, 평일) ⑨ 9.13(화, 평일)
 ③ 9.14(수, 추석연휴) ⑩ 9.15(목, 추석당일)
 ④ 9.16(금, 추석연휴) ⑪ 9.17(토, 주말)
 ⑤ 9.18(일, 주말) ⑫ 9.19(월, 평일)
 ⑬ 9.20(화, 평일) 이후 ⑭ 모름/무응답

6-1. (문6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7. 귀성 또는 여행가실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 ① 0시~오전3시 이전 ⑧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②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⑨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③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⑩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④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⑪ 오후9시~자정
 ⑤ 모름/무응답

7-1. (문7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시 출발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 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⑨ 모름/무응답

8. 그럼 귀가시(또는 여행 후) 귀가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 반드시 출발일을 물어보시고, 보기의 일자를 꼭 읽어주세요.

- ① 9.10(토, 주말) 이전 ⑧ 9.11(일, 주말)
 ② 9.12(월, 평일) ⑨ 9.13(화, 평일)
 ③ 9.14(수, 추석연휴) ⑩ 9.15(목, 추석당일)
 ④ 9.16(금, 추석연휴) ⑪ 9.17(토, 주말)
 ⑤ 9.18(일, 주말) ⑫ 9.19(월, 평일)
 ⑬ 9.20(화, 평일) 이후 ⑭ 모름/무응답

8-1. (문8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 날짜가 △△라고 하셨는데, 귀가시 출발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⑤ 기상여건 때문에 ⑥ 기타 ()
 ⑦ 모름/무응답

9. 귀가시(또는 여행 후) 돌아올 때, 출발 시간은 대략 몇 시였습니까?

- ① 0시~오전3시 이전 ⑧ 오전3시~오전6시 이전
 ② 오전6시~오전9시 이전 ⑨ 오전9시~오후12시 이전
 ③ 오후12시~오후3시 이전 ⑩ 오후3시~오후6시 이전
 ④ 오후6시~오후9시 이전 ⑪ 오후9시~자정
 ⑤ 모름/무응답

9-1. (문9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가시 출발시간이 △△△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형업(사업)상의 이유로 ②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③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④ 교통정보 확인후 출발하여
⑤ 교통편 예매로 인하여 ⑥ 일행의 시간에 맞추려고
⑦ 기상여건 때문에 ⑧ 기타 ()
⑨ 모름/무응답

10. 귀하께서는 출발하여서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그리고 목적지로부터 귀가지역까지 소요시간은 각각 얼마가 걸리셨습니까?

10-1. 출발지역부터 목적지까지 귀성 또는 여행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10-2. 목적지부터 귀가지역까지 귀가시 소요시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⑥ 5시간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7시간미만 ⑧ 7시간 이상~8시간 미만
⑨ 8시간 이상

SectionⅡ 주이용 교통수단 및 고속도로

11. 귀댁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2. 귀댁에서 귀성(또는 여행) 및 귀가시 주로 이용하실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승용차) ② 자가용(승합차)

▶문13으로 이동

- ③ 고속버스 ④ 시외버스 ⑤ 전세/관광버스
⑥ 열차/무궁화, 새마을, 관광열차 ⑦ 고속철도(KTX)
⑧ 비행기 ⑨ 선박

▶문11의 ①응답자는 문13-2로 이동

- ⑩ 렌트카 ⑪ 기타 ()
⑫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2-1. (문12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교통수단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주로 이용하신 교통수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
② 지출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⑤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⑥ 대중교통 예매를 못했기 때문에
⑦ 대중교통을 예매하였기 때문에
⑧ 기상여건 때문에 ⑨ 기타 ()
⑩ 모름/무응답

12-2.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성 및 여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중교통편을 예매하지 못해서
② 유아를 동반하기 위해서
③ 짐 때문에
④ 시간 및 장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⑤ 지출비용(대중교통비)의 부담 때문에
⑥ 기타 ()

12-3. (문11의 ①응답자 중 문12의 ③~⑤응답자만)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출비용(유류비 등)의 부담 때문에
② 동행인원의 변경으로 인해
③ 교통 혼잡으로 인해
④ 가족구성원이 따로 이동해서
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서(비행기 이동 등)
⑥ 운전의 피로 때문에
⑦ 기타 ()

13. (문12의 '①자가용, ②자가용(승합차)' 응답자만) 귀댁의 차량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기타 ()명

13-1. (문12의 '③~⑤'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해서 귀성(또는 여행)을 함께 가신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⑦ 7명 ⑧ 8명 ⑨ 9명 ⑩ 10명 기타 ()명

14. (문12의 ①, ②응답자만) 그럼, 고속도로 이용시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한 노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오랫동안(길게) 이용할 노선	()
--------------------	--------------------------

- ① 경부선 ② 중부선 ③ 영동선
④ 호남선(천안-논산선) ⑤ 서해안선 ⑥ 중부내륙선
⑦ 중앙선 ⑧ 남해선 ⑨ 익산-포항선
⑩ 광주-대구선(BB클럽고속도로) ⑪ 경춘선
⑫ 당진-상주선 ⑬ 서천-공주선 ⑭ 미정
⑮ 기타 () ⑯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⑰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4-1. (문14의 응답과 사전조사 응답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용 노선이 △△△라고 하셨는데, 귀성 또는 여행시 이용 노선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통 체증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②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기상여건 때문에 ⑤ 기타 ()
⑥ 모름/무응답

SectionⅢ. 추석 연휴 교통비용

15. 올해(2016년) 귀성 및 귀경(또는 여행)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용은 얼마입니까? (모름/무응답 : 9999)

※ 교통비용은 항목 기준으로 응답받을 → 승용차(유류비+고속도로 통행요금), 기차(대중교통비 즉, 승차권 포함)

문제(2016년) 추석연휴 교통비용 () 만원

15-1.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Delta\Delta\Delta$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15-2. (문15의 응답이 사전조사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질문) 지난달 조사에서는 귀성 및 귀경시 교통비용이 $\Delta\Delta\Delta$ 라고 하셨는데, 귀성 및 귀경을 위한 교통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② 귀성/여행 일정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③ 귀성/여행 지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④ 동행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⑤ 이용 교통수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⑥ 기타 ()

SectionⅥ. 교통상황 안내정보의 이용

16. 귀객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이용
 ② 자주이용
 ③ 보통
 ④ 이용하지 않는편
 ⑤ 전혀 이용하지 않는 편
 ⑥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문16-1로 이동

>문17로 이동

16-1. (문16의 '①②③' 응답자만) 추석 귀성 및 여행 출발 전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16-2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6-2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6-2. (문16-1의 '①,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으셨습니까? (추석귀성/여행 출발전)

-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②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③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④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⑤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⑥ 기타()

16-3. (문16의 '①②③' 응답자만) 추석 귀성 및 여행 이동 중 교통상황 안내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교통정보 수신처)

- ① PC, 노트북 인터넷 정보 >문16-4로 이동
 ② 휴대폰, 스마트폰 >문16-4로 이동
 ③ 라디오 ④ TV ⑤ 신문
 ⑥ 도로 전광판 ⑦ 내비게이션 ⑧ ARS전화
 ⑨ 기타()
 ⑩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6-4. (문16-3의 '①, ②'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얻고 계십니까? (추석귀성/여행 이동중)

- ① 도로교통 정보제공 어플(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② 내비게이션 어플(티맵, 올레내비, 김기사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③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공사, 지자체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⑥ 기타()

SectionⅤ. 기타 사항

17. 귀객에서는 본가(시댁/친가)와 처가(친정/외가) 중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 ① 본가(시댁/친가)만 방문 >문17-1로 이동
 ② 처가(친정/외가)만 방문 >문17-1로 이동
 ③ 둘 다 방문 >문17-1로 이동
 ④ 둘 다 방문하지 않음 >문17-1로 이동
 ⑤ 모름/무응답 (불러주지 말 것)

17-1. (문17의 ②, ③ 응답자만) 그럼, 처가로의 출발일은 언제였습니까?

- ① 9.10(토, 주말) 이전 ② 9.11(일, 주말)
 ③ 9.12(월, 평일) ④ 9.13(화, 평일)
 ⑤ 9.14(수, 추석연휴) ⑥ 9.15(목, 추석당일)
 ⑦ 9.16(금, 추석연휴) ⑧ 9.17(토, 주말)
 ⑨ 9.18(일, 주말) ⑩ 9.19(월, 평일)
 ⑪ 9.20(화, 평일) 이후 ⑫ 모름/무응답

언론보도실적 정리

1. 2016년 설 연휴 보도자료

- 보도자료명 : 귀성 2.7 오전, 귀경 2.8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 17건, 신문/인터넷뉴스 : 111건 총 128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2-02	경향비즈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고향가는길'7일오전'·돌아오는길'8일오후'막혀요
2016-02-02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설연휴 '귀성' 7일오전·'귀경' 8일오후피해야
2016-02-02	중앙일보	사회	신문	설연휴귀경, 7일오전은피하세요
2016-02-02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 "귀경최대40분더걸려"
2016-02-02	헤럴드경제	재테크·최신기사	신문	[설연휴교통예측①] 3645만명대이동...서울→부산최대5시간20분
2016-02-02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경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뉴시스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 8일오후가장혼잡예상
2016-02-02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막혀요"
2016-02-02	뉴스1	일반	신문	국토부 '명절 이동수단 10명중 8명이 승용차'
2016-02-02	뉴스1	일반	신문	국토부 '대체휴일도 버스전용차로 운영'
2016-02-02	뉴스1	일반	신문	국토부 '명절기간 암체운전 단속 비행선 운영'
2016-02-02	뉴스1	건설부동산	신문	"설고향길7일오전피하세요"...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KBS뉴스	경제	라디오	설연휴귀성길은여유, 귀경길은혼잡
2016-02-02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설날귀성길수월하고귀경길혼잡...7일오전·8일오후정체최고
2016-02-02	뉴스웨이	부동산정책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붐빈다
2016-02-02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가장혼잡...작년보다는1~2시간감소"
2016-02-02	연합뉴스	최신기사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이투데이	경제정책	신문	[설연휴교통대책]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7일·귀경8일몰릴듯
2016-02-02	헤럴드경제	재테크·최신기사	신문	[설연휴교통예측②] 고속도암체운전?...드론4대가지켜본다
2016-02-02	서울신문	사회	신문	설연휴3600만명대이동...고속도로귀성길은7일오전이가장'혼잡'
2016-02-02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설연휴귀성길은7일오전, 귀경길은8일오후가장혼잡...3645만명'대이동'
2016-02-02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3645만명움직인다...서울→부산5시간20분예상
2016-02-02	SBSCNBC	경제	라디오	설연휴7일오전, 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한국경제	뉴스	신문	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작년보다소요시간줄듯
2016-02-02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3600만대이동...고향가는길은'수월'
2016-02-02	tbs교통방송	교통	라디오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7일, 귀경8일가장혼잡
2016-02-02	뉴스와이어	-	신문	국토부,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2-02	시사주간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 "고속도로상황잘파악하면고향이빨리보인다"
2016-02-02	뉴스핍	사회부동산	신문	설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정체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2-02	머니투데이	경제부동산	신문	설연휴귀성은7일오전,귀경은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한겨레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고속도로, 귀향은7일오전·귀경은8일오후혼잡
2016-02-02	에너지경제	경제정책	신문	설연휴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고속도로정체가장심할듯
2016-02-02	제이칸뉴스	사회	신문	설연휴...귀성2.7오전,귀경2.8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국회뉴스	사회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이투데이	경제정책	신문	[설연휴교통대책]정부,설연휴매일고속버스1788회·열차52회 늘린다
2016-02-02	서울경제	정치사회	신문	설연휴서울~부산귀성1시간20분줄고귀경20분더걸린다
2016-02-02	트루스토리	사회	신문	설연휴귀성최대소요시간"서울에서광주까지4시간20분예상"
2016-02-02	YTN	경제	라디오	설연휴갯길통행·버스전용차로확대
2016-02-02	뉴데일리 경제	경제	신문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SBS뉴스	경제	라디오	설연휴귀성길7일오전이가장혼잡
2016-02-02	스포츠투데이	라이프	신문	설연휴교통예상,귀성7일귀경9일집중
2016-02-02	미디어펜	건설부동산	신문	설연휴,귀성길7일·귀경길8일가장혼잡...3600만여명'대이동'
2016-02-02	MBC뉴스	-	TV	"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할듯"
2016-02-02	MBC뉴스	경제과학	라디오	"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KBS뉴스	경제	TV	설연휴귀성길 '여유', 귀경길 '혼잡'
2016-02-02	파이낸셜투데이	경제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예상
2016-02-02	데일리팝	경제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혼잡예상
2016-02-02	전기신문	-	신문	정부,설명절대비특별교통대책발표
2016-02-02	OBS뉴스	사회일반	라디오	설연휴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쿠키뉴스	-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SBS뉴스	사회	TV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가장혼잡한날은?
2016-02-02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설연휴전국3645만명이동...8일오후가장혼잡할전망
2016-02-02	YTN	경제	TV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붐벼
2016-02-02	뉴스포털1	시민기자의창	신문	국토부,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데일리안	경제	신문	설연휴3645만명이동...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물릴듯
2016-02-02	이투데이	경제	신문	[설연휴교통대책]정부,설연휴단계별비상근무체제가동
2016-02-02	한국일보	-	신문	설고향길3,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스포츠조선	경제	신문	설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귀경길은8일오후
2016-02-02	아시아경제	사회	신문	귀성길7일오전,귀경8일오후가가장혼잡
2016-02-02	아웃도어뉴스	뉴스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막혀
2016-02-02	글로벌이코노믹	산업	신문	설날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환경TV	-	신문	설연휴교통정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막혀".
2016-02-02	헤드라인뉴스	생활문화	신문	설연휴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8일오후귀경피해야
2016-02-02	연합경제	생활일반	신문	귀성길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평택자치신문	최신뉴스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할듯
2016-02-02	재경일보	사회	신문	설당일최대790만명한꺼번에이동...연휴길어귀성길정체1~2시간줄어든다
2016-02-02	시사경제신문	지방자치	신문	설고향길...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할듯
2016-02-02	뉴스포스트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기간고속도로,7일과8일가장혼잡예상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2-02	머니위크	-	신문	설연휴'서울~광주'예상시간,귀성4시간20분·귀경5시간40분
2016-02-02	영남일보	사회일반	신문	울설연휴귀성은7일귀경은8일이가장혼잡
2016-02-02	오토타임즈	최신기사	신문	귀성은7일오전,귀경은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아시아경제	경제금융	신문	설연휴때3473만명차량이용...고속도로갓길허용구간은어디?
2016-02-02	전자신문	이코노미	신문	설연휴기간귀성·귀경길'7일오전'과'8일오후'피해야
2016-02-02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민족대이동설,귀성·귀경피해야할시간대는?
2016-02-02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설연휴주요도시시간예상소요시간
2016-02-02	이투데이	경제정책	신문	[설연휴교통대책]고향길은7일오전,귀경길은9일오후밀린다
2016-02-02	머니투데이방송	부동산	라디오	"귀경길설날오전·귀성길설날오후가장혼잡"
2016-02-02	뉴스토마토	-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설당일오후정체가장심할듯
2016-02-02	메트로신문	건설부동산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8일최대혼잡예상
2016-02-02	더팩트	사회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데일리시닷컴	사회일반	신문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설명절3645만명이동,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예상
2016-02-02	중앙뉴스	경제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경기방송	-	라디오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매일경제	사회	신문	민족대이동설...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신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설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오토헤럴드	뉴스	신문	설연휴,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뉴스파인더	사회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이슈와뉴스	사회	신문	국토부,“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조세일보	산업	신문	고속도로,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울산종합일보	사회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포커스뉴스	항공운수	신문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총이동인원3645만명
2016-02-02	중도일보	환경교통	신문	설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조선일보	교통관광항공	신문	설연휴고속도로"귀성은7일오전,귀경은8일오후가장붐빌듯"
2016-02-02	연합타임즈	경제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예상
2016-02-02	이데일리	사회	신문	설연휴63만4000명해외외떠난다
2016-02-02	시사포커스	사회	신문	설연휴민족대이동'귀성은7일오전...귀경은8일오후부터'
2016-02-02	동아일보	교통	신문	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예상시간은?
2016-02-02	소비자경제	경제	신문	“설귀성길7일오전,귀경길8일오후가장물린다”
2016-02-02	동양일보	사회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이코노믹리뷰	뉴스	신문	설연휴기간,일일평균608만명이동전망...전년비2.7%증가
2016-02-02	교통신문	종합교통	신문	설연휴이동시간더짧아질듯
2016-02-02	한국타임즈	-	신문	설날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고속도로혼잡
2016-02-02	위클리오늘	사회	신문	설연휴3645만명이동...'7일오전·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뉴스쉐어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고속도로,7일오전과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아시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3	경기일보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MBN뉴스	사회	라디오	설연휴교통수요,설당일오후가장혼잡...'서울-부산5시간20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2-03	MBN뉴스	사회	라디오	설연휴교통수요, 설연휴3천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3	충청투데이	경제과학	신문	설연휴3645만명 '민족대이동' 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3	조선일보	교통관광항공	신문	고향가는길, 일요일오전에가장붐벼
2016-02-03	중앙일보	사회	신문	7일오전귀성, 8일오후귀경...가장막히는시간은피하세요
2016-02-03	국제뉴스	경제일반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통합뉴스	뉴스	신문	국토부, "귀성7일오전귀경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2	국민TV	핫이슈	신문	설명절귀성7일오전, 귀경8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2-02	시사캐스트	사회일반	신문	설귀성7일오전, 귀경길8일오후고속도로혼잡
2016-02-03	동아일보	교통	신문	설귀성7일오전, 귀경8일오후가장붐빌듯
2016-02-03	코리아 블로그뉴스	뉴스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 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한국정경신문	경제, 교통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2	투데이경제	사회	신문	설연휴3645만명대이동...귀성길7일오전가장혼잡
2016-02-03	데일리중앙	사회	신문	설연휴교통수요설날오후가장혼잡' 서울→대전2시간40분'
2016-02-02	코리아데일리	사회일반	신문	설연휴교통수요, 귀성길여유와혼잡시간"알고가면도움"
2016-02-02	검경일보	사회	신문	설연휴3645만명민족대이동
2016-02-03	KBS뉴스	사회	TV	"귀성길7일오전, 귀경길8일오후가장혼잡"
2016-02-03	KBS뉴스	경제	TV	설연휴귀성길은 '여유', 귀경길은 '혼잡'
2016-02-02	한국경제	-	신문	설연휴귀성길, 7일오전가장막힌다
2016-02-02	한겨레	경제일반	신문	귀향7일오전귀경8일오후이동피하세요
2016-02-02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설귀성길7일오전은피하세요

2. 2016년 설 연휴 보도참고자료

○ 보도참고자료명 : 설 연휴 3701만명 이동에도 소통은 원활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

일자	기사제목	언론사	구분
2016-02-10	설연휴3701만명이동...교통소통원활	아시아뉴스통신	보도기사
2016-02-10	실시간교통정보,설연휴간이동인구3701만명...지난해대비3.6%증가	MBN뉴스	보도기사
2016-02-10	설연휴간이동인구3701만명...하루평균교통량지난해대비3.6%증가	시선뉴스	보도기사
2016-02-10	3701만명설연휴대이동...인명피해는크게감소	더코리아뉴스	보도기사
2016-02-10	설연휴3701만명이동...교통사고인명피해급감	아주경제신문	보도기사
2016-02-10	설연휴3701만명대이동...설당일정체최고조	매일경제	보도기사
2016-02-10	연휴기간3700만명대이동...설당일귀경길최대정체	세계파이낸스	보도기사
2016-02-10	"설연휴는해외에서"...61.4만명출국' 사상최다'	아시아경제	보도기사
2016-02-10	국토부,지난5~10일해외연휴출국한사람'전년대비13.9%증가'61만4000	여성종합뉴스	보도기사
2016-02-11	설연휴3701만명이동...교통사고인명피해크게감소	국제뉴스	보도기사
2016-02-11	올해설3701만명이동집계...사고·피해급감	동양뉴스통신	보도기사
2016-02-11	3701만명설연휴대이동...인명피해는크게감소	포커스뉴스	보도기사

3. 2016년 가정의 달 보도자료

- 보도자료명 :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 TV/라디오 : 9건, 신문/인터넷뉴스 : 62건 총 71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5-03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5-03	연합뉴스	최신기사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최악정체
2016-05-03	KBS뉴스	경제	신문	하행선5일오전,상행선6일오후에가장막힐듯
2016-05-03	헤럴드경제	재테크·주식·가사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서울~부산6시간25분…5일오전차량몰려
2016-05-03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연휴'정체피크'는6일…교통량'5일오전·7일오후'최다
2016-05-03	한국경제	-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정체'5일오전·7일오후'가최악
2016-05-03	경향비즈	경제일반	신문	황금연휴고속도,5일오전·7일오후 '교통량최다'
2016-05-03	머니투데이	경제	신문	고속도로하행선5일오전,상행선7일오후가장혼잡
2016-05-03	이투데이	생활경제	신문	황금연휴4~8일대중교통증편…16개구간우회도로지정
2016-05-03	중앙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5일오전가장막혀
2016-05-03	쿠키뉴스	-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특별교통대책'기간지정
2016-05-03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5일최악정체…서울→강릉6시간20분
2016-05-03	파이낸셜 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국토부"5일오전,7일오후고속도로정체심화예상"
2016-05-03	포커스뉴스	항공운수	신문	5월연휴 '서울~부산6시간25분 소요'…특별교통대책추진
2016-05-03	에너지경제	-	신문	국토부,5월황금연휴기간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5-03	서울신문	경제	신문	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혼잡최악
2016-05-03	이데일리	부동산	신문	고속도로5월5일오전,5월7일오후가장분벼요
2016-05-03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황금연휴중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정체최고조
2016-05-03	남양주투데이	사회기획	신문	5월황금연휴대비전방위교통대책마련
2016-05-03	경기방송	-	라디오	황금연휴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정체극심
2016-05-03	월드스타	-	신문	5월6일임시공휴일,고속도로통행료면제
2016-05-03	머니투데이방송	부동산	TV	5월황금연휴고속도로꼭막힌다…국토부,특별교통대책마련
2016-05-03	SBS뉴스	경제	라디오	황금연휴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최악정체
2016-05-03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열차·고속버스증강…'갯길운전잡는다'
2016-05-03	포커스뉴스	항공운수	신문	[그래픽]5월황금연휴도시별예상소요시간
2016-05-03	미디어펜	사회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가장막히는시간은?
2016-05-03	한겨레	경제일반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정체'5일오전·7일오후' 최악
2016-05-03	매일경제	사회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최악정체전망
2016-05-03	신아일보	경제일반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가장혼잡
2016-05-03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황금연휴기간고속도로'5일오전·7일오후'가장혼잡
2016-05-03	서울경제	사회	신문	국토부,황금연휴기간5일오전·7일오후최악고속도로정체
2016-05-03	SBSCNBC	경제	라디오	5월황금연휴,고속도로소요시간최대2시간증가
2016-05-03	OBS뉴스	사회일반	라디오	황금연휴고속도로가장막히는시간은?
2016-05-03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정체극심…5일·7일'최악'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5-03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황금연휴고속도로, '출발5일오전·도착7일오후' 가장 밀린다
2016-05-03	동아일보	교통	신문	황금연휴?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가면지옥될듯
2016-05-03	YTN	경제	TV	황금연휴'5일오전·7일오후' 가장 붐벼
2016-05-03	YTN	경제	라디오	황금연휴'5일오전·7일오후' 가장 붐벼
2016-05-03	데일리안	경제	신문	4~8일연휴, 하루 열차 26회·고속버스 1758회·항공기 13편 늘린다
2016-05-03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 황금연휴 고속도로 혼잡 대비 하고자 '특별교통대책' 시행
2016-05-03	미디어펜	경제	신문	4~8일 황금연휴, 고속도로 최고 '정체' 시간은
2016-05-03	일간스포츠	-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5일오전·7일오후' 최악 정체
2016-05-03	부산일보	경제해양	신문	4~8일 닷새간 가정의달 특별 교통 대책 시행
2016-05-03	코리아포스트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최악 정체
2016-05-03	시사뉴스	경제	신문	5월 '황금연휴' 교통 혼잡 예상... '특별교통대책' 추진
2016-05-03	뉴스파인더	생활경제	신문	황금연휴 기간 고속도로 '5일오전·7일오후' 최악
2016-05-03	동아일보	교통	신문	5월 황금연휴 고속도로 정체 극심... '이날' 은 피하세요
2016-05-03	파이낸셜 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황금연휴 나들이길, 이 시간은 피하세요
2016-05-03	서울시정일보	사회	신문	(사회) 황금연휴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3	전국뉴스	문화	신문	황금연휴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3	KTV 국민방송	-	TV	특별교통대책 마련... 5일오전·7일오후 가장 붐빈다
2016-05-03	뉴스천지	경제일반	신문	국토부 "5일오전·7일오후에 고속도로 정체 심화"
2016-05-04	경기일보	경제일반	신문	국토부, 황금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 마련
2016-05-03	경상일보	사회	신문	연휴 기간 중 5일오전·7일오후 차량 정체 '최악' 예상
2016-05-03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5일오전과 7일오후에' 몸살 앓을듯
2016-05-03	여성신문	사회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정체 극심 예상... 5일오전 7일오후 최악
2016-05-03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5일오전·7일오후 혼잡
2016-05-03	초이스경제	경제산업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5일오전·7일오후 가장 혼잡
2016-05-04	경북도민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 무인비행선 띄워 '암체차량' 집중 단속한다
2016-05-04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황금연휴 고속도로 정체... 5일오전·7일오후 피하세요
2016-05-03	광남일보	사회	신문	4일부터 '황금연휴'... "가족과 함께"
2016-05-03	한국디지털뉴스	경제	신문	황금연휴 5-7일 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3	데일리시사닷컴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 "황금연휴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3	오픈뉴스	사회	신문	황금연휴 5일오전·7일오후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4	나눔뉴스	교통	신문	황금연휴 5일오전과 7일오후에 고속도로 가장 혼잡
2016-05-04	검경일보	사회	신문	황금연휴 서울~부산 6시간 25분 걸릴듯
2016-05-04	시사투데이	경제	신문	국토부,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2016-05-03	국민일보	시사전체기사	신문	연휴 고속도, 평소 주말보다 최대 2시간 더 소요
2016-05-04	서울경제	사회	신문	황금연휴 연휴가장 막힐까... 서울 OUT '5일오전' 서울 IN '7일오후'
2016-05-03	서울신문	사회	신문	갯길 차로 32곳 운영·감속 차로 10곳 연장
2016-05-03	MBC뉴스	-	TV	황금연휴, 언제 얼마나 막힐까? 5일오전·7일오후 '혼잡'

4. 2016년 하계휴가철 보도자료

- 보도자료명 :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 TV/라디오 : 21건, 신문/인터넷뉴스 : 109건 총 130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7-19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여름휴가피크는'8월첫주'...191만명출국
2016-07-19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하계교통대책] 휴가철도로30·31일가장혼잡...동해안 29.4%몰려
2016-07-19	머니투데이	경제부동산	신문	여름휴가'7월30~8월5일' 휴가객가장많아
2016-07-19	뉴스핍	부동산	신문	휴가객절반,8월첫째주에떠난다..7월30~31일고속도로가장붐벼
2016-07-19	경향비즈	경제일반	신문	올여름해외휴가자10%넘어...고속도로는7월마지막주말가장붐빌듯
2016-07-19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올여름7월30~31일고속도로혼잡가장심해"
2016-07-19	해럴드경제	재테크 최신기사	신문	이달30~31일영동고속도로휴가차량몰릴듯
2016-07-19	MTN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시작...이달말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7-19	연합뉴스	최신기사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7월30일~31일,고속도로혼잡가장심할듯
2016-07-19	이투데이	생활경제	신문	7월30일~8월5일여름휴가객46%고속도로몰린다
2016-07-19	KBS뉴스	경제	신문	7.30-8.5휴가객46%몰려...교통대책마련
2016-07-19	news1	차/교통	신문	[하계휴가대책]휴가비국내평균68만8천원...60%'휴가안간다'
2016-07-19	연합뉴스	그래픽	신문	〈그래픽〉올여름휴가교통수요및특별교통대책
2016-07-19	문화저널21	사회일반	신문	올해여름휴가극성수기는7월30일~8월5일
2016-07-19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7월말에'집중'...우회도로찾아보니
2016-07-19	뉴스핍	부동산	신문	[인포그래픽]여름휴가대비,고속도로4개임시개통
2016-07-19	SBS CNBC	부동산	라디오	7말8초'휴가길'...7월30일·31일가장막혀
2016-07-19	뉴시스	-	신문	피서객차량으로오는30,31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7-19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7월30~8월5일휴가객절반몰려...국토부여름휴가철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7-19	SBS뉴스	경제	라디오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서울신문	경제	신문	국민두명중한명은여름휴가안간다...경제적이유가55%
2016-07-19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8월첫째주휴가객46%몰려...이동인원전년비2.5%↑
2016-07-19	이데일리	부동산	신문	내달첫주여름휴가객46%몰린다..이달30~31일도로혼잡
2016-07-19	연합뉴스	-	신문	이달30일부터휴가철교통량증가
2016-07-19	연합뉴스	-	신문	휴가철차량이달30일부터정체예상
2016-07-19	서울경제	사회	신문	7월30일~8월5일에휴가객40%이상몰려
2016-07-19	MBC뉴스	경제과학	라디오	휴가객절반이8월첫주에,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KBS뉴스	경제	TV	휴가객46%가“7월30일~8월5일”
2016-07-19	시사포커스	사회	신문	휴가철특별교통대책'대중교통증차...국도조기개통'
2016-07-19	로컬세계	사회종합	신문	여름휴가객46%7.30~8.5일몰려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7-19	BBS뉴스	경제	라디오	올여름휴가객46%,7월30일-8월5일몰릴듯
2016-07-19	경기방송	-	라디오	8월첫주휴가객몰려...7/30~31도로혼잡'극심'
2016-07-19	데일리안	경제	신문	올여름휴가,7월30~31일가장혼잡
2016-07-19	신아일보	건설부동산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도로30·31일가장혼잡
2016-07-19	포커스뉴스	항공운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46%몰려...30~31일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7-19	이투데이	생활경제	신문	여름휴가도양극화...휴가포기자·해외여행비용동반상승
2016-07-19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국민절반'여름휴가안가'...경제적이유55%
2016-07-19	TBS교통방송	-	라디오	휴가철오는30~31일도로혼잡절정
2016-07-19	컨슈머타임스	뉴스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이달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MBN뉴스	사회	라디오	8월첫주휴가객몰려7월30~31일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7-19	머니투데이방송	부동산	TV	이달말고속도로가장혼잡...8월첫째주에휴가객46%몰려
2016-07-19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하계교통대책]고속버스234회증편·수원등4개노선진입차로조정
2016-07-19	스포츠조선	라이프	신문	여름휴가8천만명이동...7월말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7-19	TBS교통방송	-	라디오	올여름휴가객46%8월첫주에몰려...오는30~31일도로혼잡절정(종합)
2016-07-19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19	전국뉴스	문화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19	뉴데일리경제	-	신문	車441만대-人474만명...'휴가피크'7월말~8월초,휴가객46%몰려
2016-07-19	뉴스토마토	-	신문	8월첫주휴가객가장 많아...이달30~31일도로정체정점예상
2016-07-19	헤드라인뉴스	경제	신문	여름휴가,7월말~8월초40%이상집중...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6-07-19	EBN	-	신문	"30일~내달5일피서객46%집중"...휴가철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7-19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7월30~31일고속도로혼잡'절정'..."휴가객몰려"
2016-07-19	RTN부동산 경제TV	부동산	신문	여름휴가객46%7월30~8월5일집중
2016-07-19	PBC뉴스	경제산업	라디오	올여름휴가철고속도로30일·31일가장혼잡
2016-07-19	폴리뉴스	-	신문	정부,휴가철교통대책마련...22일부터시행
2016-07-19	뉴스파인더	생활경제	신문	여름휴가객8월첫주46%몰려...교통수단자동차압도적
2016-07-19	동아일보	경제일반	신문	휴가철도로7월30~31일가장혼잡...동해안29.4%몰려
2016-07-19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휴가비국내평균68만8000원...60% '휴가안간다'
2016-07-19	한겨레신문	사회일반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스포츠경향	생활	신문	[와글뉴스]올휴가길,가장막히는시기는언제?
2016-07-19	한국디지털뉴스	경제	신문	국토부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
2016-07-19	울산종합일보	경제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19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8월첫주피서객46%몰려...7월말교통혼잡절정
2016-07-19	한겨레신문	경제일반	신문	8월첫째주휴가객46%몰릴듯...10명중8명승용차이용
2016-07-19	뉴스웨이	부동산정책	신문	올여름7월30~31일고속도로가장혼잡...특별교통대책마련
2016-07-19	아시아투데이	경제	신문	여름휴가철...30~31일고속도로정체절정예상
2016-07-19	국방일보	-	신문	국토부,휴가철특별교통대책
2016-07-19	한국경제	-	신문	여름휴가객46%,8월초에집중
2016-07-19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여름휴가7월30일~8월5일집중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7-19	경기일보	공항항만교통	신문	올여름피서는언제가괴크?8월첫주에휴가객46%몰려...7월30~31일고속도로혼잡 '극심'
2016-07-19	BBS뉴스	경제	라디오	올여름휴가7월30일-8월5일간절정
2016-07-19	전주일보	경제	신문	국민2명중1명올여름휴가이달30일부터다음달5일까지
2016-07-19	스포츠동아	-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이달30,31일고속도로혼잡
2016-07-19	동아일보	교통	신문	올여름휴가객46%8월첫주에몰려...고속도로정체가장심한날은?
2016-07-19	투데이코리아	문화레저	신문	올해여름휴가객46%8월첫주에몰려...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7-19	조선일보	연예일반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절정
2016-07-19	MBC뉴스	-	TV	[이브닝이슈]'즐거운휴가철',떠나기전꼭확인해야할것은?
2016-07-19	MBC뉴스	경제	TV	휴가객절반8월첫주에몰려,7월30~31일'도로혼잡' 극심
2016-07-19	스포츠경향	생활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30~31일고속도로혼잡 '절정'
2016-07-19	경향신문	사회	신문	여름휴가10명중1명“해외로”
2016-07-19	국민일보	시사	신문	‘7월30일~8월5일’ 휴가철고속도로가장막힌다
2016-07-19	연합뉴스TV	-	TV	휴가길7월30~31일가장혼잡...피해야할시간은?
2016-07-19	한국일보	-	신문	여름휴가기간,대중교통늘리고고속도로에갓길차로
2016-07-19	대전투데이	사회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19	제주일보	경제일반	신문	올여름휴가길편안하게...특별교통대책실시
2016-07-19	SBS CNBC	시사	라디오	휴가철고속도로7월30일·31일가장혼잡
2016-07-19	빛가람뉴스	생활문화	신문	금년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19	세계일보	경제일반	신문	7.30~8.5휴가객46%몰린다
2016-07-19	아시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19	미디어펜	경제	신문	국토부,휴가철특별교통대책시행...31일혼잡절정
2016-07-19	아시아타임즈	부동산정책	신문	8월첫째주에여름휴가객46%집중...국토부대책마련분주
2016-07-19	MBC뉴스	-	TV	"8월첫주에휴가객'절반'떠난다"이달31일가장붐벼
2016-07-19	시선뉴스	사회일반	신문	"8월첫주에휴가객46%몰린다"...국토교통부,'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7-19	금강일보	사회일반	신문	휴가철고속도로30·31일가장붐벼요
2016-07-19	티브이데일리	-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이달말교통혼잡절정
2016-07-19	전자신문	라이프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말-8월초교통혼잡절정 '특별대책마련키로'
2016-07-19	서울신문	사회	신문	8월 첫주 휴가객 46% 몰려...해외여행지는 中이 최고 인기
2016-07-19	한국경제	-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교통수단승용차압도적...교통특별대책시행
2016-07-19	쿠키뉴스	-	신문	국내평균휴가비68만원...10명중6명휴가'포기'
2016-07-19	CBC뉴스	사회일반	신문	평균휴가비,비교보다는사정에맞게...기업당'빨간날' 수는?
2016-07-19	민중의소리	사회	신문	평균휴가비,휴가간다는사람줄었다...안가는이유는?
2016-07-19	머니위크	-	신문	평균휴가비'68만8000원',지난해보다증가...10명중6명은'안간다'
2016-07-19	서울일보	사회	신문	국토부, '하계휴가철특별교통대책' 실시
2016-07-19	KBS뉴스	경제	TV	‘7월30일~8월5일’ 휴가객46%집중
2016-07-19	광남일보	-	신문	7월30~31일휴가철도로혼잡절정
2016-07-19	헤럴드POP	-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대중교통편'확대'
2016-07-19	제민일보	정치	신문	하계휴가지제주선호도9.8%...전년대비0.7%감소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7-19	스타서울TV	사회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국토부특별교통대책기간선정,교통정 보확인은?
2016-07-19	서울경제	사회	신문	올여름피서객8월첫주에46%몰려
2016-07-19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7.30~8.5휴가객46%몰려…교통대책마련
2016-07-19	매일건설신문	정책종합	신문	국토부, '여름휴가철특별교통대책' 발표
2016-07-20	MBC뉴스	-	TV	[이슈투데이]복작복작휴가철, 7월30일~8월5일 '피크'
2016-07-20	동아일보	경제일반	신문	7월30,31일휴가객이동최다
2016-07-20	부산일보	사회	신문	7월30일~8월5일'휴가객46%몰린다
2016-07-20	제주신보	경제일반	신문	국토부하계휴가철특별교통대책실시
2016-07-20	충남일보	종합뉴스	신문	휴가객절반8월첫주에몰린다
2016-07-20	시사투데이	경제	신문	국토부, 휴가객7월30~8월5일40%이상몰려…동해안권가장많아
2016-07-20	시대일보	사회	신문	8월첫주휴가객46%몰려…7월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20	코리아블로그 뉴스	뉴스	신문	여름휴가철고속도로혼잡7월30~31일절정
2016-07-20	KBS뉴스	사회	TV	앞으로3주간국민70%가휴가…안전운전은?
2016-07-20	티브이데일리	-	신문	평균휴가비, 2박3일65만8천원..10명중6명은'포기'
2016-07-20	MBN뉴스	-	TV	여름휴가7달8초'절정'…휴가객46%몰려
2016-07-20	현대건강신문	-	신문	가구당평균휴가비65만원...출발일8월첫째주가장많아
2016-07-20	한국정경신문	사회	신문	이제휴가까지포기?...평균휴가비, 지난해보다높아
2016-07-20	월드투데이	사회일반	신문	여름휴가비용은평균얼마정도?
2016-07-20	중앙일보	경제	신문	[클립Now]국민절반이휴가못가는데교통대책만?
2016-07-20	광주일보	-	신문	“8월첫주휴가” 46%…30~31일도로혼잡극심
2016-07-20	경인일보	경제일반	신문	피서객몰리는30~31일절정…국토부, 열차증편등특별대책
2016-07-20	한국경제	사회	신문	여름휴가객46%, 8월초에떠난다
2016-07-20	서울신문	사회	신문	“돈버느라” “돈없어서”절반은바캉스안간다

5. 2016년 추석 연휴 보도자료

- 보도자료명 :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 TV/라디오 : 21건, 신문/인터넷뉴스 : 127건 총 148건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9-06	뉴시스	사회일반	신문	추석교통정체'14일오전,15일오후절정
2016-09-06	헤럴드경제	-	신문	[추석교통대책]추석전날·당일고속도로가장붐빈다…서울~부산7시간30분걸릴듯
2016-09-06	News1	건설부동산	신문	추석KTX운행12.5%늘린다…고속버스하루1728회확대
2016-09-06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추석연휴'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피해야
2016-09-06	국민일보	-	신문	올추석,귀성은14일오전·귀경은15일오후피하세요
2016-09-06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대이동]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머니투데이	-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귀경길은15일오후가장밀린다
2016-09-06	경향비즈	경제일반	신문	올추석,귀경길14일오전·귀성길15일오후가장붐빈다
2016-09-06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대이동]고속버스1728회증회·전용차로제연장
2016-09-06	뉴스핌	부동산	신문	추석고향길,14일오전가장밀려..서울-부산7시간반소요
2016-09-06	연합뉴스	-	신문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추석연휴귀향길14일,귀경길은15일절정
2016-09-06	뉴데일리경제	-	신문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지난해보다10분더걸려
2016-09-06	매일경제	문화	신문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서울경제	부동산	신문	[서울경제TV]추석연휴,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고속도로절정
2016-09-06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대이동]'고향대신해외로'…해외출국61만명
2016-09-06	News1	정책	신문	귀성길은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News1	정책	신문	국토부 '추석연휴간 일 평균 439만대 고속도로 이용'
2016-09-06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가장막힌다
2016-09-06	아시아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대이동]서울→부산7시간30분·서울→광주7시간
2016-09-06	머니투데이방송	경제	TV	올추석연휴고속도로,귀성14일·귀경15일가장혼잡
2016-09-06	RTN부동산경제TV	부동산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데일리안	경제	신문	“추석연휴,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빛가람뉴스	행정	신문	정부,"추석연휴특별안전대책시행"비상대응체계가동
2016-09-06	한겨레	경제일반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가장혼잡한날은?
2016-09-06	세계일보	교통항공	신문	올추석연휴귀성길은14일오전,귀경길은15일오후고속도혼잡절정
2016-09-06	KBS뉴스	경제	신문	추석'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한국경제TV	-	신문	추석연휴'귀성.귀경길'고속도로,언제가장막힐까
2016-09-06	연합뉴스TV	경제	TV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MBN	사회	라디오	추석연휴고속도로혼잡도…'14일오전·15일오후'절정
2016-09-06	뉴시스	-	신문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9-06	이데일리	사회일반	신문	추석귀성·귀경길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혼잡도절정
2016-09-06	TBS교통방송	-	라디오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9-06	S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MBS	경제/유통	신문	추석고속도로혼잡 '14일오전 · 15일오후'
2016-09-06	경기방송	-	라디오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오토헤럴드	뉴스	신문	추석연휴, 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혼잡예상
2016-09-06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 "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쿠키뉴스	-	신문	올추석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EBN	-	신문	추석연휴3752만명대이동..."14일오전·15일오후교통가장혼잡"
2016-09-06	웰빙코리아뉴스	-	신문	국토부“추석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메트로신문	교통	신문	추석연휴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혼잡절정
2016-09-06	공공뉴스	사회	신문	[추석민족대이동]고속도로혼잡14일·15일 '절정' ..소요시간은?
2016-09-06	아주경제	부동산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 귀경길15일오후고속도로가장붐빈다
2016-09-06	트루스토리	사회	신문	추석연휴 '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피해야
2016-09-06	PBC뉴스	경제/산업	라디오	추석귀성길14일오전, 귀경길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뉴스피플	사회이슈	신문	“추석, 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뉴스파인더	생활경제	신문	추석연휴'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교통량절정
2016-09-06	급식뉴스	-	신문	“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전자신문	이코노미	신문	추석연휴, 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추석당일가장막힌다
2016-09-06	정책브리핑	-	신문	귀성9.14오전, 귀경9.15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사회안전신문	-	신문	국토부“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티엔티뉴스	사회	신문	국토부“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전남인터넷뉴스	사회	신문	귀성9.14오전, 귀경9.15오후가장물릴듯
2016-09-06	중앙일보	사회	신문	올추석14일오전, 15일오후가장막혀요
2016-09-06	서울신문	사회	신문	추석연휴 '14일오전귀성, 15일오후귀경' 피하세요
2016-09-06	일간투데이	사회일반	신문	추석고향길14일오전'가장막혀'
2016-09-06	위클리오늘	사회	신문	추석연휴교통정체추석당일가장심할듯
2016-09-06	뉴스핍	부동산	신문	[추석특별교통대책]귀성객80%자가용이용..경부선가장많이물려
2016-09-06	조선비즈	경제일반	신문	추석귀성길은14일, 귀경길은15일에가장막힐듯..."서울→부산평균7시간30분예상"
2016-09-06	시사포커스	사회	신문	추석연휴귀성14일·귀경15일고속도로'가장피크'
2016-09-06	TBS교통방송	-	라디오	추석전날·당일, 고속도로가장혼잡... 특별교통대책시행
2016-09-06	이데일리	부동산정책	신문	[그래픽]2016년추석특별교통대책
2016-09-06	글로벌이코노믹	라이프	신문	국토부,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발표...미리알고준비하세요
2016-09-06	B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민족대이동3천7백52만명에달할듯
2016-09-06	BBS뉴스	경제	라디오	추석연휴3천752만명이동...작년보다0.8%증가
2016-09-06	KBS뉴스	사회	TV	추석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가장 '혼잡'
2016-09-06	노컷뉴스	경제일반	신문	추석연휴해외여행지난해추석보다13.9%증가전망
2016-09-06	이데일리	-	신문	[그래픽]2016년추석교통수요조사결과
2016-09-06	코리안블로그뉴스	-	신문	추석연휴특별안전대책시행..비상대응체계가동
2016-09-06	동양뉴스통신	경제	신문	추석연휴,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디지털타임스	생활과학	신문	추석연휴3752만명대이동·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가장혼잡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9-06	뉴스웨이	부동산일반	신문	추석연휴, 귀성14일오전, 귀경15일가장혼잡
2016-09-06	컨슈머타임스	-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 '14일오전·15일오후' 가장혼잡하다
2016-09-06	포커스뉴스	산업일반	신문	귀성14일에50%집중...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소비자경제	경제	신문	국토부, 추석합동특별교통대책시행...줄임운전예방등관리강화
2016-09-06	뉴스토마토	부동산정책건설	신문	추석연휴14일오전, 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아시아투데이	부동산	신문	추석귀성길14일혼잡...서울→부산7시간30분
2016-09-06	서울신문	경제	신문	추석귀향길고속도로, 14일오전·추석당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연합뉴스TV	경제	TV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유통데일리	라이프	신문	추석혼잡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예상
2016-09-06	머니S	-	신문	추석연휴서울-광주7시간, 광주-서울5시간10분걸릴듯
2016-09-06	OBS뉴스	사회일반	TV	추석'14일오전·15일오후'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6	미디어인천신문	사회일반	신문	울추석, 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동아일보	교통	신문	추석연휴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는피하세요
2016-09-06	비즈니스워치	-	신문	[포스트]긴추석연휴'귀성·귀경네비게이션'
2016-09-06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울추석귀성길전년보다더막혀...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절정
2016-09-06	MBC뉴스	경제/과학	라디오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가장혼잡할듯
2016-09-06	폴리뉴스	-	신문	추석귀성14일귀경15일...5일간3,752만명이동예상
2016-09-06	세계일보	교통항공	신문	귀성길은14일오전, 귀경길은15일오후절정
2016-09-06	이슈와뉴스	사회이슈	신문	국토부“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TBS교통방송	-	라디오	추석전날·당일, 고속도로가장혼잡...특별교통대책시행(종합)
2016-09-06	뉴시스	-	신문	[그래픽]추석 연휴 고속도로 최대 예상 소요시간
2016-09-06	시사뉴스	사회	신문	추석고속도로,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절정
2016-09-06	KJT뉴스	사회	신문	추석귀성길14일혼잡예상, 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헤드라인뉴스	생활문화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가장혼잡...귀경은15일오후집중”
2016-09-06	한성일보	사회종합	신문	“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스포츠조선	경제	신문	추석고속도로,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절정
2016-09-06	KBC광주방송	-	라디오	추석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가장막혀
2016-09-06	YTN	이슈	TV	추석맞이민족대이동, 가장혼잡할날은언제일까
2016-09-06	제이칸뉴스	사회	신문	국토부“귀성은14일오전, 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정책브리핑	경제	신문	추석특별교통대책...대중교통증편·우회도로운영
2016-09-06	더팩트	생활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 귀경길'15일오후' 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9-06	머니S	자동차	신문	울추석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에도로정체극심할듯
2016-09-06	미디어펜	경제	신문	추석연휴귀성길, 14일고속도로혼잡절정...서울→부산7시간30분
2016-09-06	국토경제	-	신문	귀성 '14일오전' 귀경 '15일오후' 가장혼잡
2016-09-06	교통신문	종합교통	신문	추석연휴14일오전·15일오후혼잡할듯
2016-09-06	미디어펜	경제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갓길운행허용"아무곳에서되나요?"
2016-09-06	MBC뉴스	-	TV	추석연휴'전날오전·당일오후'가장혼잡해
2016-09-06	MBC뉴스	-	TV	추석연휴전날오전·당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서울경제	사회	신문	추석당일(15일)고속도로최대정체...서울→강릉5시간

일자	언론사	구분	매체	뉴스제목
2016-09-06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일반	신문	14일오전귀성,15일오후귀경길피하세요
2016-09-06	한국일보	-	신문	추석 '귀성' 14일오전, '귀경' 15일오후피해야
2016-09-06	연합뉴스	-	신문	서울→강릉추석당일가장막힌다...5시간소요
2016-09-06	경기일보	공항항만교통	신문	추석에3천752만명대이동...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몰린다
2016-09-06	경상일보	-	신문	[추석연휴특별교통대책]민족대이동 '14일오전·15일오후' 고속도로가장붐벼
2016-09-06	부산일보	-	신문	고향가는길14일오전가장붐빈다
2016-09-06	시사위크	사회	신문	국토부"귀성길,14일오전고속도로가장혼잡"
2016-09-06	굿모닝충청	사회	신문	"추석서울~대전귀성길,4시간35분소요"
2016-09-06	금강일보	사회일반	신문	귀성길은14일,귀경길은15일가장혼잡할듯
2016-09-06	세계일보	사회일반	신문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정체절정
2016-09-06	환경TV	-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혼잡최고'
2016-09-06	여성신문	사회	신문	추석고속도로,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가장막힐듯
2016-09-06	브릿지경제	사회일반	신문	경부선버스전용차선4시간연장...KTX32회확대운행
2016-09-06	울산제일일보	경제	신문	추석연휴 '귀성전쟁' 서울→울산7시간40분
2016-09-06	데일리시사닷컴	사회일반	신문	국토부,"추석고속도로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혼잡절정"
2016-09-06	창원일보	-	신문	추석길`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혼잡절정
2016-09-06	국토매일	교통종합	신문	추석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아시아타임즈	사회	신문	울추석, 귀성14일오전, 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6	남도일보	경제/과학	신문	추석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 가장혼잡
2016-09-06	현대경제	사회/생활	신문	국토부"귀성은14일오전,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로컬투데이	사회	신문	국토부"추석귀성은14일오전...귀경은15일오후가장몰릴듯"
2016-09-06	톡톡뉴스	사회일반	신문	울추석교통량최대... 귀성길14일오전·귀경길15일오후
2016-09-06	경북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혼잡절정
2016-09-06	에너지경제	-	신문	추석귀성·귀경길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혼잡절정
2016-09-07	JTBC뉴스	사회	TV	추석연휴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7	조선일보	교통관광항공	신문	추석귀성길,14일오전에가장막힌다
2016-09-07	인천일보	사회	신문	"추석고속도로14일오전·15일오후가장막혀"
2016-09-07	서울신문	사회	신문	14일오전·15일오후피하세요
2016-09-07	시대일보	사회	신문	추석연휴 '14일오전·15일오후' 고속도로혼잡절정
2016-09-07	동아일보	사회일반	신문	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막힌다
2016-09-07	한국경제	사회	신문	추석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교통최악'
2016-09-07	중앙일보	사회	신문	귀성은14일오전,귀경은15일오후차량이동최다
2016-09-07	중부일보	사회종합	신문	귀성·귀경길지난해보다10분더걸린다
2016-09-07	대전일보	-	신문	추석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7	광주일보	-	신문	추석귀성14일오전·귀경15일오후가장혼잡
2016-09-07	경인일보	교통항공항만	신문	14일오전·15일오후'대이동절정'
2016-09-07	MBN	-	TV	추석고속도로'귀성추석전날·귀경추석당일' 혼잡절정

6. 2016년 추석 연휴 보도참고자료

○ 보도참고자료명 : 3529만명 이동에도 소통 원활_교통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일자	기사제목	언론사	구분
2016-09-19	올해추석연휴3,529만명이동...추석당일776만명'역대최대'	폴리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3천529만명이동...추석당일이동인원사상최대	SBS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3천529만명이동...추석당일이동인원사상최대	연합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3529만명이동...해외출국자61만명 '사상최대'	포커스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3천529만명이동...추석당일이동인원사상최대	국회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3천529만명이동...추석당일이동인원사상최대	KBS뉴스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이동객총3529만명·차량2509만대	매일경제	보도기사
2016-09-19	추석연휴 '3천529만명이동·차량2천509만대몰려'	에너지경제	보도기사
2016-09-19	올추석교통사고사상자33%줄어	뉴시스	보도기사